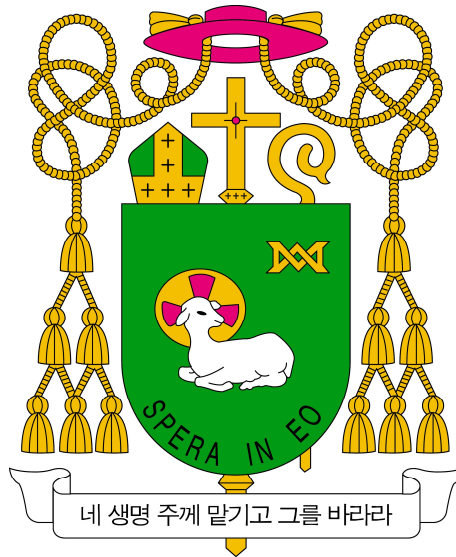


제주 4·3 심포지움

세상에 평화를 이루는 소공동체



일 시 : 2013년 12월 8일

장 소 : 연동성당

주 최 : 천주교 제주교구

제주 평화의섬 특별 위원회

- 차 례 -

사회 : 홍화균(사무엘)

1. 시작기도

2. 교구장 인사말

2. 발제문 발표

- 1) 4·3 당시 교회의 역할 - 박찬식(시메온) 교수
(제주4·3평화재단 진상조사단장)
- 2) 신학적 주제로서의 4·3 - 문창우(비오) 신부
(광주가톨릭대학교 교수)

3. 토론문 발표

- 1) 김상기 목사(새사람 교회)
- 2) 현문권 신부(신제주 성당 주임신부)
- 3) 김진호 실장(제 3 그리스도교 연구소)
- 4) 허호준 기자(한겨레 신문)

4. 질의 응답

5. 마침기도 및 강복

제주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도문

풍성한 바다로 저희를 축복해 주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아름다운 오름과 돌과 숲으로 제주를 빚어주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모진 바람과 파도와 역사의 아픔을 겪고도 좌절하지 않고, 인고의 삶을 이어오도록 저희 조상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지켜주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제주에 지난 세월의 고통을 딛고 일어나 참된 평화의 섬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제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저희가 물질적인 탐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소서!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며 개발의 포로가 되어 주님께서 은혜로 이 내려주신 자연을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인간들이 의지하는 군사력이 결코 이 땅의 평화를 지켜주는 보증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칼을 잡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인간들이 만든 무기와 힘에 의지하기보다 주님의 자비와 권능에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손수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어 주소서!

그러면 저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이다.(이사.2, 4)

주님, 이 제주에 세상에 참된 평화를 실현하는 낙원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2007. 10. 1

천주교 제주교구장

강 우 일 베드로 주교 인준

목 차

[발제] 4·3 당시 교회의 역할	1
--------------------------	---

박찬식(시메온) / 제주4·3평화재단 진상조사단장

1. 머리말	1
2. 교회의 4·3사건 인식	2
3. 교회의 피해상황	6
4. 교회의 선무·구호활동	8
5. 맺음말	14

[발제] 신학적 주제로서의 제주 4·3	17
-----------------------------	----

문창우 신부 / 광주가톨릭대학교 교수

I. 서 론	17
II. 본 론	18
1. 4·3의 기억	19
2. 희년을 희망함 - 4·3의 회복	20
3. 4·3과 하느님 나라	21
4. 4·3과 십자가	22
5. 인간의 존엄성 - 생명	24
6. 4·3과 희생	25
7. 용서와 화해	25
8. 신앙의 정체성: 진실의 추적	26
III. 결 론	27

[토론Ⅰ] “그들로 하여금 숨통을 트이게 하라”	33
----------------------------------	----

김상기 목사 / 새사람교회 목사, 前 남서울대학교 기독교윤리학 교수

<별첨자료> 제노사이드 메커니즘 이론으로 본 제주 4·3	36
---------------------------------------	----

[토론Ⅱ] 세상을 향한 교회의 첫걸음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다	61
---	----

현문권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 신제주 본당 주임신부

[토론Ⅲ] ‘평화신학’ 적 주제로서의 4·3	65
--------------------------------	----

김진호 목사 /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1. 쉬벨렛/시벨렛	65
2. 간접적 희생자	67
3. 평화신학	69
4. 간접적 희생자로서의 민족?	71

[토론Ⅳ] 토 론 문	75
-------------------	----

허호준 / 한겨레신문 부장

1. 4.3 당시 신부들의 상황 인식	76
2. 4.3 당시 신부들의 역할	77
3. 한국전쟁 당시 제주도 천주교	79
4. 다음은 문창우 신부님의 ‘신학적 주제로서의 4.3’에 대해 짧막하게 언급하고 싶다.	77

발 제 I

4.3 당시 교회의 역할

발제 I

4·3 당시 교회의 역할

박 찬 식(시메온)

제주4·3평화재단 진상조사단장

1. 머리말

이 글은 4·3사건 당시 제주지역의 천주교회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과 그에 대처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검토한 초보적인 결과물이다. 해방 후 정치사회적 이념과 가치관이 상충하고 한라산 무장대와 국가공권력인 군·경 토벌대 사이에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이 사건에 대한 교회의 인식과 교회가 당한 피해 실태, 교회가 행한 선무·구호활동 등에 대해서 차례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4·3사건의 진상조사보고서가 정부 위원회의 이름으로 2003년에 발간되어 그 대체적인 피해실태의 윤곽은 드러났지만, 마을별 피해실태, 행불인의 실상, 여성 및 아동의 피해실태, 일본에 피신한 사람들의 행방 등 구체적인 진실에 대해서는 아직도 규명작업이 미진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계·종교계의 피해실태, 물질 피해실태, 연좌제 등 정신적 피해실태에 대한 규명도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추가적인 보완을 필요로 하는 조사 대상 가운데 천주교·불교·개신교 등 종교계의 4·3 당시 피해 및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불교계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큰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¹⁾ 천주교 측의 서술은 선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출간한 『제주천주교회 100년사』가 유일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서술을 필요로 한다.

발표자 또한 이 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검색해 보았지만, 『제주천주교회 100년사』에서 인용된 자료를 능가하는 새로운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교회의 관련 자료가 많이 일실되어 버려서 구체적인 교세 현황조차 파악하기 힘들었다. 심지어 제주본당과 서귀포본당의 신부 재임 시기 또한 100년사에 서술된 내용과 맞지 않는 기록들이 나와서 정확한 고증을 필요로 하였다. 당시 제주교회 선교사에 관한 편지가 아일랜드 골롬반 선교회 본부 문서고에 일부 소장되어 있어서 교회의 4·3사건 인식과 피해 실태를 파악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제주본당의 세 신부가 직접 쓴 편지가 아니어서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²⁾

부족한 글이지만 현실과 사회 속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회고하고 성찰해 봄으로써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한 작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1) 불교계의 피해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로는 다음의 글이 참고 된다. 한금순, 「한국전쟁 시기 제주도 불교계의 피해 현황과 분석」,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재』 II(제주도편), 2004, 121~139쪽 ; 한금실, 「이세진의 제주불교 혁신운동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2) 한국교회사연구소의 최승용 신부님이 자료 열람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 이 자료를 활용한 최선희의 다음 두 편의 글도 참고 되었다. 최선희, 「서양 선교사의 한국전쟁 예견 -외방선교회 관련 문서에 대한 소개를 중심으로」, 『교회사연구』 23, 2004 ; 「냉전시대 캐롤 몬시뇰의 구호 활동과 그 의의」, 『교회사연구』 34, 2010.

다행이겠다.

2. 교회의 4·3사건 인식

4·3봉기가 발발했던 1948년 4월 당시 제주 천주교회는 2개의 본당(제주본당과 서귀포본당)과 2개의 공소(신창공소와 용수공소)를 중심으로 복음 전파 활동을 하고 있었다. 태평양전쟁 발발 직전인 1941년 10월 제주지역의 포교를 담당하던 도슨(손 파트리치오)·스위니(서 아우구스티노)·라이언(나 토마스) 신부 등 3명의 선교사들은 제주의 군사 기밀 유출 혐의로 일제 당국에 의해 검거되어 해방될 때까지 광주형무소에 수감되어 고초를 겪었다.³⁾

1945년 11월에 광주에서 요양을 하던 스위니(A. Sweeney, 徐 아우구스티노) 신부가 제주 본당의 제8대 주임으로 재부임해 오면서 제주본당이 부활되었다. 한편 일제 말기에 제주본당 주임을 역임했던 도슨(P. Dawson, 孫 파트리치오) 신부와 서귀포본당의 주임을 역임했던 라이언(T. Ryan, 羅 토마스) 신부는 광주에서 요양을 하다가 1946년 9월에 휴가를 얻어 본국인 아일랜드로 귀국하였다.⁴⁾ 1947년 10월 10일에는 본국 휴가에서 돌아온 라이언 신부가 서귀포본당의 제10대 주임으로 다시 부임함으로써 서귀포본당이 부활되었다. 도슨 신부 또한 비슷한 시기에 본국 휴가에서 돌아와 1947년 12월경에는 스위니 신부가 사목하던 제주본당에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의 헨리 신부가 1947년 11월 29일 쓴 편지에 도슨 신부가 곧 제주도에 갈 것이라고 했으며,⁵⁾ 1948년 4월에 미군정 군인들이 제주본당의 두 신부를 만난 사실로써 도슨 신부의 제주 복귀시기를 미루어 알 수 있다. 1949년 4월 27일에는 스위니 신부가 본국으로 휴가를 떠났고, 7월 7일에는 휴가를 갔다가 돌아온 도슨 신부가 제9대 제주본당 주임으로 다시 부임하였다.

4·3사건을 겪던 시기에 제주의 신자수가 얼마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1935~1936년의 신자수가 529명이었음을 감안한다면, 태평양전쟁 때 감소했다가 해방 직후 복구되어 500명 정도로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신창공소가 1947년 말에 신자수가 100명으로 증가하였고, 1949년 9월 1일 용수공소의 신자수가 150여명을 기록하는 등 새로운 영세 입교자가 많이 증가했을 것이다.

해방 후 부활된 제주본당의 스위니 신부는 본당 신자들과 최정숙을 비롯한 신성여학교 졸업생들과 힘을 합쳐 신성여학교의 부흥을 위해 노력하였다. 신성여학교의 부활에 대해서 초대 교장 최정숙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3) 이들의 1940년대 태평양전쟁 시기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형무소에 수감된 경위에 대해서는 다음 글이 참고된다. 『경향잡지』 1946년 9월 1일자 ; 윤선자, 「1940년대 전시체제와 제주도 천주교회」,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5, 2005.

4) 『경향잡지』 1946년 10월 1일자.

5) 헨리 신부가 마리난 총장에게 보낸 편지(1947. 11. 29).

이때 천주교 신자들과 지방유지 신성졸업생들이 폐교된 신성의 부흥을 논의하게 되었다. 일제 억압에 문을 닫은 29년 만에 다시 재건하게 될 신성을 위해 나는 적극 참여, 교사 급사 소사까지 겸하며 동분서주했다. 전기가 없기 때문에 등잔을 닦아 준비하는 일 몰수되었던 학교 재산을 찾는 일 등을 「수이니」 신부님을 통해 미군정 책임자에게 탄원하여 절간이 되어버린 재산을 찾았다.

여기서 야간 1학급으로 발족한 학원은 3년간 고생한 보람이 나타나 49년 여자중학교로 인가를 받았고 천주교재단의 양해를 얻어 등기를 했다. 교사 급사 소사 일을 도맡아온 나에게 교장을 맡도록 하여 나는 여러 차례 사양했지만 책임자가 나올 때까지라는 조건부로 교장 취임을 승낙, 신성 1회 졸업생이 신성 초대교장을 맡은 것이다. 학교를 설립한 뒤 계속된 재정난 때문에 교사들에게 충분한 대우를 해주지 못했는데도 희생적으로 봉사해주었다

특히 이때 학교 부흥을 위해서 헌신해준 분으로 홍완표·이기형·고창호·고영일·김종철씨 등을 들 수 있다. 학교가 천주교재단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현하롤드 광주교구 대주교님을 찾아 학교 투자를 늘려주도록 하소연했다. 일부 성직자는 교육사업 투자보다는 성당을 몇 개 증축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나의 학교 설립의 극성은 나의 천주교 세례명인 베아트릭스 학교라고 핀잔까지 받았다. 그러나 나는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현대주교님의 특별한 후의로 학교가 정상궤도에 올라가게 되었다.⁶⁾

이처럼 제주교회는 해방 후 제주본당과 서귀포본당이 부활하고, 신성여학교가 다시 문을 여는 등 차츰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1947년 3월 1일 3·1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무장봉기가 발발하는 등 건잡을 수 없는 소요사태와 무력충돌이 빚어졌고 교회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3·1사건과 4·3봉기, 초기 무력충돌 사태 등 4·3사건 초기 제주의 사회적 상황을 직접 겪었던 사제는 제주본당의 스위니 신부와 도슨 신부였다. 이들은 1948년 4월 28일 제주를 방문한 『뉴욕헤럴드트리뷴』 특파원 레이몬드(Allen Raymond)와 『타임』(Time)과 『라이프』(Life)지의 사진기자 마이던스(Carl Mydans)를 만난 자리에서 4·3 발발 초기 제주도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2명의 신부(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출신의 Austin Sweeney 신부와 에이레 도네갈 출신의 Patrik Dawson 신부)들은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신부들이다. 그들은 태평양전쟁 시기 본토에서 일제에 의한 투옥생활을 제외하면 각각 12년, 14년 동안 제주도에 살고 있다. “모든 이런 소요는 소련의 방식과 맞는다. 그러나 경찰은 좌익을 만들어내고 있다.” 스위니 신부는 오늘 제주도를 방문 중인 미국 특파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이들 경찰관들 가운데 한 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 당신은 자연적으로 반란군이 될 것이다. 누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스위니 신부는 제주도의 공산주의자들은 극소수라고 말했다. 극소수 -이들은 또한 [일제강점기] 지하에서 일본인들에 맞서 투쟁했다- 는 산간지대에 반란군들과 함께 있다고 그는 말했다. 이들 신부는 본

6) 『제남신문』 1973년 10월 1일자, 「내가 걸어온 길」.

토에서 들어온 경찰청장을 포함한 제주도의 경찰력이 "일제 경찰에 비해 더 나쁘다."고 말했다. 신부들은 또한 미국 당국이 현지 경찰에 심문을 위해 경찰 유치장에 있는 수감자 폭행을 중지하도록 자문했지만 방문 중인 미군 장교들이 등을 돌리기만 하면 폭행은 보편적인 방식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제주의 천주교 신부들은 4·3 발발 초기 소요사태의 성격을 소련 방식인 좌익의 무력투쟁으로 규정하면서도 그러한 무장봉기가 일어난 주요 원인을 경찰의 테러와 탄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신부들이 미군 책임자에게 경찰의 테러와 고문을 중지하도록 요청했지만 미군정 측은 강력하게 제지하지 않았고, 미군 장교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두지 않으면 끊임없이 경찰의 탄압은 계속된다고 보았다.⁷⁾

당시 『에이피』(AP)와 『유피』(UP)가 대부분 서울에서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기사를 작성했던 데 견주어 제주도 현지를 찾은 이들 두 명의 특파원은 4·3 초기 제주도를 방문한 몇 안 되는 외신기자들이었다. 레이몬드는 '경찰의 야만성이 제주도 내전의 원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아름다운 제주도에 휘몰아치고 있는 내전의 주요 원인은 경찰의 야만성에 있다"고 진단했다.⁸⁾

제주본당 두 신부의 입장은 그들 스스로의 인식이었겠지만, 교회 신도들의 눈과 입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했다. 제주 천주교회 측은 4·3사태의 발발을 불행한 상황으로 판단하여 평화로운 해결을 바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태 인식은 당시 제주 주둔 국방경비대 제9연대장 김익렬의 인식과 같은 것이었다. 1948년 4월 말 한라산 인민유격대 사령관 김달삼과의 평화협상을 시도했던 김익렬 연대장의 회고록에는 천주교회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어 눈길을 끈다.

(제주도 주둔 미군 제59군정중대장) 맨스필드 대령은 귀순공작의 요점으로 민간인을 매개체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일러 주었다. 민간인은 제주도의 사정에 밝을 뿐만 아니라 도민의 감정을 판단하는 데 확실한 근거가 된다고 했다. 단, 도민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야지 원성을 사는 자를 기용하면 도민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는 제주도 유지들의 명단을 내놓았다. 나는 끈질긴 설득 끝에 결국 십 수 명의 협력자를 구할 수 있었다. 나의 비밀참모 역할을 하게 된 인물들은 제주신보 사장을 중심으로 한 박경훈 씨 형제, 좌달육·김대용 씨, 그리고 읍내 천주교 신부와 몇몇 신자였다. 도내 민정의 말단에 관한 정보는 천주교 신자들의 공이 컸다.⁹⁾

4·3사건의 해결 및 민정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미군정청의 군 장교들은 제주 현지의 신부들과 자주 면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미군정청에서 제주에 보낸 파견대장 에드워드 콜린(Edward J. Colin) 중위가 20연대장에게 보낸 아래 보고서를 보면, 1948년 7월 파견대 소속 미군 3명이 성당을 방문하여 두 명의 신부와 당시 대내외 상황에 대한 장시간의 대화를 나누었음을 알 수 있다.

7) New York Herald Tribune, 30 April 1948, Series A1838, Item 506/1,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8) 위와 같음.

9)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2, 1994, 310~311쪽.

1948년 7월 25일(일요일) 오전 9시 파견대(Task Force)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3명이 카톨릭 선교 건물을 방문. 스위니(Sweeny), 도슨(Dawson) 두 명의 신부와 전쟁 중 일본인들의 규칙, 한국의 현재 상황 등에 관하여 장시간 대화를 나눔. 그들은 모두 미국인들이 떠난다면 그 날로 내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였다.¹⁰⁾

이러한 제주교회 두 신부의 한반도 내전에 대한 예견은 골롬반 선교회 소속 신부들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광주교회 소속 헨리 신부 또한 아일랜드 골롬반 선교회 마리난 총장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자주 한반도 내전 가능성을 언급했다.

도슨 신부가 이 나라에 있습니다만, 그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스틴 스위니 신부에 대해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그가 집에 갈 수 있는 승인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다음 6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시 떠나야만 합니다. 그의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만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슨 신부는 오는 대로 곧 제주도에 갈 것이고, 오스틴은 자유롭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소 떠나기를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맥폴린 신부를 대신하여 공식적으로 그에게 명령을 내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오스틴 스위니)에게 가도 좋다는 허락뿐만 아니라 안식년을 취해도 좋다는 명령을 내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략) 이 나라에 곧 남북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만일 공산주의자가 통치하게 된다면, 모든 일들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미국이 한국군을 훈련시키고 군대의 장비를 갖추게 한다면 그들이 승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¹¹⁾

오스틴 스위니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미국까지의 3개월의 여행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홍콩 또는 싱가포르까지는 비행기로 보내주고 거기에서 보트를 타고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중략) 우리는 3년 이내에 전쟁이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선거 뒤에 미군은 한국에 주둔할 것으로 보이니,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3년 동안 선택적인 봉사법을 미국이 통과시켰을 때 그것은 거래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러한 법은 한정된 기간에 적용하려고 통과되기 마련입니다. 이 때문에 전쟁은 그 한정적인 기간에 발발하기 마련입니다. 그 혼란스러움을 완전히 청소해 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¹²⁾

이러한 헨리 신부의 계속된 한반도 내전 예견은 1948년 5월 직접 제주도를 방문한 뒤 4·3사태의 현장을 직접 목격한 뒤에 더욱 확고해졌다.

미군은 한국에서 철수할 준비가 거의 되었습니다. 저는 동양으로 오기 위한 모든 미국인들의 여권이 취소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중략)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 저는 1년 안에 한국이 공산화된다는 것에 돈을 걸겠습니다. 한국이 공산주의

10) 주한 미육군 군정청 제주도 제59군정중대 및 분견대 제주도 파견대(Cheju-Do Task Force) 주간일지 (1948년 7월)

11) 헨리 신부가 마리난 총장에게 보낸 편지(1947. 11. 29).

12) 헨리 신부가 마리난 총장에게 보낸 편지(1948. 3. 30).

국가가 되는 것을 막으려면 엄청난 유혈의 참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방금 전에 에디와 함께 제주도에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교전 지역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데에 크게 괴로운 일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을은 황폐화되고 불탔으며, 그 중 일부는 낮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길은 차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군대가 우리에게 빌려준 다목적 지프차를 이용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¹³⁾

라이언 신부가 다리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리면, 그를 미국에 보내기 위한 당신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미 네 명의 새로운 신부를 위한 입국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도슨 신부의 말에 따르면, 제주도의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커피나 설탕, 우유를 사지는 못했지만, 1,200달러어치 식품을 구입했습니다.¹⁴⁾

골롬반 선교회 신부들은 제주도의 4·3사태를 다가올 남북전쟁을 예고하는 사건으로 인식했으며, 결국 2년 뒤 6·25전쟁이 발발함으로써 4·3사건은 한국전쟁의 축소(縮圖)가 되어버렸다. 헨리 신부의 제주도 및 한반도 상황을 보고받은 아일랜드 골롬반 선교회 본부의 인식 또한 마찬가지였다.

라이언 신부의 병환 소식을 들으니 유감입니다. 그가 하루 빨리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만일 병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그를 미국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중략) 우리 모두는 미군이 한국에 남기를 희망합니다. 미국 정부는 만일 미국이 한국을 방치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공산당의 온상인 것 같습니다. 도슨 신부가 붕괴의 경우를 대비해서 자신을 잘 돌봤으면 좋겠습니다.¹⁵⁾

3. 교회의 피해상황

4·3사건으로 인한 교회의 피해는 불교·개신교 등 다른 종파에 비해서 그다지 심하지는 않았다. 1949년 2월 15일 제주본당 오스틴 스위니(Austin Sweeney) 신부가 서울교구 조오지 캐롤(George Carroll) 신부에게 보낸 서한에는

만약 여기가 문명화된 나라라면, 광범위하게 “제주도 주민을 돕는” 계획을 당장 실시할 것입니다. 여기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망자 명단은 현재 최고 1만 5,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불에 타 무너진 가옥의 수가 1만을 넘습니다. 한 마을에서 가옥 721채가 습격자들에 의해 소실되었고 주민들은 짐승같이 살고 있으며, 평균 하루에 고구마 한 개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안의 읍과 면(산간지역에는 남아 있는 마을이 없습니다) 둘레에는 군인, 경찰, 청년단체가 만든 담이 쌓여져

13) 헨리 신부가 마리난 총장에게 보낸 편지(1948. 5. 21).

14) 헨리 신부가 마리난 총장에게 보낸 편지(1948. 8. 1).

15) 마리난 총장이 헨리 신부에게 보낸 편지(1948. 9. 3).

있어 현재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러나 주변을 여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군인 조차도, 거리를 잘 유지한 최소 5대의 차량으로 적절하게 호송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면, 전멸됩니다. 지난 두 달 동안, 그들은 약 130명이 사망하였고 1백 명이 넘게 부상을 입었는데, 거의 모두 도로매복에 의하여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총 약 200정을 습격자들에게 잃었습니다. 습격자들은 또한 기관총 3정도 노획했습니다. 여성 중 한 명이 총탄 7발, 즉 M-1 3발과 카빈 4발을 맞고, 소년 중 한 명이 가슴에 총탄을 맞고 □□에 M-2 총탄을 맞았지만, 지금까지 카톨릭 신자는 두 명만 사망하였습니다. 둘 다 회복되고 있으며, 수월히 어려움을 뚫고 나갔습니다. 그녀를 찾아내기 전에 세 번 이상 □□했으므로 미국인 고문은 그녀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 여성들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고 있지만 잘 견디도록 길러졌습니다. 그녀는 보기에 몸무게도 줄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만약 당신이 카톨릭 사상자를 위하여 한 두 개의 “혈액□□”을 흘릴 수 있다면, 나는 매우 감사할 것입니다.

즉, 1948년 겨울 군·경의 강경진압작전 실시와 무장대의 반격으로 인해 사망자가 1만 5천 명이라고 언급하면서, 천주교 신도 2명이 한라산 무장대의 습격으로 사망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1951년 2월 말에 한라산 잔여 무장대의 습격으로 군경 가족과 더불어 신도들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희생된 2~3명의 신도들 시신은 제주성당 제의실에 안치되었으며, 1951년 3·1절에 공동 추모미사가 집전되었고, 임시 제주도청 청사에서 다시 추도식이 거행되었다.¹⁶⁾

4·3사건 당시 제주도 천주교회는 2개의 본당과 2개의 공소 모두 읍내 중심지 또는 해안마을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무장대의 공격을 받거나 거꾸로 무장대와 연결되어 군·경의 지목을 받는 사례가 별로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외국인 신부들이 미국 군인들과 교류하였기 때문에 천주교회는 한국 군·경의 보호를 받는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천주교회는 오히려 군·경에 협조하여 선무작전에 나서거나 교회의 지도급 신도들 가운데에는 직접 우익청년단체에 가입하여 한라산 토벌활동에 주역이 되는 사례도 있었다. 서귀포성당의 신도 강성건(아타나시오)은 1947년 3월 30일 서귀포 천주교회에서 열린 남제주군 독청(獨靑) 결성대회에서 위원장에 선출되어 정치활동을 전개하여 제헌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으며, 4·3사건 때에는 대동청년단 활동을 하며 경찰로 특채되어 ‘폭도’ 토벌작전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¹⁷⁾

한편 해방 후 결성된 제주읍 부녀회의 회장을 맡았던 제주본당의 최정숙은 4·3 당시 재산 무장대를 물적으로 협조한 혐의를 받아 처형 직전까지 내몰리기도 하였다. 최정숙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48년 4·3폭동사건이 일어나자 우리가 만든 부녀회의 거취가 큰 문제였다. 우리는

16) 박도원, 『노기남 대주교』, 한국교회사연구소, 1985, 331쪽.

17) 『제주신보』 1947년 4월 4일자 ; 『제남신문』 1947년 3월 14일자, 「내가 걸어온 길」.

간부들이 모두 모여서 부녀회를 해체하기로 결의했다. 왜냐하면 부녀동맹이라는 좌익 단체가 결성되어 오해를 받을 염려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해체해 버린 것이다. 그런데 부녀동맹에 가담한 사람들은 우리의 부녀회 해체를 무시하고 부녀회가 곧 부녀동맹인 것처럼 선전하고 다녔기 때문에 나는 軍紀隊에 붙들려갔다. 부녀회의 해체일자와 소위 동맹과는 무관함을 설명했으나 독지골 박영효씨 집을 우리가 썼는데 여기에 우리가 손보지 않은 틈에 인근 주민들이 막걸리를 담아 감추었고 내가 약품을 보관해 둔 것이 크게 오해로 번졌다.

내가 폭도들에게 약품을 공급하고 술을 대주기 위해서 독지골 집에 감춰뒀다는 것이다. 나는 공산당으로 몰려 직결처분을 당하게 되었다. 군인들에게 나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개죽음을 각오한 나는 오직 마음을 정리하고 천주님께 조용히 기도를 드리면 기다렸다. 그때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소대장이 천주교 신자가 공산당에 가담할 리가 없다고 재조사를 하도록 하였고 당시 송요찬 사령관을 만나 오해를 풀고 살아나온 기막힌 일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송 사령관은 곧 나에게 여성계몽에 힘써달라고 부탁하면서 고인이 된 박경훈 지사와 선무강연을 나서게 되었다. 나는 주로 부녀회와 부녀동맹은 무관하다는 설명과 반공강연회로 도 일주를 약 2주간 했다. 이 강연에서 돌아와 보니 부녀회 간부들은 모두 검거되어 천막에서 고생하며 군사재판을 받아 무혐의로 풀려나왔지만 이들의 고생은 나보다 심했다. 이때에 이조말엽의 친일정치가이며 1884년 갑신정변에 사대당에 몰려 제주도에 왔다가 한일합방 후 내무대신까지 지낸 박영효씨에게 우리 집안이 물려받은 독지골 집 8채가 모두 불태워져 버렸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내가 군인들에게 붙들려가니까 소위 빨갱이의 소굴이라고 오해, 주민들이 불을 질러버렸다는 것. 이로 인해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림 서화 가구 등 값진 물건들이 모두 불타버리는 서러움을 당해야 했다.¹⁸⁾

해방 직후 결성된 제주읍 부녀회는 1947년 1월 25일 제주도 부녀동맹이 결성되자 곧바로 2월 21일 제주읍 부녀동맹으로 개편되었다. 이때 최정숙은 부녀동맹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부녀회 시절의 많은 동료들은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가운데 1948년 11월경 헌병대의 조사를 받고 제주농업학교 수감되었다가 총살당한 경우도 있었다. 최정숙 또한 부녀동맹 가입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농업학교로 수감되기 직전 제주본당 신부에게 자신의 처한 상황을 알려서 석방되었다는 증언도 있다.¹⁹⁾

4. 교회의 선무·구호활동

1) 선무작전의 참여

1948년 10월 17일 송요찬 제9연대장의 포고문 발표, 11월 17일 계엄령 선포를

18) 『제남신문』 1973년 10월 4일자, 「내가 걸어온 길」.

19)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4, 1997, 224~226쪽.

계기로 제주도 전역에 강력한 초토화의 진압작전이 전개되었다. 이때로부터 1949년 2월에 이르기까지 1만 5천명 가까운 희생자가 속출하였다고 미군정 보고서와 제주 교회 선교사들의 편지에는 기록되어 있다. 이 시기에 중산간 마을의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살상이 가해졌고, 제주읍내의 유지급 인사들에 대한 좌익 가담 및 협조 혐의로 체포·수감·고문·총살이 수시로 행해졌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주본당 최정숙도 이 시기에 헌병대에 끌려가 취조를 받고 사선을 넘나들었던 것이다. 앞의 회고록에서 보듯이, 최정숙은 헌병대에서 석방된 뒤 송요찬 연대장을 만난 자리에서 선무활동의 제안을 받았다. 그리고 박경훈 전 제주도지사와 2주 동안 제주도 일주를 하며 선무 강연에 나서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의 선무강연은 자신들의 좌익가담 혐의를 부정함으로써 주민들에게도 한라산 무장대와의 관계를 끊게 하려는 토벌대 작전의 일환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3사태에 대한 본격적인 선무작전은 1949년 3월 2일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가 출범하면서 시작되었다. 3월 10일 제주도 시찰에 나선 이범석 총리의 '선무공작' 발언과 유재흥 사령관의 전황 인식에 따른 결과였다. 이를 위해 민간인을 중심으로 한 '선무(宣撫) 공작대'를 발족시켰다.

선무 공작대의 출범은 제2연대장 함병선이 신성여자중학원 교감인 홍완표에게 민간단체 조직을 위임하면서 비롯되었다. 당시 2연대에 배속되어 통역관으로 근무하던 홍승표 선생은, 제2연대장이 선무 공작대를 책임질 담당자를 추천해 주도록 하자 홍완표 교감을 추천하였다고 한다. 홍완표 교감은 같은 학교의 교사인 이기형·고창호·김종철 등을 집으로 초대하여 선무대 일원으로 나서게끔 설득하였다.²⁰⁾ 홍완표는 선무대의 교화부장을 맡아서 선무 활동을 돕는 화극(畵劇) '바른길' 등을 만들었고, 고영일은 기획차장 겸 작전 보도요원으로 활동하였다. 이기형과 김종철은 선무공작 때 사용하는 노래를 여러 편 작사·작곡하였다.

선무대 활동은 신성 여자 중학원 교사뿐만 아니라 제주여자중학교의 교사들도 적극 참여하였고, 제주문인협회 회원들도 자진하여 가담하였으며, 여기에 민간 대원들을 호위하는 김동근 소위의 경비대가 포함됨으로써 120명의 선무 공작대가 조직되었다. 이후 대원들은 각 마을을 순회하면서 강연과 노래·연극·의료 활동 등을 통한 선무 활동으로 큰 효과를 얻었으며, 그 결과 중산간 지대를 해매던 많은 주민들이 하산하게 되었다. 당시 한라산 속으로 들어갔던 노형 마을의 현임장은 북교 6학년 담임이던 선무대원 김종철을 만나서 하산한 경험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1949년 봄, 선무공작대가 창설되어 입산한 주민들을 설득하기 시작해 귀순자가 늘어났고, 군경 당국에서도 더 이상 귀순자를 처벌하지 않게 되자 4·3의 악순환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되었다. 나도 이때 한라산에서 붙잡혀 와 제주 주정공장 창고 수용소 생활을 하다가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이때 군인에게 붙잡혀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길목에 나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나를 구원으로 이끈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

20) 강용삼·이경수 편저, 『대하실록 제주백년』, 1984, 695쪽.

게 된다. 한라산 주둔 군인들을 위문 공연하러 올라가던 선무공작대원들과 애월읍 중산간 지대 원 근처에서 서로 마주친 것이다. 마침 선무공작대원 속에 끼어 있던 나의 초등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김종철)이 나를 먼저 발견하신 것이다. 나를 끌어안고 선생님께서는 눈물을 보이시며 “급장인 네가 행방불명되어 그간 걱정하고 있었다. 그저 한라산 속으로 갔으리라 짐작만 하고 있었다. 이제 나를 만났으니 아무 걱정 말고 수용소로 가 있거라. 내가 책임지고 너를 구해 주겠다.”하고 안심시켜 주셨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공포에 떨고 있던 나도 비로소 선생님을 만나 위안을 삼았고 이젠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는 확신을 얻었다.²¹⁾

2) ‘유지사건’의 중재

6·25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50년 8월 제주도에서 이른바 ‘유지사건’이 일어났다. 1950년 8월 초순 제주 지역의 법원장, 검사장, 제주읍장 및 변호사, 사업가, 교육자 등 유지급 인사 16명이 ‘인민군 환영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는 혐의로 제주계엄사령부(사령관 : 신현준 대령)에 연행된 충격적인 사건을 말한다.²²⁾

이들 제주 지역 유지들은 8월 8일과 9일에 걸쳐 계엄사령부에 의해 갑자기 체포·구금되었다. 약 열흘 정도 정보과 소속 장교 및 하사관들에게 고문과 총살 위협을 받았는데, 8월 14일에는 피의자 장용문이 심한 고문을 받다가 사망하였다.

당시 김충희 제주도지사는 이 사건이 특정인을 구속하기 위한 모함으로 보고, 이성주 경찰국장과 협의하여 진상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조병옥 내무부장관과 신성모 국방부장관에게 보냈다. 또 공병순 제주특무대장도 이 사건이 사실과는 다르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현지 조사를 위해 급파된 선우종원 치안국 수사지도과장은 이 사건이 계엄사령부 정보과장 신인철 대위의 음해·조작 사건임을 밝혀냈다. ‘인민군 환영 준비위원회’는 전혀 실재하지 않은 조직으로서 불순분자의 중상모략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이윤희 외 14명은 9월 3일 오후 6시에 석방되었다. 그러나 피의자 대부분은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김재천 제주지방법원장은 고문 후유증으로 정신착란을 일으켜 일찍 사망하였다.

제주도 유지사건으로 제주 사회는 극도로 위축되었다. 도민들은 현직 법원장·검사가 계엄군에 검속되어 죽을 위기에 처하는 사태를 직접 체험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은 8월 20일 예비검속자 집단 총살과 함께 진행되었기 때문에 8월 한 달 동안 제주도민들은 전율과 공포로 숨죽여 지내야 했다.

그런데 이 ‘유지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제주 천주교회가 숨은 역할을 했다는 증언이 있어서 주목된다. 당시 제주도청 공무원이던 하두용은 ‘유지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억하였다.

21) 현임중, 『속(續) 보고 듣고 느낀 대로』, 대동출판사, 2013, 75~76쪽.

22)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436~438쪽.

‘인민군환영위원회’를 조직했다는 유지들로는 당시 총무국장, 법원장, 검사장 원검사장, 제주읍장 김차봉, 농고 선생 최광(남)식, 변호사 최원순(최광식 아버지), 백형석, 전인홍, 도청 과장 김대홍, 이윤희(이승택 지사 아버지), 김영희 등이 거론되어 모두 검거되었다. 이들은 제주 주정공장 창고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다. 그런데, 최정숙씨가 아버지와 오빠가 모두 잡혀가 죽게 되자, 성당 신부님께 사정을 했다. 최정숙씨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다. 사정 얘기를 들은 신부님이 서울 중앙본부에 제주도 유지사건을 알려 사건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 완전히 개인감정으로 인한 조작임이 밝혀졌다. 어떤 개인감정인지는 모르겠다. 조작극임이 밝혀지자, 검거되었던 제주 유지들은 모두 석방되었다.²³⁾

최정숙의 아버지(최원순 변호사)와 오빠(최남식 제주농업학교 교장)가 체포되자 제주본당 도슨 신부에게 구명 부탁을 했다는 것이다. 현지 조사 책임자인 치안국 선우종원 수사지도과장 또한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서, 조병옥 내무장관의 특명으로 제주에 파견되었다. 선우종원은 제주에 도착하자마자 제주본당의 도슨 신부와 신성학교 교감 홍완표를 방문하여 두 사람으로부터 “군 정보과의 횡포에 검찰과 경찰 등이 반발하자 정보과장인 신인철 대위가 이들을 무장대의 활동과 확대 연관시켰다.”는 정보를 확인하였다. 특히 미8군 군종신부를 겸하면서 미국에 있는 ‘전국가톨릭복지협의회’(National Catholic Welfare Conference ; NCWC)의 원조를 받아 제주의 피난민 구제에 앞장섰던 라이언 신부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과 관계 요로에까지 진정하였다.²⁴⁾

3) 이재민 구호활동

1948년 겨울과 1949년 초까지 집중적인 토벌대의 강경진압작전 결과, 중산간 마을 주민 상당수가 죽음을 피해 한라산 속으로 피신해 들어갔고, 마을 대부분은 불타버려 주민들은 생계를 유지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앞에서 인용한 스위니 신부의 편지에는

만약 여기가 문명화된 나라라면, 광범위하게 “제주도 주민을 돕는” 계획을 당장 실시할 것입니다. 여기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망자 명단은 현재 최고 1만 5,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불에 타 무너진 가옥의 수가 1만을 넘습니다. 한 마을에서 가옥 721채가 습격자들에 의해 소실되었고 주민들은 짐승같이 살고 있으며, 평균 하루에 고구마 한 개를 먹고 있습니다.

라고 전할 정도로 당시 제주도의 상황은 너무도 비참했다. 산중에 숨어있는 주민들을 하산시켜 사태를 완전히 종결짓기 위해서는 주민 구호대책이 시급히 요구됐다. 이러한 제주의 비참한 상황을 전한 스위니 신부의 편지 내용은 미국의 『뉴욕타

23) 하두용(1927년생, 4·3 당시 공무원, 2001. 6. 28 채록).

24) 한용환·서상요 편저, 『복음의 증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2, 152쪽.

임즈』 1949년 3월 15일자에도 자세하게 보도되었다.

이러한 스위니 신부의 편지 내용에 따라 서울 주재 미국 메리놀 선교회의 조지 캐롤 신부는 1949년 4월에 구호품을 배분하러 제주도를 방문했다. 캐롤 신부는 제주도 현지에서 만난 미국 대사관 직원에게 “현재 새로운 정신이 제주도 주민들에게 퍼져있다. 올해 3월초까지 제주도에 만연했던 패배주의가 이제는 일반적인 낙관주의로 바뀌었다. 농민들이 밭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재건축이 눈에 띄고 있다. 또 중산간 지역의 옛 공산주의 동조자들의 움직임도 줄어들고 있다.”고 제주도 방문 소감을 밝혔다.²⁵⁾

캐롤 몬시뇰은 제주도 구호 방문을 끝낸 뒤 1949년 4월 28일자로 「제주도 방문기」를 작성하였다. 메리놀 선교회 서한록(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에 수록된 방문기 내용을 간추려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제주도 방문과 관련하여 구호 활동의 책임자로, 또 잡지의 기고자로 다녀오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한반도 남쪽 끝에서 대략 5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공산주의자에 의해 황폐화된 섬에 두 주를 머물고 막 돌아왔습니다. (중략) 해안가를 따라 아직 남은 마을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담에는 망루가 우뚝 솟아있고, 감시인들이 24시간 망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들의 입구는 총은 아니지만 투창(죽창)으로 무장한 남자와 소년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섬 전체를 돌아볼 기회를 가져 24군데 마을에 들렀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기회가 주어져 그들에게 미국 가톨릭 신자들이 미국 가톨릭구제회(NCWC) 산하의 가톨릭전쟁구제회(CRS)를 통해 구호물품을 그들에게 보내왔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주도에서 최근에 발생한 어려운 문제 때문에 유례없이 바빴습니다. 지난해 그곳에서는 정규전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사망한 사람만도 1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지난 15년간 제주도에서 사목활동을 해온 스위니 신부로부터 편지를 받았을 때 그 심각한 상황을 중단시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미국대사 무초와 한국에 나와 있는 미국 장교인 로버츠 장군에게 보여주었으며, 마침내 한국의 대통령 이승만 박사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그 편지는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입을 옷조차 부족한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수많은 일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남원이라는 곳에 갔는데, 저는 피난민들이 살고 있는 가족우리와도 같은 헛간을 방문하였습니다. 말을 꺼내려고 했지만 그만 말문을 잊지 못하였습니다. 그 대신에 눈물이 나와 저는 마치 어린아이와도 같이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오두막집을 보고나니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방문 여섯째 날에 폭동자에 의해 파괴된 수천 채의 집을 보았습니다.

섬(제주도)의 두 사제들은 아직 한국말을 잘하지 못하는데,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25) 주한미대사 무초(Muccio)가 미국 국무장관에게 보낸 항공우편(1949. 4. 22).

이 물품들이 가톨릭에서 온 것이라고 제가 말할까봐 두려워하여 어떤 물건도 하역하기를 거부하던 프로테스탄트 신자에게 달려갔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이 물건들을 목사에게 보내어 그가 받으니 구호물품이 제주도에 수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 목사는 지방 관리에게 구호물품의 9/10를 인도하였으며, 지방 관리는 이를 창고에 두었다가 한 달도 안 되어 모두 나누어 주었고 기부자가 누군지는 별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제가 사람들에게 미국 사람들이 이부자리 등등을 보낸 것이라고 말하였지만, 신부가 매번 짐 실은 트럭과 함께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톨릭교회가 이런 물건을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생각이 교회에 해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교회가 이 섬에서 어마어마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이고, 아일랜드 선교사들이 이익을 취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통상 6·25전쟁 직후부터 미국의 민간 구호단체들이 한국에 대한 원조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캐롤 몬시놀의 제주도 방문을 통해서 4·3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949년부터 미국의 민간 구호단체인 '전국가톨릭복지협의회'(NCWC) 안의 신설 위원회인 '가톨릭구제위원회'(Catholic Relief Service ; CRS)²⁶⁾가 한국에 대한 원조를 시작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6·25전쟁 발발 직후부터 미국의 민간 구호단체들은 한국에 대한 원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특히 전쟁 첫 해에만 280만 달러의 구호금을 모아 한국으로 보내왔는데, 그중 200만 달러 이상은 '가톨릭구제위원회'(CRS)에서 모아 보낸 것이었다. 이 구제위원회에서는 1951년에도 많은 구호품을 보내왔다. 이후 전국가톨릭복지협의회의 전재 구제부장 스완트롬 몬시놀은 1952년 9월 24일에서 30일까지 약 1주일 동안 부산·대구·서울의 전재 상황을 직접 시찰한 뒤 이에 대한 실정을 미국 각계에 호소함으로써 막대한 구호물자를 모아 한국에 보낼 수 있었다.²⁷⁾ 당시 복지협의회의 한국 지부장은 1949년 제주를 방문했던 캐롤 몬시놀이었고, 제주도는 부산 사무소의 지원을 받았는데, 한국 지부에서는 구호 활동을 위해 기독교세계봉사회(CCWS)와 협력하기도 하였다.²⁸⁾ 캐롤 신부는 가톨릭복지협의회의 한국 지부장으로서는 2만 달러가량의 음식·의복, 그리고 5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 등을 원조하였다. 이 원조 물품은 한국 정부와의 협력 속에서 북한에서 온 전쟁 피난민, 어린이 기관(고아원), 1948년 극심한 홍수의 피해자, 1949년 제주도의 폭력배로 인해 집을 잃고 떠난 사람들 등에게 공급되었다.²⁹⁾

26) '전국가톨릭복지협의회'는 1917년 미국 천주교회가 교육사업과 사회사업, 이민 사업을 전개하고자 설립한 단체로, 처음에는 '미국 가톨릭전쟁평의회'라 불리었다. 1919년 공식 단체로 승인 받았으며, 1922년에 '전국가톨릭복지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협의회에서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두는데, '가톨릭구제위원회'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3년 전쟁 포로와 난민 및 빈민들을 돕기 위해 조직되었다. 우리나라에 구제위원회가 들어온 것은 1946년이었고, 1952년에는 외원법(外援法)에 의거하여 외국 원조단체로 보사부에 등록되었다(인천교구사 편찬 위원회 편, 『인천교구사』, 한국교회사연구소, 174~175쪽).

27) 『가톨릭신보』 132호, 1953년 9월 10일. 『가톨릭신보』는 『가톨릭신문』의 전신으로, 1953년 3월 7일(제122호)부터 1954년 1월 15일(137호)까지 사용된 제호임.

28) 『가톨릭신보』 206호, 1959년 11월 8일.

29) 메리놀 선교회 보고서(1952. 9. 3).

이러한 교회의 4·3사건 또는 6·25전쟁 이재민 구제 활동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 아래 이루어졌고, 일면 신자수의 증가에도 한몫을 하였다. 한편 제주지역 교회는 피난 성직자들의 활동으로 신자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지역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5. 맺음말

4·3 당시 제주 천주교회는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총돌과 폭력, 주민 희생의 위험지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교회의 골롬반 선교회 신부들은 일제치하에서는 태평양전쟁 때 옥고를 치렀지만, 4·3 때에는 미국 군인들과의 대화와 만남을 통해 민심과 민정을 전달하고 국내외 정세를 판단했으며 교회 신도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도 하였다. 골롬반회 신부들은 한결같이 제주도 사태를 남북한 전쟁의 예고 사건 또는 축도로 인식하였고, 미군의 진주와 보호 없이는 제주도와 남한이 공산화될 것으로 우려하였다. 그들은 자연히 미군정 당국과 같이 4·3사건을 공산분자들의 폭력적인 사태로 파악했으며, 1만 5천명의 주민 희생의 원인도 한라산 무장대의 습격에 의한 것으로만 인식하였다. 교회는 신도들의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았기에 교회 밖의 일반 주민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막아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4·3의 사태 국면을 처음부터 유심히 관찰해 온 제주본당의 스위니 신부는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을 경찰의 폭력과 테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고 미군정 당국이 경찰의 폭행을 중지시킬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미국 메리놀 선교회의 캐롤 몬시뇰은 스위니 신부로부터 편지를 받고 미국대사 무초, 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장군,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 이승만을 직접 만나서 수많은 사람의 희생을 중단시킴으로써 제주도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교회 신도들의 선무공작대 참여, 활발한 구호활동 또한 4·3사태를 평화롭게 해결하려는 일관된 입장이었다. 교회가 김익렬 9연대장이 나선 평화협상의 막후에서 협조하는 주요 역할을 담당한 일이나, '유지사건' 당시 수많은 제주의 지도급 인사들의 개죽음을 막아낸 것 모두 평화적 사태 해결의 원칙을 실천한 것이었다.

앞으로 제주교회 신도들의 피해 실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과 선교사들의 서한자료 검색, 교회의 주요 인사에 대한 인터뷰 작업 등을 통해서 좀 더 소상하게 진실을 밝히고 정리하는 것을 과제로 제시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발 제 Ⅱ

신학적 주제로서의 제주 4·3

발제II

신학적 주제로서의 제주 4·3

문창우 신부

광주가톨릭대학교 교수

I. 서론

2013년은 제주인 모두에게 결코 지울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남겨준 4·3이 발발한지 65주년을 맞는 해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직껏 그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왜곡·은폐되어 왔고 4·3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올바른 역사의 자리매김을 하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4·3의 진실은 믿음과 연결된 삶으로서 읽어내지 못한 게 사실이다.

교회는 세상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향하는 순례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기에 교회는 세상의 모든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피조물로서 신앙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는 세상의 모든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인간 역시 하느님의 피조물이며, 구원자이시며 해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인만이 아닌 세상의 모든 인간을 구원하고 해방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는 신학의 범위를 세상의 모든 학문으로 확장시키고, 모든 인간에 대한 관심을 신학³⁰⁾의 주제로 삼는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사목헌장을 통하여 “기쁨과 희망, 슬픔과 번뇌, 특히 현대의 가난한 사람과 고통에 신음하는 모든 사람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도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번뇌인 것이다.”(1항) 라고 말하고 있다. 즉 세상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교회의 부분인 한국교회, 제주교회 안에 살면서 우리 역사 안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4·3³¹⁾이다. 제주의 역사 뿐 아니라 한국 현대사 안에서, 그리고 세계사 안에서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래를 볼 수 없는 한정된 지역에서의 대량학살이 이 지역에서 일어났기에 그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갖는 - 하느님에 대한 관심을 갖는 -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이다.

30) 신학은 신과 관련된 인간을 다룬 학문으로 신학은 인간학이다. 따라서 인간은 무엇이며 인간 존재의 근거와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를 규명해 내는 작업뿐 아니라, 인간 삶의 비극성과 고통 등 인간과 관련된 일체의 사실과 사건을 해명하는 작업도 동시에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과 관련된 일체의 사실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실존 상황뿐 아니라 인간이 처한 사회적·역사적 상황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인간은 실존적 상황과 구체적인 사회적·역사적·지역적 상황에 존재하기에 그에 맞는 신학이 가능하다. 따라서 4·3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시킬 수 있다.

31) 황상익, 「4·3과 역사」 “의학사적 측면에서 본 ‘4·3’”, 제주 4·3연구소, 1998, p 45 참조. ‘4·3’이라는 명칭은 감정적인 것이다. 즉 실상과 성격에 걸맞은 이름을 갖게 되기까지의 한시적인 것이다. 더 중요하게는 진상 규명 등 지속적인 작업과 그 진실에 합당한 조치 등 사회적 합의를 촉구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점에서 가장 적극적인 ‘현재진행형’의 명칭이다.

여기서는 4·3에 대한 기억 안에서 신학적인 주제로써의 제주 4·3의 내용들을 살펴 보면서 나름대로의 신학적 전망³²⁾을 함께 제시해보고 싶다.

II. 본 론

20세기는 대량학살의 시기였다. 제2차 세계대전과 유대인 홀로코스트를 비롯해 전후 냉전시대에는 세계 곳곳에서 민족분쟁으로 인한 대량학살이 일어났다. 제주 4·3사건은 냉전 체제가 형성되는 시기이자 한국의 근대 국가 형성기에 일어난 대표적인 대량학살 사건이었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2003년에 펴낸 「제주 4·3사건 진상 보고서」는 '4·3사건이 미군정 시기에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사건의 배경은 극히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이 작용되어 있어서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³³⁾

다만 '1947년 3·1절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 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희생당한 인원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여전히 어려우나, 자료들에 따라서 최대 3만 명 이상 추정하고 있다. 현재 희생자로 신고 접수된 자는 1만 4천여 명에 이른다.³⁴⁾

이렇게 제주 4·3사건은 소수의 무장대들이 제주도 내 파출소와 우익 청년단을 공격하면서 발발하였다. 처음 정부의 반격은 그러한 공격을 조직한 무장대를 지목한 것이었으나, 같은 해 8월 남한에 새로운 한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반년도 지나지 않은 짧은 기간, 무장대와 그 동조자를 뿌리 뽑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은 초토화 작전에 의해 3만 여 명의 제주도 주민이 학살당하였다. 4·3의 양민학살은 1948년 11월 중순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의 군경에 의한 초토화 작전 시기에 중산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제주도 4·3사건은 남한에 단독정부가 수립되면서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어 강경하게

32) 문창우, 「제주 4·3 진상규명과 화해를 위한 종교인 대회」, “4·3의 역사와 신학적 모색”, 1998년 11월 30일(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 프란시스코)

33) 4·3이 일어난 후 국가에 의해 규정된 **공산주의 폭동 담론**은 4·3을 미군정시기 좌우익 집단들의 이념적 갈등의 산물로서 공산주의자들의 폭동내지는 반란으로 보는 입장이다. 4·3 당시 역사적 민중들 안에서 지녔던 입장이지만, 1987년 민주화의 분위기를 힘입어 이러한 입장의 태도를 분명히 한다. 1948년 5월10일 예정된 남북분단을 고정화하는 남한에서의 단독선거를 거부하는 민족독립운동이며 미군정과 반공국가 폭력에 대한 **제주민중의 저항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후 90년대 들어 국가폭력에 대한 무고한 희생자들의 진상이 밝혀지면서 **양민학살 담론**의 입장을 본격적으로 주장한다. 이어서 계속적인 진상규명과 대선 공약 등으로 4·3특별법을 만들고 본격적인 4·3연구와 전국적인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오랜 기간의 무관심 그리고 보수적인 정권들의 등장으로 4·3진상에 대한 왜곡된 시비와 국가주도의 4·3추모의 분위기 안에서 여러 갈등과 포장된 이념들이 등장한다. **‘용서와 화해담론’**, **‘생명과 평화담론’**들이다. 이러한 담론을 둘러싼 논의는 추상적으로 그리고 왜곡된 현실로 감추는 모습이 이곳저곳에서 벌어지는 형국이다.(국가주도의 추모에 따른 역동성과 진실의 왜곡, 국방부와 경찰 그리고 보수단체의 4·3이적성시비, 교회사 교과서 검정 과정의 갈등)

34) 현혜경, 「제주 4·3사건 기념의례의 형성과 구조」, 전남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8, p 1-2.

진압되었다. 해안선에서 5km 지점부터 적성지역으로 선포되어 군경 토벌대의 초토화 작전에 수행되는 동안, 중산간 지역의 130개 마을이 불태워지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대부분의 주민이 '빨갱이' 혹은 '폭도가족'이란 혐의를 받고 무차별 대량학살을 당한 사건이다.³⁵⁾

1. 4·3의 기억³⁶⁾

4·3을 기억하고자 하는 무엇인가? 4·3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듯이 선불리 신학적으로 조명하는 것은 자칫 억지로 바칠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4·3은 오늘 부족한 제가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라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마치 그 일에 가담이라도 한 듯 신학적으로 4·3을 조명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 스스로 용납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다.³⁷⁾

우리가 4·3을 기념하는 것은 4·3을 돌에 새겨 기념비적으로 찬양하게 위해서가 아니다. 주년을 따지며 기념행사로 반짝 기억하는 것은 어쩌면 4·3을 잊어간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4·3이후 지난세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왔는가? 그때 그 사건의 양상을 달리하여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때 저항하며 물리치고 극복하려 했던 대상이 어쩌면 그대보다 더 잔인한 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4·3이 지금까지 우리의 의식과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오늘 이 행사가 미래의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다.³⁸⁾

주변에서 우리는 때때로 젊은이들에게서 '4·3은 그것은 지나간 일이고. 그게 지금의 자신들과 무슨 상관이나? 식의 반응을 듣는 경우들이 있다. 단지 4·3을 체험하지 않은 젊은이들만이 아니다. 그 일을 체험한 어른들의 반응도 사실은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65년 지났는데 그냥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에서 지워버리려 한다. 우리가 4·3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는 것은 모든 것을 정치 경제논리로 흐려놓은 우리의 수준 낮은 정치사회분위기 탓도 있지만, 4·3을 기억 속 과거의 한 조각으로 여기는 우리의 의식수준도 문제이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미사를 매일 드리면서도 미사를 식상해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

35) '제주 4·3 특별법'(2000년)에 따라 발족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활동을 종합 정리한 백서가 2008년 12월 10일 나왔다. '화해와 상생'이란 이름으로 발간된 백서는 금기시됐던 4·3에 대한 기억을 '진상보고서'(2003년)를 통해 공식화하였으며, 4·3 학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으로 규정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이끌어냈다.

36) 박찬식, 「4·3과 역사」, 각, 20008; 권귀숙, 「기억과 정치」, 문학과 지성사, 2006; 유철인의 6명, 「한국문화 인류학」 제 34집, "제주 4·3의 경험과 마을공동체의 변화", 한국문화인류학회편, 2001 참조.

37) 이제민, 「신학전망」 제169호, "5·18을 기억한다", 광주가톨릭대학교, 2010, p 4 참조

38) 이제민, 같은 책, p 6 참조

니기 때문이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정도를 넘어 그 사건이 항상 현재 진행형의 일임을 상기시키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원천과 미래를 찾고자 해서일 것이다. 4·3을 기억하는 일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상기하는 차원을 넘어 미래를 위한 일이다.

4·3이 역사의 기념물로 돌에 새겨진 기념일로만 기억될 때 우리의 미래는 차단된다. 이는 곧 4·3에 있었던 폭력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기억을 피하는 것은 폭력으로서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를 다시 되돌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물어야 한다.³⁹⁾

2. 희년⁴⁰⁾을 희망함 - 4·3의 회복⁴¹⁾

교회는 2000년을 대희년으로 선포하였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작은 고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하느님의 구체적인 역사 속으로 충만하게 계시되신 분이다. 그리하여 인간 역사 끝날 때까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의미를 가져다 주셨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체험(충만함) 때문에 그 사람의 일생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렇다면 4·3 안에서 역사적으로 불행한 일들을 겪고 또 그러한 순간들로 가슴 속에 슬픔과 불행을 간직한 제주도민들에게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당신의 충만함(구원)을 오늘도 주시게 될까?

희년⁴²⁾이 되면 남에게 종살이하던 사람이 풀려나고 빛으로 팔았던 땅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그것은 온전한 삶을 회복시켜주는 해방이었다. 이렇게 구약의 희년 제도는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제도였던 것이다. 당시 땅은 삶의 터전이었고 땅을 빼앗기거나, 남의 종살이하는 것은 고통과 불행에 속하는 일이었다. 따라서 행복한 삶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 땅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고 종살이에서 풀려나게 하였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길은 바로 억울하고 불행한 사람들, 고통 받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그들을 온전한 삶으로 복귀시키는 일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땅의 소유권이나 남의 집 종살이 때문에 고통 받는 일은 상대적으로 적어졌다. 그

39) 이제민, 같은 책, p 7-8 참조

40) 희년은 본래 구약의 전통에서 시작되었다. 희년이라는 말은 ‘숫양’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요벨’에서 비롯되었다. 이 히브리어 요벨은 라틴어 ‘유빌레우스(jubilaeus)’로 발전되었고 영어 ‘जूबिल리(jubilee)’가 여기서 비롯되었다. 우리말의 희년(禧年)은 히브리어에서 직역한 것으로 복희(禧)자를 써서 기쁨의 해, 복된 해라는 뜻을 지닌다.

41) 문창우, 「야곱의 우물」 4월호, “희년과 4·3 50주년”, 1998, p 12-24 참조

42) 성서의 희년정신은 땅으로 설명된다.(레위기 25장) 일곱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일곱 해가 일곱이 되는 희년에는 본래의 주인에게 땅을 돌려줌으로서 창조 때와 같은 원래 상태로의 회복을 하라는 것이 이스라엘이 가졌던 희년법이다.

보다는 일제 식민지, 한국 전쟁, 남북 간의 이데올로기로 희생된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이 한반도 전체에 머무르게 드리워져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 희년의 의미는 땅보다 이념이 우선이다. 이념으로부터 해방이야 말로 대희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인 것이다.

진정 4·3으로 파괴되고 수난당한 마음의 상처를 서로 어루만지며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좋은 심성을 회복할 때, 진정한 희년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신앙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제주에는 가장 필요한 일인 것이다.

이제 '4·3' 65주년을 맞아 진정한 화해와 치유의 희년이기 위해 이 사건은 계속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기억은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역사를 준비할 결정체가 된 것이다.

참으로 '4·3' 65주년을 제주도민들에게 간직된 한 맺힌 상처의 덩어리를 걷어내는 참된 희년이어야 한다. 그래서 희년을 맞는 '4·3' 65주년을 오랜 세월 원통하단 말 한마디 못하고 가슴 졸이며 살아야 했던 크나큰 아픔의 땅에서, 하느님의 정의와 사랑의 강물이 넘쳐흐르는 충만함(구원)의 땅으로 가는 파스카(건너감)이다.

오늘날 희년 정신이 고통과 불행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시키는 것이라 할 때, '4·3'을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교의 구원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희년 정신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악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또한 그 악을 근본적으로 철폐시키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일에 발벗고 나서지 않는다면 아마우리는 앞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⁴³⁾

3. 4·3과 하느님 나라

역사적 사건에 접근할 때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다양한 연구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의미지평을 찾는 것은 역시 신앙인들에게 부여된 과제요 특권이다.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것은 역사성을 추상화시키기 쉬운 종교내적인 논의를 전개함이 아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 그것은 자신들이 신앙하는 종교의 초월적인 차원과 이 역사적 차원(내재적 차원)과의 만남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의 경우,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을 초월적이면서 동시에 내재적인 분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 이 역사에 일어난 사건을 해석할 때는 역사 속에 내재하시는 하느님을 설명할 다양한 해석틀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것은 하느님을 초월자로 이해해 온 오랜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뜻으로 본다는 말은 이 4·3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신학적

43) '저는 사실 여러해 전부터 제주도민 모두를 이곳 4·3 평화공원으로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함께 4·3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4·3을 60 여 년 전의 과거에 파묻어버리지 말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형제들이 겪었던 그 공포와 울분과 아픔의 상처를 오늘 현재로 이끌어 내고 그 상처를 조금씩이라도 아물어가도록 공동의 치유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이 치유의 여정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용서와 평화안에서 함께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강우일 주교강론, 교구 묵주기도의 밤, 2013년 10월 10일 4·3평화공원)

인 질문을 되짚어보면서 이에 대한 응답을 통해 인간이 역사와 하느님, 그리고 이 인류에 향해 갖고 있는 책임감을 보다 분명히 하는 일이다.

4·3당시 그곳에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뜻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지나쳐선 안 된다. 물론 죽은 이들 중에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 신학 입장에서 보면, 뜻이 들어있지 않은 그런 죽음은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은 공중의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느님의 뜻이 없이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살아가는 현실에서 모두가 의미가 있는 죽음인 것이다.

진정 제주도의 죽음의 자리에서 그들이 가졌던 갈망은 무엇이었을까?

성경의 표현을 보면, 그것은 하느님의 나라의 도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그들의 삶을 미화시키거나 그리스도교의 개념에 꿰어 맞추려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하느님의 나라의 모습처럼 4·3당시 민중들의 갈망이 그토록 구체화되었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 대신 그들의 지향성을 총체적으로 말하려는 것이다.

오늘날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 새롭게 재해석되었지만 정형화⁴⁴⁾ 되어버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 민중 속에 담겨져 있던 혹은 그들이 갈망하는 새로운 세계를 '하느님 나라'라는 구체적인 현실로 그려낸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가 민중들 속에 보았고 또 그들이 말한 하느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느님의 나라는 인간의 모든 사회적 삶을 포괄한 총체적 해방 즉 사랑과 평등, 그리고 평화가 삶의 지배하는 세계이다. 그것은 당시의 민중이 갈망하던 세계였다. 예수님은 그 새로운 질서를 내다보았고 그 질서에 맞는 삶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4·3당시 제주도민들에게 해방의 공간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계 그리고 통일국가에 대한 희망은 그들의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해방이후 혼란한 시기에 제주 민중들의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주민들이(수백 수십 년을 이어와 있었던 새로운 질서에 대한 희망이) 4·3의 전후맥락 안에서 이념적인 대결의 혼돈과 함께 성취되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붕괴되었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자신 속에 담긴 뜻을 체계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 뜻을 품은 채 죽어간 사람들의 그 자리에 서게 된다. 죽은 이들이 살아있을 때 자신들이 가졌던 그 뜻을 우리 스스로 요구받게 된다. 하느님의 뜻을 제대로 읽는 일이다. 이것이 4·3의 희생을 통해 다가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⁴⁵⁾

4. 4·3과 십자가

많은 사람들이 4·3당시 죽어간 민중들의 죽음을 위로하면서 그들의 죽음을 무고

44) 일정한 형식이나 틀로 고정됨.

45) 김진, 「제주 4·3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종교인 대회」, “뜻으로 보는 4·3항쟁”, 1998, p 8-11 참조

한 죽음, 억울한 죽음이라고 표현한다. 4·3당시 수많은 비무장된 부녀자들과 아이들, 노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어갔다. 그들은 폭도도 아니었고 '공산주의'의 공(共)자도 모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사회·정치적으로 보면 틀림없이 무고한 사람들이 대부분을 이룬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에는 역사의 우연성을 부각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사람들이 '재수가 없어 죽은 것'으로 그들의 죽음의 의미가 폄하되고 그들을 가해한 개인 혹은 집단들의 폭력성만 드러내는데 연구나 관심을 집중시킬 우려가 있다. 그것이 우리의 진상을 올바르게 규명하는 계기를 분명하게 줄 수 있지만 만약 그러한 측면에서 4·3을 저울질하게 된다면 그것이 지닌 역사적인 의미가 살아나기 힘들게 된다.

한편,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잘못으로 빚어낸 비극과 고통을 당할 때 하느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묻고 울부짖는다. 그들은 4·3당시 하느님도 숨어 버렸고 오직 살육의 귀신만이 떠돌았다고 말한다. 진정 그분은 당신 모습으로 창조한 인간들이 울부짖고 싸우고 죽이고 땅에 파묻는 폭력의 운동장에 있었다. 또 그분이 창조한 아름다운 동굴 속에서 질식해 죽어가고, 배고파 죽어가는 그분의 아들딸들을 보았으며 아름다운 폭포수가 사형장이 되어 버린 십자가의 그 현장에 있었다. 그러므로 그분이 보지 않는 죽음은 하나도 없었고 그분은 피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사람들을 죽인 이들은 아예 귀와 눈을 닫아 버렸다. 그들의 폭력은 그분의 존재부정이었다. 그분을 못 본체 하는 자들에게 민중은 고귀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의 짐승(빨갱이의 몸⁴⁶⁾)에 불과 했다. 그러니 그들은 이 세상에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폭력(살상과 성폭력 등)을 휘둘러도 죄책감 없이 지내도 되는 듯 광기의 행동⁴⁷⁾을 놓치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그분을 비극의 사건을 어쩔 수 없이 바라보기만 해야 했던 무능력한 존재로 본다. 그들은 '하느님은 무심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에게 원망도 하고 욕도 하면서 그 한(恨)을 풀어헤치기도 한다. 또 어떤 이들은 그분이 자신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의 큰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위로한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천년이 하루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요 그분은 시간을 초월해서 항상 현재 속에 살고 계신다. 그분에게 있는 모든 시간은 '지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며 오늘을 삼키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그분 또한 몸부림을 쳤다. 그분은 소리를 질러댔다. 제발 멈추라고, 그분의 생명을 죽이는 폭력을 그만 두라고.... 그들의 민족적 양심과 인간의 양심에 호소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시 점점 야수가 되어 갔다.

46) 김성례,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국가폭력과 여성체협”, 1998, 참조; 최근 시국미사 등에서의 발언을 모두 중복으로 몰아세우는 적대의식을 언급(강우일 주교강론, 제29회 성서말씀잔치, 2013년 11월 29일)

47) ‘잘못된 생각과 과대 포장된 이념은 이렇게 반인륜적인 참극을 펼치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게 사람들을 그 토벌대들은 다 광기에 몰들게 했습니다. 이러한 4·3의 광기는 사태가 진정되고 나서도 몇 십년 동안 위력을 발하며 많은 사람들을 연좌제에 걸려서 정상적인 직장생활도 못하고 해외로 나가지도 못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건이 터지면 즉시 경찰에 불려가서 다시 조사받고 고초를 겪게 만들었습니다.’ (강우일 주교강론, 교구 목주기도의 밤, 2013년 10월 10일 4·3평화공원)

참으로 그분이 인간에게 심겨놓은 '하느님의 모상'의 모습은 무참히 무너져 내렸다. 사람들 속에 있는 거룩함과 존귀함이 모두 모두 짓밟힌 것이다. 다 죽은 것이다. 그래서 그분 또한 그곳에서 죽어갔다. 그분의 소리를 외면한 이들이 가슴속에서 죽어갔고, 그들이 쏘아 부은 총알이 사람들의 심장에 박힐 때 그분도 따라 죽었다. 그들은 그분의 십자가였다.⁴⁸⁾

5. 인간의 존엄성 - 생명⁴⁹⁾

제주 4·3당시 그곳 제주도에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은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의 구조적 힘의 논리와 비정한 흑백논리에 강제로 끌려가 도저히 피신할래야 피신할 수 없는 운명적 상황 속에 예속되지 않을 수 없는 희생자들이요 그런 상황에서 피차 가해자들이라는 말이다. 특히 정치사회사적으로 당시 1947-1948년은 국제 정치적으로도 야망을 가진 남북의 정치지도자들의 의해 남북분단이 형성되는 과정이었다는 객관적 상황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4·3의 진상규명이나 화해가 불가능한 것이다.⁵⁰⁾

4·3은 무참히 학살당한 많은 제주 도민들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다시금 깨닫게 해준다. 그리고 무죄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안에서 또한 죽어가는 하느님의 모습을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인간의 죽음은 구조적인 사회의 죄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세상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무죄한 인간의 죽음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사람이 사람의 구실을 할 때 '사람답다'는 표현을 쓴다.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보일 때 짐승 같은 놈, 개만큼도 못한 놈으로 낙인이 찍혀 버리는 것이다. 4·3당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선조들은 '사람도 아니여.'라는 한탄의 소리를 했었다. 제주는 바로 십자가였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본래 목적인 참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 당신의 외아드님의 십자가상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고 다른 이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오늘도 초대하고 있다.

48) 김진, 앞의 책, p 12-14 참조

49) '4·3은 아무리 공권력이라고 해도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짓밟을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었습니다. 아무리 국가안보라는 거창한 이유를 내세워도 국민의 생명이 국가에 우선한다는 것을 4·3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는 정부 혹은 국가가 결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4·3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우일 주교, 「녹색평론」 제 131호, "지상의 평화를 위하여", 2013, 참조

50) 김경재, 「제주 4·3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종교인 대회」, "제주 4·3의 해원을 위한 종교인들의 과제", 1998, p 6

6. 4·3과 희생

4·3은 부끄럼 없이는 기억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 모두는 피할 수 없이 65년 전 그 날의 신음을 듣기 위하여 초대 받았다.⁵¹⁾

우리를 돌보고 보호하시는 하느님의 목소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하며 하느님처럼 신음하는 이웃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들을 수 있다. 우리의 귀에 4·3의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다면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하여 희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4·3의 희생을 강조하는 것은 4·3이 우리에게 희생심을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4·3 희생자들은 단순히 폭력에 대항하다가 희생된 이들이 아니라 희생만이 일치와 평화와 화해와 사랑을 이 땅에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을 목숨을 걸고 보여준 이들이다.

우리가 진정 4·3정신을 살리기 원한다면 우리 마음(사회)안에 꺼져가는 희생심의 불꽃을 다시 살려야 한다. 우리가 4·3을 잊거나 피한다면 이는 우리가 부와 권력과 명예와 인기를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희생심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평화와 일치와 화해와 정의를 부르짖는 소리가 온 사회를 덮는데도 사회가 평화롭지 못한다면 희생심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⁵²⁾

7. 용서와 화해

다시는 폭력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네 형제는 어디 있느냐?”⁵³⁾하고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러지 않고 폭력의 순간을 잊으려고만 할 때 형제를 희생 제물로 삼으려는 폭력의 악순환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가 불평불만으로 가득하고 미움이 증가하는 듯 보이는 것은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흘린 피에 귀 기울이는 곳에서 민주주의가 있고 정의가 있고 용서와 화해가 있고 평화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4·3은 민족과 생명의 가치와 문화, 문명과 인간성을 거부한 인간의 타락상을 보여주었고, 정의와 관용이 결핍된 우리의 현실을 드러내주었기 때문이다.⁵⁴⁾

이제 신앙인의 입장에서 얘기될 수 있는 ‘용서와 화해’가 문제해결의 정점에 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용서를 단순히 눈감아 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신앙인들의 시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저히 수용될 수 없는 것이다. 진정한 용서란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는 점이 명백히 밝혀지고 그 잘못을 저지른 이가 진정으로 참회하여 용서를 청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의가 앞서 나가고 사랑은 뒤따르는 것이다.

자비하신 하느님께서도 인간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칠 때, 용서하시며 화

51) 이제민, 앞의 책, p 9 참조

52) 이제민, 같은 책, p 13-14 참조

53) 창세기, 4장 9절

54) 이제민, 같은 책, 9-10 참조

해하신다. 역사 안에서 인간이 저지른 이 잔혹한 범죄는 피해자만 있을 뿐 가해자는 아직까지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용서를 하려고 해도 그 대상이 없는 것이다. 이런 상태로는 화해가 불가능하다.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적 사랑은 또한 정의의 실현인 것이다. 따라서 불의를 자행하고도 뉘우침이 없는 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그들의 불의를 지적하여 뉘우치고 회개하도록 촉구함으로써 그들 역시 구원의 대열에 들어서게 하는 것이다.⁵⁵⁾

그것은 진정한 회개의 뉘우침이 있을 때 참다운 사랑과 화해가 가능하고 이 길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의를 외면한 사랑은 위선적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8. 신앙의 정체성: 진실의 추적

무엇보다도 십자가⁵⁶⁾를 통한 부활 안에서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는 우리들의 사명이다. 4·3은 역사의 저편에서 잊혀지는 사건이 아니다. 오히려 생생하게 현재 우리의 이름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과거와 상관없이 현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으며, 현재와 단절된 미래가 존재할 수 있는가?

어떤 이는 “과거는 누구든 잘못했어도 모두 용서하고 새롭게 시작하자”고 얘기할지 모른다. 이런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존재하는 한 우리에게서 희망이 없다. 왜냐하면 과거의 추적은 진실의 추적이다. 진실의 추적을 어떤 이유로든 포기하도록 유도하여 허위를 현재와 미래로까지 연장하려는 것은 가공할 지배논리의 마술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지배세력의 마술에 대항하여 민족과 우리의 양심을 대변할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4·3의 역사적·민족적 의미를 생각할 때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훼손된 민족정기를 치유해야 한다. 여기엔 민족의 영신적인 면을 돌보는 성직자도 예외일 수 없다.⁵⁷⁾

55) 문창우, 앞의 책, p 23

56) 죽음의 장소인 십자가는 동시에 죽음을 통한 고발에서 그 위력을 볼 수 있다. 십자가의 죽음은 죄와 불의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냈다. 기존 종교의 위선과 형식, 정치권력의 폭압 상을 낱알이 고발한 하늘의 작용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그 위력, 힘, 은총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을 꿇는 것이다.

57) 문창우, 같은 책, p 24-25

III. 결 론

신학은 신에 대한 인간의 사상을 기술한 학문만이 아니라 인간과 역사를 이루고 있는 신에 대한 이야기이다. 따라서 신학의 장소는 역사를 이루고 있는 인간의 삶과 정서와 문화가 바로 우리 한국인들의 신학의 장소이어야 한다. 여기에 제주 신학도 한민족과 공통된 정서를 읽어내면서도 육지와는 다른 특유한 문화를 형성시켜왔음을 통해 나름대로의 독특한 신학의 장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제주도민들에게 선물해 주신 축복의 땅은 바로 4·3과 같은 커다란 시련의 고통과 질곡을 만나면서 엄청난 제주도민의 한(恨)으로 비쳐온 게 현실이다. 따라서 신학적 작업은 바로 이런 한(恨)의 현실을 한분이신 하느님의 현실로 되돌려놓는 일이다. 여기서 한(恨)의 현실은 이제 제주도민만의 현실이 아니라 하느님의 현실이기도 한 것이다. 이는 곧 하느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4·3의 신학적 조명을 통해 더욱 더 제주도민의 삶을 점검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신학적 전망을 말할 수 있다. 4·3의 진정한 문제해결은 궁극적으로 진상규명들을 넘어서 4·3과 같은 비극을 낳은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들의 해소라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여기에서 그동안 여론에 못이긴 공약으로서 정치적 제스처, 선거 등에서 건재함을 보여주는 지역주의, 4·3관련 이적성시비, 교과서 검정에 따른 궤변적인 발언, 정부의 4·3에 대한 역사를 왜곡하려는 움직임을 볼 때 참담한 심정이다. 그러기에 아직도 4·3은 현재사이며 그 어느 때 보다는 절실한 현대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결국 4·3의 해결은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진실의 추적 속에서 얻어지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같은 노력과 관심은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65년 전의 왜곡되고 암담한 시절에 비해 이만큼이라도 먼 길을 기어올라 왔지 않는가?

정의의 역사는 언제나 시간이 걸릴지언정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는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념과 끈질긴 노력이 있다면 현실의 벽도 뛰어넘을 수 있으며, 끝내는 4·3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⁵⁸⁾

이제 4·3이 주는 오늘날의 의미는 무엇인가? 4·3의 교훈으로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가? 4·3이 갖는 세계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등등. 이러한 질문은 가능하다. 그러나 4·3 그 자체가 아직도 관덕정 앞마당에, 다랑쉬 굴속에, 웅팡밭 속에, 한낱 헛무덤 속에서조차 숨죽여 있는 지금 그런 질문은 아직 사치일 수 있다.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4·3의 그 묻힌 이들의 숨통을 트여 놓는 것이다.

4·3은 무덤에 있지 않고 살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에 눌려 진실이 가려져 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스스로 말하게

58) 문창우, 같은 책, p 32

해야 한다. 그때서야 비로소 오늘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진정 그들의 무덤가에 가보지도 않는 자들은 더욱이 그들이 갖는 오늘의 의미를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4·3의 의미를 말하려고 애쓰기 전에 그들의 무덤을 향해 가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4·3을 알 수도 더욱이 오늘날의 의미를 깨달을 수도 없다.

어떻게 그들의 죽음 앞에 다가설 수 있는가? 비행기타고 제주도에 오면 알 수 있는가? 회칠한 무덤처럼 꾸며져 있는 제주도에 오면 그들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인가? 아니다. 그것으로 그들을 만날 수 없다. 오늘 우리가 그들처럼 죽어가는 삶을 사는 길 밖에는 그들의 죽음을 알 수 없다. 그들이 죽음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뜻'을 우리가 품고 날마다 죽지 않는 한, 그들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 우리들을 둘러싼 반생명이 넘치는 이 죽음의 세계에 저항하지 않는 한, 그들을 제대로 알 방법은 없다. 이것이 바로 '진실된 삶으로서의 추적'이다.

역사적 자료나 분석, 인터뷰, 사회적 진상규명도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모든 4·3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 모두 빌붙어 살아갈 뿐이다.⁵⁹⁾

인간의 역사적 삶은 유기체적인 것이요, 개인과 전체는 언제나 맞물려 있는 생명의 원리이기 때문에 종교적 시각에서 보면 제주 4·3의 희생자는 우리 모두이고 그 책임자도 우리 모두이며 그 진실을 65년 동안 묻어둔 비겁함과 태만의 책임도 살아 있는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다. 이제 제주 4·3해결에 제3자의 입장이란 없다. 우리는 모두 하늘을 우러러 한줌 부끄럼 없는 인간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구시대 유물인 냉전시대의 병고를 더 이상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하여 제주 4·3은 더욱 진실이 규명되어야 하고 그 토대위에서 진솔한 화해가 이뤄져야 한다.⁶⁰⁾

이렇게 4·3이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숨통 트이게 한 이후에야 4·3이 오늘날 갖는 민족적이고 세계사적인 의미가 보다 확연하게 비춰지게 될 것이다. 그 의미중의 하나는 4·3이 민족의 평화통일이라는 대과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4·3이 어느 특정 지역의 사건이나 어느 한 시점에 벌어졌던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향한 역사적 사건임을 깨닫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섬과 내륙, 지역과 지역, 혹은 남과 북을 가르는 분단의식 속에서는 4·3의 꽃이 피워날 수 없다. 4·3이 갖는 또 다른 오늘의 의미는 4·3이 우리 민족의 범위를 넘어서서 세계의 새로운 평화질서를 향한 반성의 잣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⁶¹⁾

59) 김진, 앞의 책, p 15-16 참조

60) 김경재, 앞의 책, p 5

61) '4·3이 일어난 이후 6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역사적 진실의 의미를 찾아내야 합니다. 제가 진실이라고 말 씀드리는 것은 그냥 어떤 역사적·정치적·사회적 진상을 규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하는 일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진실의 의미란 4·3이 우리나라 역사의 여정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찾아내고, 4·3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미래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우리가 발견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3만여 명의 무고한 희생이 그냥 허공에 사라지고 땅속에 파묻혀버리고 맙니다.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강우일 주교, 「녹색평론」 제 131호, "지상의 평화를 위하여", 2013, 참조

마지막으로 종교의 참된 의미는 권위적이거나 단지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룩함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공동선⁶²⁾과 세상을 향한 복음 선포⁶³⁾을 위해 인격적인 만남의 장을 이룰 수 있어야만 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제주를 이루는 도민들이 더욱 좋은 방향으로 관계를 맺고 4·3과 같은 비극을 포함한 삶의 자리⁶⁴⁾에 있는 것들에 대해 서로 대화하며 화해할 수 있는 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여겨진다.⁶⁵⁾

62)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신앙의 빛」(2013년)에서 신앙의 영감을 통해 참된 공동선의 기여를 촉구하고 계신다.

63) 프란치스코 교황의 권고 「복음의 기쁨」(2013년)에는 현대세계에 직면한 도전에 대해 언급하면서 복음 선포의 예언자적이고 선교사적인 태도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64) 대표적으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천주교의 대응.(국정원대선개입, 밀양 송전탑, 탈핵·탈원전, 정치·경제·이념의 양극화 등)

65) 올해, 교회는 요한 23세 교황의 회칙 「지상의 평화」를 발표한지 50주년을 맞는다. 4·3을 통한 오늘의 현실을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고민해야 한다. 특히 평화의 도구로서 역할을 발견하는 것이 시급하다.

토 론 I

“그들로 하여금 숨통을
트이게 하라”

토론 I

“그들로 하여금 숨통을 트이게 하라”

김상기 목사

새사람교회 목사, 前 남서울대학교 기독교윤리학 교수

이 글은 기존의 제주4.3에 대한 담론의 장이 주로 사회과학의 분야였다는 점에서 볼 때, 이례적으로 신학적 성찰을 본격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저자의 신학에 대한 기본 이해 - 신학이란 신에 대한 인간의 사상을 기술한 학문을 넘어 인간과 역사를 이루고 있는 신에 대한 이야기 - 에 기반 한다. 즉 제주4.3은 신학의 장소로서의 인간의 삶과 역사이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저자에게 신학은 곧 인간학이요, 제주4.3은 인간의 역사이자 하나님의 역사이다.

신학적 주제로서의 제주4.3에서 저자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필자는 이를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 이해하고 싶다. 하나는 성찰의 신학이요, 다른 하나는 당위의 신학이다. 전자가 제주4.3이라는 사건 속에 담긴 신학이 무엇이었는가를 묻는 조직신학적 탐구라면, 후자는 제주4.3의 신학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를 묻는 기독교윤리학적 질문이다.

먼저 저자는 제주4.3의 신학적 함의를 크게 하느님 나라와 십자가로 나누어 설명한다. 65년 전 죽음의 자리에서 그들이 가졌던 갈망은 무엇이였을까? 그것은 하느님의 나라였고, 그 나라는 인간의 모든 사회적 삶을 포괄한 총체적 해방의 나라로써 사랑과 평등과 평화가 지배하는 세계요, 분단된 현실을 넘어 이루어질 통일국가에 대한 희망이었다. 그러나 무고하게 죽어가던 주체들이 꿈꾸던 하느님의 나라는 구체적 현실 속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났다. 십자가 위에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하느님께서는 피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지만 결코 어찌할 못하는 무능한 아버지였듯이, 그분은 또한 해방공간 제주도 곳곳에서 대량학살의 처참한 죽음의 광풍 속에 스러져가는 3만 명의 죽음 현장에 서 계시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연약한 우리의 아버지일 뿐이었다. 국가폭력 앞에서 하느님의 존재는 부정되었고, 인간에게 심겨놓은 하느님의 모상은 무너져 내렸다. 따라서 저자에게 있어서 제주4.3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 십자가 아래서 죽음당하는 제주도민’, 그리고 ‘십자가를 쓸어안고 함께 죽어가는 하나님’, 이 세 주체가 함께 당한 고난이요 희생이요 신음의 사건이다. 이 지점에서 필자는 저자의 글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세 주체의 고난과 희생의 신학을 통해 진정한 하느님 나라의 실현을 갈망하고 있음을 느낀다. 즉 진정한 평화와 화해, 사랑과 자유, 그리고 해방과 치유의 하느님 나라는 무고한 자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완성됨을 염원한다.

그렇다면 십자가와 함께 희생당한 제주4.3의 무고한 주체들의 죽음이 하느님의 나라의 현실로 부활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를 저자는 윤리학적 담론으로 풀어간다. 이른바 기억의 윤리, 희년의 윤리, 진실의 윤리, 그리고 생명의 윤리이다.

첫째, 기독교 신앙이 예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기억함으로써 현재화하듯이, 제주4.3은 과거의 지나가고 묻혀버린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는 살아있는 사건으로 기억되어야 한다. 기억을 통하여 교회는 제주4.3을 현재진행형 사건으로 의미화하고, 이로부터 우리의 원천을 성찰하고, 여기에서 다시 미래를 말함으로써 폭력의 역사로 회귀하지 않고자 한다.

둘째, 희년의 신학이 종살이에서 풀려나고 빼앗긴 땅을 다시 찾게 하는 하느님의 해방케 하시는 은혜를 선포하듯이, 저자는 제주4.3을 향해 희년의 윤리를 선포한다. 희년의 선포로 제주4.3은 제주도민으로 하여금 온전한 삶의 회복과 해방을 경험하고, 이념으로부터 해방되며, 한 맺힌 상처를 걷어내며, 사랑과 정의의 강물이 넘쳐흐르는 구원의 땅으로 건너간다.

셋째, 희년의 선포를 통한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지기 위해 저자는 진실의 윤리를 주창한다. 진실의 규명이란 정의를 세우는 일이요, 정의 없는 용서와 화해는 거짓이기 때문이다. 가해자의 죄고백과 피해자의 용서는 진실의 추적이라는 지난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하느님 나라의 현실이다.

넷째, 무엇보다 저자는 제주4.3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생명이 하느님의 생명에 귀속되어 있음을 깨닫고, 구조적인 사회의 죄악 속에 무참히 죽어갈 수 있는 인간 생명의 존엄에 대해 자각하며, 결국 하느님은 이러한 죽음의 현실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 다시 찾아오신다고 역설한다.

요컨대, 저자는 제주4.3에 대한 신학적 조명을 통해 앞으로의 윤리적 전망을 하고, 이를 위해 진실규명과 구조적 모순 해소를 거쳐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신학적 작업을 통해 저자가 우리에게 호소하는 하나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다 : '4.3의 폭력 속에 묻힌 이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라.' '4.3의 현실은 무덤에 있지 않고 오늘날 우리 곁에 있다.' 숨통 트이게 하는 신학, 과거의 역사를 현재화하는 신학, 이것이 저자가 제주4.3을 신학화 하려는 진정한 의도로 사료된다.

이제 필자는 저자가 던진 과제를 이어가고자 한다. 그것은 저자가 글 속에서 언급했듯이, 65년 전 제주도에서 일어난 그 사건은 양상을 달리할 뿐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으며, 더 잔인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폭력이 반복되고 확대 및 재생산되는 역사의 현실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 것인가? 이에 필자는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먼저 연구해야 하듯이, 제주4.3의 진정한 해방과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는 아프지만 비참한 역사 속에 숨어있는 폭력의 메커니즘을 밝혀내야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자의 글 <제노사이드 메커니즘 이론으로 본 제주 4.3>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별첨자료>

제노사이드 메커니즘 이론으로 본 제주 4·3

메커니즘 이론이란 아무리 다양한 사회적 상황과 역사적 배경, 그리고 희생의 결과들이 전개되었다고 해도 거기에는 일정하고 정해진 폭력의 작동 원리가 있음을 전제해 분석 방법론이다. 즉 제노사이드라는 역사적 현상은 다양하지만, 그 현상을 꿰뚫어 흐르는 폭력의 작용은 공통적이고 일관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사회적 존재, 혹은 집단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갖고 있는 폭력성에 대한 본질적 이해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다. 따라서 제노사이드 속에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작업은 인간 내면에 있는 폭력적 본성에 대한 관찰이자 성찰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제주4·3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살의 메커니즘을 분석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학살의 메커니즘이란, 앞서 언급했듯이, 폭력의 작동원리 혹은 폭력의 요소들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재배치하여 체계화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즉 학살이 어떠한 폭력 작용을 통해 전개되고, 그 작용이 어떤 메커니즘을 따라 진행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메커니즘이 담고 있는 폭력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제주4·3에서 나타나는 폭력의 메커니즘을 크게 학살의 전조 단계와 학살의 실행 단계, 그리고 학살의 이후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이 세 단계의 과정은 학살의 진행 시간에 따른 것으로, 폭력의 전조 단계는 학살의 초기화 과정으로, 폭력의 실행 단계는 학살의 본격적인 현실화 과정으로, 폭력의 이후 단계는 학살의 사실을 은폐하고 조작하는 사후 과정으로 대별할 수 있다. 필자는 제주4·3 전체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폭력의 메커니즘을 다음 10가지로 분석했다.

I. 폭력 전조의 단계 : 예비적 폭력 형성 과정

1. 이데올로기 (Ideology)

제노사이드에 있어서 이데올로기는 학살을 수행하기 위한 정신적 요소이자 초기적 메커니즘이다. 이 과정에서 말하는 이데올로기는 가해자 집단으로써 권력을 잡은 정권이 추구하고 제시하는 정치적 이상향 혹은 유토피아를 의미한다.¹⁾ 전술한 바와 같이, 정치 지도자들은 미래에 대한 강력한 비전에 사로잡혀 있고, '지금 바로 여기에서' 자신들의 이상을 창조하려는 욕구로 충만해 있다. 지도자들은 국가를 미래 사회를 창조하기 위한 핵심적인 주체로 인식하며, 한 사회를 총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국가를 건설하기를 원한다. 또한 그들은 사회 집단 내에 존재하는 차이를 없애고, 동일한 국민으로 이루어진 순혈주의적 사회를 상상한다.

1) Eric D. Weitz, *a century of genocide :Utopia of Race and Nation*, pp. 14~15.

대부분의 학살 사건들이 주로 국가형성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 과정에서 학살의 주체로서의 가해자 집단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건설할 국가에 대한 이상적 형태를 국민들에게 심어주려고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상향과 유토피아를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사용하여 선전하고 의식화시킴으로써 다양한 정치적 욕구와 방향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목적에 집중시킨다. 이른바 ‘신국가 건설’이라는 정치적 이데아를 제시함으로써 자신들의 영토 내에 있는 국민들로 하여금 그 목표를 이를 명분과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사용되는 정치적 도구가 이데올로기이다.

에릭 마르쿠젠(Eric Markusen)은 일찍이 이데올로기가 특정 정책을 채택하거나 특별한 관행을 수행하기 위한 심리적, 정치적 합리화의 체계라고 정의한 바 있다.²⁾ 특히 그는 20세기 세계 역사에서 발생한 대량학살 프로젝트에서는 풍부한 이데올로기적 동기가 자연스럽게 사용되었다고 말한다.³⁾ 이데올로기는 대량학살을 정치적으로 동기화(Motivation)하고 정당화(Justification)하는데 결정적인 요소이자 작동 기제이다. 이데올로기의 효과는 일단 정부의 프로그램의 표적이 된 대상들이 소수집단의 구성원이든, 적국의 시민이든 관계없이 자신의 집단이나 국가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제거되어야 할 존재라는 집단적 의식을 창조해 내는 데 있다.⁴⁾

그렇다면 제주4·3의 경우 이데올로기 메커니즘은 어떤 것이 있었고 어떻게 작용했는가? 제주4·3의 역사적 위치는 한국의 근대사에서 현대사로 넘어가는 정점에 있었으며, 탈식민과 해방정국의 상황에서 한반도의 새로운 독립 국가 탄생을 위한 과도기적 기간에 걸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에 하나의 독립된 국가가 세워져야 할 역사적 당위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김일성과 이승만으로 대변되는 각각의 독립된 국가 건설이 진행되는 상황이었다.

이는 세계사적 흐름과 맥을 함께 하고 있는데, 제주4·3은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새롭게 재편된 미·소 냉전 구도라는 국제질서 속에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날카로운 이념의 대립이 격화되는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었다. 이른바 ‘과도기적 기간’이라는 말은 일제로부터의 탈식민화의 과정과 냉전이라는 세계질서의 구도가 맞물리는 가운데 한반도에 새로운 국가를 탄생시켜야 한다는 국가형성의 과제가 삼중적으로 놓여 있는 역사적 상황을 의미한다.

제주4·3이 1945년 8월부터 시작된 미군정 시대의 영향력 하에서 시작되었고, 1948년 8월 이승만 정권의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과 더불어 발생한 사건이라고 볼 때, 학살의 초기 메커니즘으로서의 이데올로기는 이승만의 정치이념이자 점령국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세계전략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했다. 즉 남한 단독정부의 수반으로서 당시 이승만의 정치적 상황은 불안을 넘어 위기에 가까운 것이었고 권력 기반은 매우 약한 상태였다. 동시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소련의 한반도 지배력과 영

2) Eric Markusen, “제노사이드와 총력전 : 예비적 비교”, p. 168.

3) Ibid., p. 192.

4) Ibid., p. 193.

향력을 저지하고 차단해야 할 부담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승만 정권의 정치적 위기 상황과 미국의 소련에 대한 견제의 목적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정치 이데올로기로서 제시된 것이 바로 '반공주의'이다. 반공 이데올로기는 이승만에게 자신의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대의 이슈였고, 미국에게는 한반도에 공산주의 방벽을 구축하기 위한 최고의 이념적 대책이었다.⁵⁾

해방 후 이승만은 강렬한 민족주의적, 혁명적 분위기와 사회주의자들의 호소력 있는 강력한 반자본주의 공세에 대항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로서 반공주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반공주의와 병행하여 반공주의를 포함한 일민주의를 내세웠다. 당시 반공 이데올로기는 이 시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민족주의가 결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무조건 부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국가 건설의 이념으로는 부족했다. 따라서 일민주의는 극우 반공주의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이전에 그것과 대부분 중복되면서 제기된 단정운동세력의 이데올로기였다.⁶⁾ 따라서 일민주의는 반공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앞서서 그것과 중첩되면서 정부수립 직후의 시대상황에서 내세워진 과도기적 이데올로기였다. 이러한 일민주의 혹은 극우반공주의에 대하여 서중석은 잠정적이지만 '한국형 파시즘'이라고 규정했다.⁷⁾

제주4·3에서 이승만 정권과 미군정은 사태의 본질을 정의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사태의 원인을 찾는 일, 절멸해야 할 적의 범주를 정하는 일, 자신들의 학살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일, 타자화된 집단에 대하여 비인간화를 시도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반공 이데올로기를 사용했다. 4·3 무장봉기가 발발했을 때 딘 장군이 그 원인을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이라고 말한 것이나, 조병옥 경무부장이 '소련연방화 책동' 혹은 '국제공산주의자들과의 연계론' 속에서 이해한 것⁸⁾, 응원경찰대가 '제주도는 빨갱이 섬이며 빨간 물이 들었다'⁹⁾고 인식한 것을 비롯하여 언론조차 4·3 봉기의 원인을 '공산당의 남조선 파괴공작'으로 보는 시각¹⁰⁾등은 권력집단의 이데올로기적 무장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 시기 중앙정부는 이념의 문제를 흑백논리로 비약시킴으로써 이분법적 사고형태를 극대화시키면서, 무장봉기를 일으킨 세력에 대하여 '빨갱이'로 규정하고¹¹⁾, 사태 현장에서 군인들은 제주도민을 모두 빨갱이로 알고 특별한 혐의가 없는 사람을 죽여 놓고 이를 빨갱이로 몰아붙이고 임의대로 처리했다.¹²⁾

5) 제민일보4·3취재반, 『4·3은 말한다-4』, p. 351, 363.

6) Ibid., pp. 112~113.

7) Ibid., p. 112. 한편 서중석은 이승만의 반공은 결코 민족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진영논리였고, 그것도 냉전체제에서 약소국 민족이 철저히 배제된 강대국진영 논리의 대변이었다고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이승만은 미국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미국이 영도하는 자유진영의 한 부분으로 자신의 극렬한 반공투쟁을 자리 매김했다고 지적한다. p. 111.

8) 제민일보4·3취재반, 『4·3은 말한다-2』, p. 124.

9) Ibid., p. 260.

10) 『동아일보』 1948년 6월 24일자.

11) 제민일보4·3취재반, 『4·3은 말한다-4』, p. 159.

12) Ibid., p. 247.

이처럼 이승만 정권의 일민주의와 반공주의는 제주4·3의 학살 초기 과정에서 정통성 없는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세력을 철저히 배제시키고, 자신들의 실정에 저항하는 제주도 공동체를 절멸시키기 위한 파시즘적 폭력에 정당성과 명분을 부여해 준 정치적 이념의 토대이자 학살을 위한 이데올로기적 메커니즘으로 작용했다.

2. 조직화 (Organization)

이데올로기적 메커니즘을 통하여 학살의 근본적인 명분과 정당성이 확립되고 나면, 학살 주체들은 자신들의 내부 세력을 강화하고 조직화하는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필자는 이를 조직화 메커니즘이라고 명명했는데, 이는 제노사이드 수행 과정에 따르는 조직적 요소이자 구조적 메커니즘이다. 에릭 마르쿠젠은 이를 '관료주의(Bureaucracy)'로 설명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관료주의는 조직의 파급능력을 실행하는 구조로써, 대량학살을 수행하는 데에는 정책을 입안하는 개인, 실행 등을 결정하고 공포하는 개인, 필요한 기계의 업무를 맡거나 수송 및 공급의 병참업무에 공조하는 개인, 사무문서를 만들거나 발송하거나 보관하는 것, 나아가 이를 감시하거나 평가하는 각각의 개인 등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¹³⁾

또한 조직화 메커니즘에서는 사회적으로 어떤 외부 집단에 대하여 희미하게 이루어져왔던 증오와 혐오의 분위기가 서서히 '증오집단'으로 조직화되기 시작하고, 군사조직은 무장하거나 훈련에 돌입하고, 무장화된 여러 하부 세력들은 의도된 희생자 집단의 많은 사람들을 산발적이지만 점점 더 빠른 빈도수를 보이며 살해하는 일들이 발생한다. 신문이나 방송 같은 선전선동 기관들이 지배권력 집단에 의해 접수되면서 그들의 통제 속에서 강화되기 시작한다. 이와 함께 학살 권력들은 제노사이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한다. 학살되어야 할 사람들의 명단이 정리되기 시작하고, 이 명단을 기초로 하여 본격적인 대량학살을 수행하기 전에 시험적인 학살들이 이루어진다. 시험적인 학살은 학살자로 하여금 훈련의 의도와 함께 국내외적인 비난의 수위를 점검하는 의미를 갖는다.¹⁴⁾

한편, 허버트 허쉬는 이 과정을 '내부 집단에게 행동을 요구(Call to Action)'하는 단계로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정치 지도자들은 국가의 살 길을 찾기 위해 학살이 필요함을 선언하고 폭력행위를 정당화하고 행동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대량학살에 참여할 조직과 사람들을 준비한다. 나아가 그들은 이를 위해 학살 대상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상징체계를 사용하여 살해 메커니즘을 합법화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자신들의 집단 구성원들의 행동을 독려하기 시작한다.¹⁵⁾

13) Eric Markusen, op.cit., p. 198.

14) Gregory H. Stanton, "Could the Rwandan genocide have been prevented?", *Journal of Genocide Research*, pp. 213~217. 그레고리 스탠튼은 조직화 메커니즘을 자신의 '8단계 메커니즘' 가운데 네 번째 조직화(Organization) 단계와 여섯 째 계획화(Preparation) 단계로 설명한다. 필자는 이 두 과정을 '조직화 메커니즘'으로 묶어서 정의하기로 했다.

15) Herbert Hirsch, *Genocide and the Politics of Memory*, p. 102.

제주4·3의 과정에서 조직화 메커니즘은 크게 군사조직의 측면, 인사정책의 측면, 우익세력 강화의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군사조직의 측면은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가 제주사태를 진압한다는 명목 하에 이루어진 군사력의 강화 및 증강을 말한다. 제주4·3과 관련하여 군사조직화의 과정은 크게 3단계의 강화 및 증강 시점을 갖고 진행되었다. 제1단계는 1946년 8월 1일 제주도제 실시에 따른 미군정의 공권력 강화이다. 제2단계는 1947년 3·1절 발포사건에 따른 대대적인 군사력 증강이다. 제3단계는 1948년 4·3 무장봉기 사건 이후 신속하고 다각적으로 이루어진 군사력 강화이다.

둘째, 가해자 권력의 조직화는 수뇌부를 학살적합인물들로 강화시키는 인사정책과 함께 진행된다. 제주4·3 과정에서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은 1948년 11월 초토화 작전이 시작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3년 동안 우익 편향적이고 강성적인 인물들로 지속적으로 교체하면서 강화시켰다. 물론 대대적인 인사교체의 단행은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군사조직의 증강에 따른 것이었다. 1947년 3·1절 발포사건과 총파업의 여파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미군정은 제주도의 수뇌부 인사를 전면 교체한다.

셋째, 조직화 메커니즘은 가해자 권력집단의 학살을 지원하고 대행하는 하부권력 집단들을 조직 및 강화하는 일을 포함한다. 사설단체의 이름으로 조직되는 다양한 폭력대행 집단들은 학살의 현장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잔혹한 만행을 일삼는 중앙권력의 하수인들로 자리매김이 되었다. 역사적으로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에서는 특무부대가 있었고, 일본의 관동대지진 때에는 자경단이 있었다. 제주4·3의 경우 대표적인 하부권력집단으로 서북청년단을 꼽을 수 있는데, 당시 이 집단의 존재는 그 규모면에서나 잔혹성에 있어서 학살의 전위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북한 공산주의의 피해자로서 이북에서 월남한 사람들로 구성된 서청은 자신들의 실존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누구보다도 반공적 색채를 강하게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 극우 반공주의를 국시로 내건 이승만 정권의 이념과 궤를 같이 하면서 제주도에 이른바 '극우 반공 이데올로기의 상징적 집단이자 학살의 선봉집단'으로 그 악명을 떨친다. 중앙권력으로부터의 강력한 후원과 지원 속에서 제주도에 행한 서청의 학살극은 다른 어느 극우 사설단체에 비할 것이 아니었다. 나아가, 중앙권력은 토벌대를 더욱 보강하기 위해 강성건(서귀읍 대동청년단)과 같은 충실한 테러리스트를 이용하여 효과적인 '죽음의 부대'를 편성하여 '살인대회'와 같은 행사를 통해 현상금까지 걸면서 전문적인 테러집단을 대량으로 양성하는, 이른바 '특수부대'를 만들기까지 한다.¹⁶⁾

3. 타자화 (분류화 / 비인간화) (Us & Them / Dehumanization)

조직화 메커니즘이 권력 집단이 어떻게 학살할 것인가를 설정하는 내부적 요인이 라면, 타자화 메커니즘은 그들이 희생자 집단을 어떻게 규정하고 범주화 할 것인가를 특징짓는 외부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폭력의 작용은 일차적으로

16) 김봉현, “제주도4·3항쟁의 현장기록”, 노민영 엮음, 『잠들지 않는 남도』 (서울: 온누리, 1988), p. 153.

권력을 가진 집단의 내부조직이 구축되고 강화된 상태에서 그 힘이 극대화되고, 여기에 자신들의 폭력을 행할 수 있는 희생자 집단을 설정하고 그들에 대한 철저한 타자화와 비인간화가 이루어지면서 상호간의 권력관계가 비대칭적 구도로 극단화될 때 이루어진다. 따라서 조직화 메커니즘과 타자화 메커니즘은 폭력이 작동하는 데 요구되는 필요충분조건이자 기본요건이 될 수 있다.

타자화 메커니즘은, 앞서 밝혔듯이, 무엇보다도 누가 우리의 편이고, 누가 우리가 죽여야 할 적인가를 나누는 집단폭력의 초기적 작용이다. 여기에는 우리와 그들, 내부 집단과 외부 집단 사이의 경계짓기, 주체와 타자의 구별짓기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써 타자를 적대시하는 사회적 감정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내부 집단의 높은 사회적 정체성을 성취하기 위해 외부 집단에 대한 편견, 차별,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폭력을 가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감지된다.¹⁷⁾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 이루어지기 전 유럽 전역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반유대주의는 타자화 메커니즘이 본격적으로 작동되기 전의 징후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경계짓기와 구별짓기는 차별하기(Discrimination)로 발전하는데, 이데올로기와 같은 가치의 폭력, 외부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심화되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폭력을 위한 토대가 된다. 외부 집단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현실 사회에서는 낙인찍기(Stigmatization)로 전개되는데, 이는 외부 집단으로 구별된 타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회적 표지를 통해 차별화하는 단계를 말한다. 기회와 특권을 박탈한다거나 능력을 제한하거나 투표권을 박탈하는 등의 사회적 제재 등이 여기에 속한다. 앞서 메커니즘 이론에서 이미 보았듯이, 그레고리 스탠튼은 이를 상징화(Symbolization)로 설명하는데, 이 과정에서 각각의 집단들은 나름의 명칭과 상징들이 주어지며, 그들에게 자신들의 문화적 전통과 법에 따른 의복을 입도록 요구받는다.¹⁸⁾ 상징화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통해 구체화되는데, 이러한 ID카드는 희생자를 구별하고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타자화된 집단은 학살 가해자 집단으로부터 비인간화(Dehumanization)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어떤 집단에 대한 비인간화는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폭력을 자행하기 위한 의지에 대해 도덕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어떠한 제약들도 제거할 수 있는 기제이다.¹⁹⁾ 비인간화 과정은 외부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고정관념을 증진시키면서 시작하는데, 이 과정은 종종 개개인이나 다른 인간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행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인지적 불일치를 감소시켜 줄 필요한 수단이 된다.²⁰⁾

실제로 학살의 과정에서 비인간화는 제노사이드라는 죽음의 소용돌이가 시작되는 첫 단계이다. 희생자에 대한 비인간화가 시도되는데, 구체적으로 희생자를 짐승이나 질병으로 비유하는 형태로 나타난다.²¹⁾ 기생충, 쥐, 암덩어리, 전염병 등의 말들이

303) Gregory H. Stanton, "Could the Rwandan genocide have been prevented?", *Journal of Genocide Research*, pp. 213~217.

19) Eric Markusen, op.cit., pp. 196~197.

20) Linda M. Wolf & Michael R. Hulsizer, op.cit., p. 113.

21) Gregory H. Stanton, op.cit., pp. 213~217.

등장하는 것이 그 예이다. 르완다 학살의 경우 가해자 후투족이 희생자 투시족에 대하여 사용한 언어는 바퀴벌레(inyenzi)였다. 허버트 허쉬는 이를 언어학적 분석을 통해 여러 사례를 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폭력을 남용할 대상들에 대해 비인간적 용어들을 개발해 낸다는 것이다. 예컨대, kike(유대인을 경멸하는 말), wop(이탈리아인을 경멸하는 말), bohunk(동유럽계 이민자들을 경멸하는 말), jap(일본인을 경멸하는 말), chink(중국인을 모욕하는 말) 등이 그것이다.²²⁾

그렇다면 제주4·3 당시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에게 있어 절멸시켜야 할 타자는 누구인가? 즉 그들은 우리 편(Us)과 상대 편(Them)을 어떻게 분리했는가? 먼저 그들에게 있어 우리 편은 크게는 반공주의를 신봉하는 모든 자들이며, 작게는 친일파 세력, 군정 경찰, 경비대, 우익정당들, 반탁주의자들, 서북청년단과 같은 우익 사설단체들(향보단, 대동청년단, 학생연맹 조직 등)이다. 반면, 그들의 적은 일차적으로 '공산주의'라는 일반 개념 안에 포섭되는 모든 집단과 개인들이다. 이를 다시 세분해 보면, 크게는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를 지칭하며, 작게는 공산주의 사상 내지 진보적 경향(당시 이는 좌파적 경향으로 인식되었다)을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다. 예컨대, 해방 직후 인민위원회를 비롯한 진보적인 단체들, 찬탁주의자들, 남로당을 비롯한 좌익 정당들, 좌파 성향을 가진 사설 단체들이 여기에 속한다.

제주4·3의 과정에서 없애야 할 적은 군·경 토벌대와 같은 군사조직과 서북청년단과 같은 우익사설단체를 제외한 모든 제주도민이 될 수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사상 유무와 상관없이 자연히 타자와 될 수밖에 없었다. 즉 극우분자 내지 이승만 정권의 하부조직에 속한 자들 외에는 위험분자라고 낙인찍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한다.²³⁾ 공산주의와 반공주의 사이의 중도적 입장이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극우 반공주의자 외에는 모두가 적으로 규정된다. 1948년 5월 5일에 있었던 딘 군정장관 주재의 수뇌부 회의에서 조병옥 경무부장이 김익렬 중령에게 던진 '국제 공산주의자의 아들'이라는 독언(毒言)이 시사하듯, 김익렬 중령은 이승만 정권의 조직하에 있는 군수뇌부의 참모이자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진 우익성향의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극우 반공주의자 조병옥에 의해 공산주의자로 낙인찍혔다.

중앙권력에 의해 적으로 규정되고, 소위 '우리'와 '그들'의 명확한 분류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그들'에 대한 비인간화 전략이다. 제주4·3 당시 중앙정부의 수뇌부를 비롯하여 현장에서 진압작전을 펼쳤던 군·경 토벌대가 절멸해야 할 적의 상징적 명칭은 '빨갱이'였다. 그들이 죽여야 할 타자는 '공산주의적 성향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빨갱이로 대변되는 '비인격적 색깔'이었다. 그들은 사람을 학살한 것이 아니라 빨갱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색깔을 가진 존재를 '지워 없애는' 것일 뿐이었다. 남한 땅에서 없어져야 할 색깔인 '빨갱이'를 제거할 뿐이다. 이것이 그들의 할 일이었고 임무이자 사명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조병옥을 비롯한 군정경

22) Herbert Hirsch, op.cit., p. 100.

23) 김봉현, "제주도4·3항쟁의 현장기록", p. 150.

찰, 특히 본토로부터 파병된 응원경찰대의 인식 속에는 제주도는 ‘빨갱이 섬’이었고, 제주도민들은 모두 ‘빨간 물이 들어있는’ 존재였다. 그들의 이러한 인식은 제주도에 들어올 때부터 “제주도 놈들은 모두 빨갱이”라고 생각하도록 선정되고 교육되었으며, 여기에 ‘섬놈’이라는 편견과 자신들이 본토사람이라는 경박한 우월감과 함께 강화되었다.²⁴⁾

‘빨갱이’와 함께 토벌대 쪽의 학살자들이 사용한 용어들로는 제주도를 ‘제2의 모스크바’, ‘붉은 섬’으로 부른 것이나, 제주도민을 ‘폭도’, 혹은 ‘붉은 개’라고 부르고 있고, 이보다 강도는 약하지만 ‘폭도’, ‘빨치산’, ‘통비분자’, ‘산사람’, ‘불량도배’, ‘악렬분자’, ‘백정’, ‘산꾼’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무장대를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을 비인간화시키고 있다.²⁵⁾ 반면, 무장대 쪽 학살자들 또한 군·경 토벌대와 우익세력을 적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향하여 비인간화된 용어들을 생산해내고 있다.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을 보면, ‘반동분자’, ‘미제 앞잡이’, ‘깡패’, ‘낯은 충’, ‘경찰 테러단’, ‘부랑배’, ‘미제살인자’, ‘야수’, ‘살인 경관’, ‘살인마’, ‘극악 반동’, ‘반역’, ‘악질’, ‘개떼’, ‘미제 식인종’, ‘도살자’, ‘인간 쓰레기’ 등²⁶⁾ 극단적 표현과 더불어 대상을 비인간화시켜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무장대 쪽의 비인간화 전략 또한 ‘미제 앞잡이’, ‘깡패’ 등과 같은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에서 시작하여 ‘살인마’로 격하되다가 ‘식인종’, ‘인간 쓰레기’, ‘개떼’와 같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존재로 비하시키고 있다.²⁷⁾

4. 동질화 (Equalization)

동질화 메커니즘은 죽여야 할 대상에 대한 일정한 범주적 규칙을 갖고 있는 전쟁과 같은 게임의 법칙을 깨고 민간인에까지 죽임의 대상을 증폭시킴으로써 대량학살이라는 범주로 전환하게 하는 결정적 기제로 작용한다. 전쟁에서 군인들만을 적으로 규정하여 죽일 수 있다는 전쟁협약 같은 것이 국제법적으로 존재하지만,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어린이와 노인에 이르기까지 살해의 범위가 민간인으로 확대되는 데에는 군인과 민간인을 하나의 적으로 동일시하는 인식론적 메커니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상대편 국가의 민간인조차 그들 국가의 군인들을 정신적으로 후원하고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한 통속’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동질화 메커니즘이 작동하면서 희생자 집단의 범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되면서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 되고, 게임의 법칙이 사라지고 무차별 폭력의 법칙이 들어선

24) Ibid., p. 255. 김봉현은 군·경 토벌대의 이러한 인식은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차별구조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았다. 그들은 차별구조를 이용하여 민중의 대립, 분열을 획책하는데, 제주도에서는 그 위에 빨갱이라 부르는 이데올로기 문제를 결부시킴으로써 같은 민족, 같은 도민들 간에 서로 싸우게 하기 위해 반공적 색채가 강한 본토의 정예부대와 서북청년단 같은 반공 테러집단을 섬에 보냈다고 지적한다.

25) Ibid., p. 237.

26) 권귀숙, 『기억의 정치』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6), p. 95. 권귀숙은 이러한 용어들을 김봉현·김민주와 같은 좌익성향의 문헌으로부터 재인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 용어들이 당시 어느 정도 보편화되었는지는 무장대원의 대거 사망과 생존자의 증언 거부로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필자는 저자가 모아놓은 이상의 용어들이 무장대 쪽이 토벌대를 향하여 생산해낸 비인간화 전략의 핵심 자료로 판단하여 그대로 실기로 했다.

27) Ibid., p. 95.

다. 따라서 동질화 메커니즘은 개인적 수준의 폭력을 집단적 차원의 폭력으로, 군인만을 상대하는 전쟁의 범주를 비무장 민간인까지 살해하는 대량학살의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폭력의 상승 및 확대 메커니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제주4·3 당시 대통령 이승만이 “제주놈들을 모조리 죽이시오”라고 명령한 것이나, 경무부장 조병옥이 “대한민국을 위해 제주전역에 휘발유를 부어 30만 도민을 모두 죽이고 모든 것을 태워 버리라”고 외친 것이나, 국방부장관 신성모가 “제주도의 30만 도민이 없어지더라도 대한민국의 존립에는 아무런 지장도 없다”라고 언급한 것²⁸⁾은 4·3 무장봉기를 일으킨 일부 남로당 계열의 무장자위대만을 적으로 규정하는 타자화 메커니즘을 넘어선 것이었다. 여기서 중앙 권력의 수뇌부에게 있어 절멸시켜야 할 타자는 남로당 무장대를 넘어 제주도의 전체 도민으로 증폭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미 그들의 눈에는 제주도라는 섬, 제주도의 30만 도민들 자체가 무장대라는 공산주의자 집단과 사상적·정신적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동질적 타자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제주도라는 지리적 범주 안에는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사상과 개인적 입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빨갱이’라는 동일 공식만으로 제주4·3 사태를 인식했고, 이러한 인식을 선전·선동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확대·증폭시켰다.

제주도민은 모두 빨갱이라는 인식 속에서 제주4·3의 현장에서 이루어진 대표적인 동질화 메커니즘은 ‘연좌제’에 의한 도피자 가족에 대한 학살, 곧 대살(代殺)로 나타났다.²⁹⁾ 이는 토벌대의 ‘진압작전’이 ‘학살작전’으로 확장하게 된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토벌대가 무장대를 진압하고자 했던 목표를 민간인 학살로 확대하게 된 것은 한라산과 해변마을 사이에 있는 중산간 마을의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무장대와 교류가 가능하다는 지리적 판단과 가족 중에 입산하여 무장대 편에 가담한 사람이 있는, 이른바 ‘도피자 가족’은 무장대와 사상적 공감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사회적 판단에 따라 양자를 동질화하면서 함께 절멸시켜야 할 적으로 타자화 시킨데 따른 것이었다.

요컨대, 동질화 메커니즘은 적으로 규정된 타자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제인데, 생산은 재생산으로 이어지면서 이중·삼중의 고리를 통해 진행한다. 다음의 한 예는 동질화 과정이 어떻게 이어지면서 확대되는지 잘 보여준다.

죄 없는 모자(母子)가 ‘빨갱이 종자’라고 하여 이제 막 살해되는 장면을 목격한 마을의 한백행과 송종옥 두 사람은 그 불쌍한 모습을 보다 못해 “어린애에게 무슨 죄가 있어 죽이려고 하는가! 제발 놓아주시오.”라고 눈물을 흘리며 간원하였다. 그러나 살인 집행자들은 그 두 사람을 ‘빨갱이의 동조자’라고 몰아 모래땅에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밀어 생매장했다.³⁰⁾

28) 김봉현, op.cit., pp. 180~181.

29)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4』, p. 250.

30) Ibid., p. 216. 이외에도 김봉현은 무장대 사령관 이덕구의 사살과 함께 이루어진 20여 명의 친척들이 동일

여기서 동질화 메커니즘은 삼중적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빨갱이’로 규정된 첫 번째 타자가 있고, 이어 죄 없는 모자가 ‘빨갱이 종자’의 이름으로 동질화되고, 이를 말렸던 마을의 두 사람은 ‘빨갱이 동조자’로 동질시되면서 함께 죽임을 당했다. 이러한 연쇄적 동질화는 얼마든지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빨갱이’라는 기본 개념에다 관계적 용어들을 만들어 붙이면 쉽사리 ‘빨갱이’를 만들 수 있다. 즉 ‘빨갱이 종자’, ‘빨갱이 동조자’, ‘빨갱이 협력자’, ‘빨갱이 지지자’, ‘빨갱이 추종분자’, ‘빨갱이 가족’, ‘빨갱이 친척’, ‘빨갱이 마을’, ‘빨갱이 섬’ 등과 같은 말들을 통해 ‘빨갱이’는 동질화의 구조 속에서 연속적으로 재생산되었다.

II. 폭력 실행(수행)의 단계 : 본격적 폭력 과정

5. 고립화 (Ghettoization)

고립화 메커니즘은 타자화 된 대상을 본격적으로 학살하기 직전에 이루어지는 포위 및 압박 전략의 일환이다. 타자화 메커니즘이 희생자 집단에 대한 정신적 분리 전략이라면, 고립화 메커니즘은 타자화 된 집단에 대한 물리적 봉쇄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립화 기제는 절멸화 단계 이전에 작동되는 학살 메커니즘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고립화 메커니즘 자체가 절멸의 한 방법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즉 희생자 집단을 향하여 학살이라는 구체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그 집단을 단지 고립화시킴으로써 스스로 절멸케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시간’이라는 변수가 작용한다.

절멸화 이전의 단계로서의 고립화 메커니즘의 한 예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 당시 유대인들을 분리하여 정착시킨다고 하는 이른바 ‘게토(Ghetto)’가 그것이다. 유대인 정착촌이라고 불렸던 게토는 유럽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따로 분리해 내어 그들만의 공간 속에 밀어 넣어 철저하게 타자화시킨 다음 그들을 인간 이하의 기생충으로 비인간화시키고, 그들을 모두 비(非)아리아인이라는 개념으로 동일화하고, 동일화된 그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몰아 놓고 고립화시키기 위한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에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어 놓음으로써 학살자들은 이들에 대한 살해의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되고 방법 또한 수월해졌다고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흩어져있는 것보다 한 곳에 집단적으로 모이게 할 때 살해 의지와 살해 방법이 극대화 되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의 고립화 메커니즘은 대 테러전 형태 속에서 이루어진 작전 차원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고립화의 범위는 크게는 제주도 자체에 대한 고립화를 비롯

화의 메커니즘 속에서 어떻게 학살당했는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48년 12월 26일 아침 군경 토벌대가 신촌부락을 습격하여 부락내에 거주하는 같은 가계의 어른들을 몽땅 연행했다. 어머니, 숙모, 숙부의 며느리, 여동생, 매형의 아버지와 어머니 등 모두 7명이었다. 이윽고 일련의 총성이 울린 후 이씨 가족에 관계있는 집은 물론 부락에는 일제히 불이 놓여졌다. 죄가 8촌 친척까지 미치는 잔혹한 처형이었다. 그리고 남겨진 6명의 어린애는 49년 1월 어느날 근처의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지서 앞의 검은 돌들이 뒹구는 폐건에 어린이들이 나란히 세워지고 소총이 난사되었다.” p. 254.

하여 제주도 내에서의 무장대에 대한 고립화에 이르기까지 이중적 구조 속에서 전개되었다. 제주도 자체에 대한 고립화 전략은 앞서 타자화 메커니즘과 동일화 메커니즘에 의해 제주도 자체가 공산화 되었다는 것, 제주도는 역사적으로 변방이었다는 것,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본토와 떨어진 섬이라는 중앙권력 수뇌부의 인식에 기초한다.

이러한 인식의 기반 위에 실행되는 고립화 전략의 첫 번째 방법은 섬으로서의 제주도 자체를 본토와의 모든 연결을 차단하는 작전으로 나타났다. 이 작전은 크게 언론 통제와 해안 봉쇄 조치로 이루어졌다. 초토화 작전이라 불리는 본격적인 학살의 시작을 알리는 10월 17일 송요찬 연대장의 포고문 발표와 함께 다음 날 18일 제주 해안이 바로 봉쇄된다. 해군은 7척의 함정과 수병 203명을 동원해 제주해안을 차단한다. 이로써 제주도의 선박출입을 일체 금지시켰고 외부와의 교통을 완전히 통제했다.

한편, 언론을 통제함으로써 앞으로 제주도 내에서 벌어질 사태에 대한 모든 언론(言路)을 막아버렸다. 언론과 진압당국 간의 갈등은 강경작전이 진행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일찍부터 언론인 체포, 신문사 접수 및 폐쇄, 그리고 사전 검열을 통해 언론을 철저히 통제했다. 초토화 작전이 시작되기 직전인 10월부터는 제주읍내 언론인들이 줄줄이 군부대로 끌려 들어갔고, 무차별 진압작전이 벌어지기 시작한 11월부터는 아예 사전 검열을 실시함으로써 본격적인 언론통제의 궤도에 들어갔다. 이처럼 언론 통제와 해안 봉쇄를 통한 고립화의 전략을 통하여 진압당국은 제주도를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섬으로 만듦으로써 본격적인 절멸화의 토대를 구축했다.

제주도 현장에서 토벌대에 의하여 수행된 고립화 전략은 무장대를 고립시킨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실제로 고립화된 것은 민간인 집단이었다. 1948년 10월 17일 발표된 송요찬 연대장의 포고문에 따르면, 제주 해안에서 5km 이상 지역에 통행 금지를 명령하며, 이를 어길 경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총살에 처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진압대상으로 설정한 '해안선으로부터 5km이외의 지점'이란 한라산 등 산악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해변을 제외한 중산간 마을 전부를 의미한다. 따라서 고립화의 범위와 대상이 무장대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한라산 일대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변 5km 이외의 지역으로 구획지음으로써 실제로 고립화된 쪽은 중산간 마을의 사람들이었다. 중산간 마을에 살던 사람을 해변마을로 소개시켜서 해변마을에서는 주민감시체제를 구축하여 무장대의 근거지를 없애기 위한 토벌대의 작전 또한 고립화 메커니즘의 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제주4·3에서의 고립화 메커니즘은 중앙권력의 제주도 전체에 대한 고립화와 토벌대의 제주도민에 대한 고립화로 양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영토 가운데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섬이라는 지리적 조건 때문이었는지 본토로부터 별개의 지역처럼 쉽게 고립화할 수 있었다. 즉 대한민국 남쪽에 있는 한 작은 변방의 섬, 그것도 공산화되어 붉게 물든 섬 하나를 고립화시켜 초토화시

키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작용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토벌대가 고립시키고자 했던 대상은 무장대 세력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해변과 산악지역 중간의 중산간 마을의 사람들이었고, 토벌대와 무장대 사이의 주민들만 고립됨으로써, 그들은 양쪽으로부터 학살의 표적이 되어야 했다.

6. 상호보복화 (Mutual Revenge)

상호보복 메커니즘은 모든 제노사이드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다. 상호보복이란 폭력을 행사하는 두 권력 주체를 전제하는 개념으로써, 서로에 대하여 가하는 권력의 정도가 비슷하거나 대등할 때 가능하다. 따라서 상호폭력 메커니즘이란 서로에게 폭력을 수행할 수 있는 두 권력 집단 간에 주고받는 폭력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제노사이드가 절대적 권력을 ‘가진’ 집단이 절대적으로 권력을 ‘가지지 못한’ 집단을 향해 가해지는 일방적인 폭력이며, 그 일방적 폭력이 극대화된 형태로 증폭되면서 상호 비대칭적 권력구조가 형성되었을 때 발생하는 폭력 현상이라고 정의할 때, 상호보복 메커니즘은 일반적인 제노사이드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나치의 유태인 학살이나 일본의 난징대학살과 같이 국가에 의해 철저히 계획된 제노사이드의 경우 상호보복성 폭력교환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제노사이드에서의 상호보복 메커니즘은 기존의 폭력행위를 상승 혹은 증폭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전쟁의 경우 양 국가의 비인간적 보복행위에 대해 금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거나, 대 테러전을 수행하는 정규군에게 중앙권력은 마구잡이식 보복성 폭력을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행위란 어느 한쪽이 시작하면 다른 쪽은 더 심하게 양갚음하는 식으로 악순환과 상승작용을 일으키기’³¹⁾ 때문에 한번 시작된 보복성 폭력은 반복·확대·재생산되면서 대량학살의 결과를 낳게 한다. 어느 한 쪽의 권력이 극대화되거나 극소화되어 비대칭적 폭력구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상호보복 메커니즘은 지속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호보복 메커니즘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호 폭력의 정도가 심화되면서 결국 어느 한쪽 권력 집단으로 하여금 ‘끝장 폭력’, 즉 절멸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결국 상호보복 메커니즘은 절멸화 메커니즘을 위한 예비적 단계의 폭력 기제라고 할 수 있다.

제주4·3에서 상호보복 메커니즘은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이라는 중앙권력과 이를 받쳐주고 있는 군·경 토벌대라는 무력집단과 무장대라는 이른바 ‘게릴라’ 형태의 무력집단 간에 벌어진 폭력의 상호 교환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제주 사태의

31) 김동춘, 『전쟁과 사회』, p. 229. 김동춘은 이 책에서 한국의 전쟁 상황에서 일어난 학살의 유형을 다루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여기에는 작전으로서의 학살, 처형으로서의 학살, 그리고 보복으로서의 학살이 있다. 이 중에서 그는 보복으로서의 학살을 전쟁 상황에서 민간인들 간에 일어나는 보복적 충돌이라고 보았다. 그는 전투 상황에서 군인이나 경찰들은 기습을 당해 자신의 동료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거나 동료들의 시체를 목격할 경우, 또 인근 부대가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경우 이성을 상실하게 되면서 보복행위가 따른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여순사건 당시 진압군이 보복적인 부역자 색출작업을 벌인 일이나 함평의 경우 공비의 습격을 받아 국군 3명이 살해당한 데 대한 보복심이 학살의 배경이 되었으며,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이 저지른 양민 학살 역시 이러한 환경에서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pp. 228~231.

경우 보복학살은 무장대가 경찰서 혹은 우익인사를 공격하여 살해하면, 다음 날 토벌대는 무장대가 떠난 자리에 남아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복 학살을 가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주민들에 대한 학살은 주로 '도피자 가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진행되었다. 삼양리에서 발생한 보복총살의 희생자의 아들인 김양근 씨의 증언은 주민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벌어진 토벌대와 무장대 간의 상호보복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1949년 1월 3일 삼양지서가 습격을 당했습니다. 산에 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부모와 형제들이 희생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악이 받쳐 지서 습격을 하고 보초 서던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산사람들이 지서를 습격하면 다음 날엔 경찰이 산사람 가족이라 하여 주민들을 처형하곤 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서로 죽이는 것입니다. 1월 3일 습격 후엔 산에 오른 사람의 가족들이 멸족 당했습니다. 한 살 난 아기까지.³²⁾

이 날은 삼양리 주민들이 무장대와 진압군 양측으로부터 큰 희생을 당했던 날이다. 2연대가 9연대를 대신해 제주에 막 주둔하기 시작한 때였는데, 무장대는 이날 연대 교체기를 틈타 대대적인 습격을 가했다. 무장대는 마을 어귀에서 보초를 서던 주민 10여 명을 살해하고, 산에서 내려오는 길목의 집들을 불태웠다. 그리고 무장대가 물러간 다음 날 경찰은 예외 없이 보복총살극을 벌였다. 주로 집안에 청년이 사라진 소위 '도피자 가족'이 총살당했다.³³⁾

이러한 양상에 대하여 김봉현은 당시의 상호보복 메커니즘이 얼마나 심하게 주민들에게만 집중되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잘 묘사해 준다.

한라산 산비탈에 붉은 봉화가 오르면 군경은 그것에 부들부들 떨면서 기지로부터 한발 짝도 나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향보단으로부터 출동 요청이 있어도 출동하는 것조차 포기하곤 했다. 밤이 되면 중산간 일대는 게릴라에 지배되었고 다음날 아침 철수하고 나면, 토벌대가 되돌아와 '게릴라 협력부대다' 라든가 '게릴라 내통자가 사는 곳이다.' 라는 등으로 몰아붙여 방화, 약탈, 학살의 보복을 가했다. 보복이 보복을 부르고 피비린내나는 싸움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었다.³⁴⁾

결국 토벌대와 무장대의 상호보복의 피해는 고스란히 비무장 민간인에게 돌아갔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호보복의 메커니즘은 항상 희생양을 가운데 두고 이루어진 두 권력 집단 간의 '상호 자극성 화풀이 학살'에 다름이 아니다. 또한 반복되는 상호보복 메커니즘은 그 공격의 빈도와 강도가 점차 증폭되면서 살육의 잔혹성 또한 광기 수준으로 치닫게 되고, 초토화 작전이라는 이름의 절멸화 메커니즘에 이르게 된다.

32) 金良根(69세, 제주시 삼양3동, 2001. 7. 11 채록) 증언.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op.cit., p. 418에서 재인용.

33) Ibid., p. 417.

34) 김봉현, op.cit., p. 235.

7. 광기화(Cruelty)

상호보복 메커니즘의 반복은 살해의 강도와 빈도를 증폭시키는 기능을 하면서 점차 그 행태가 잔혹해진다. 서론에서 밝혔듯이, 제노사이드란 폭력이 극대화된 형태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 말은 학살이라는 폭력 형태 속에 극단적인 잔혹함, 혹은 잔인성, 나아가 광기적 요소를 함축하고 있음을 전제한 것이다. 즉 학살이라는 말 자체는 '광기적 살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광기화는 역사 속에 일어난 모든 학살 사건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현상 중의 하나이다.

인간의 잔혹함이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는 광기화의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절대 권력이 없는 자를 향해 갖고 있는 비대칭적 권력 관계 구조와 이에 따른 일방적 폭력 행사의 능력, 그리고 제3자의 견제와 개입 권력으로부터의 완벽한 자유로움에 근거한다. 폭력을 수행할 수 있는 절대적 권력과 이를 막을 수 있는 견제 권력의 절대적 부재는 폭력 주체로 하여금 절대적 폭력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러한 폭력의 무한 방치적 자유 구조 속에서 폭력 수행자는 일반적으로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무한 상상의 폭력 본능을 분출시킬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폭력에의 무한 본능이 외적으로 표출되어 나타난 폭력의 기제가 바로 광기화 메커니즘이다.

그렇다면 제주4·3에서 광기화 메커니즘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제주도에서 광기화 메커니즘의 대표적인 주체는 군·경 토벌대와 서북청년단, 그리고 무장대라 할 수 있다. 당시 잔혹했던 살해의 분위기를 김봉현은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주로 전시화의 효과를 위한 광기적 살해의 경우를 먼저 소개한다.

1948년 8월 20일 애월장터에서 공개총살이 행해졌다. 이날 토벌대는 애월리민을 비상 소집했다. 마침내 야만적인 탄압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모인 사람들 속에서 40여명을 뽑아 군중 앞에 꿇어앉히고 "빨갱이에 대해서는 총살보다 죽창으로 잘게 찢어 죽이고 사지를 찢어 놓아야 한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자만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진정한 반공주의자이다."라고 소리치며 주민에게 "죽여라"로 화를 내며 다그쳤다. 이런 수법으로 40여명을 살해하여 전시했다. 그 후 학살은 점차 빈번해져 새디즘적으로 되고 그것을 즐기는 자 조차 생겼으며, 인간내면의 무서움을 보여주게 되었다.³⁵⁾

고문자들은 두 사람의 목을 자르고 사지를 끊어내어 자루에 집어넣어 한림토벌대에게로 보내어 그 머리를 한림가두에서 돌려 전시하면서 수많은 군중에게 보게한 후 한림지서의 십자가에 걸어놓은 채 오랫동안 방치하였다. 그때부터 '능지처참형'은 도처에서 일상다반사처럼 행해졌다고 한다.³⁶⁾

35) 김봉현, op.cit., p. 211.

36) Ibid., p. 215. 김봉현의 증언은 광기화가 주로 전시적 효과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그는 1948년 11월 15일 빨치산의 모슬포습격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죄없는 주민을 찾아내어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잔혹한 고문을 행한 후 그중에서 하모 구장 이하 6명을 골라 빨겟게 달군 철침으로 손톱 발톱을 뽑아

무엇보다도 서북청년단의 잔혹성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면이 있다. 특히 그들이 여성들에게 가한 변태적 성폭력 행위에 따른 광기적 살해는 이미 유희로서의 폭력으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다음은 서청을 비롯한 토벌대의 광기화가 여성들에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서청은 참으로 지독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경찰이 나서서 일시 가두기까지 했겠습니까. 주정공장 창고 부근에는 부녀자와 처녀들의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니다. 서청은 여자들을 검탈한 후 고구마를 쑤서 대며 히히덕거리기도 했습니다.³⁷⁾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상대를 가리지 않고 남편이나 가족을 ‘통비분자’라든지 ‘협력자’라든지로 몰아부쳐 살해하고 그 후에 강간 따위의 부도덕한 행위를 자행했다.³⁸⁾

극우 테러분자들은 가슴과 팔을 단련하기 위하여 죄없는 부인까지 정방폭포 앞의 전주나 나무에 붙들어 매어 사격과 총검술의 표적으로 하면서 새디즘적 잔학을 즐겼다.³⁹⁾

평대리의 어떤 주부에 대해서는 “남편의 행방을 말하라”며 기절할 때까지 고문한 후, 빨갱이의 처라고 하여 임신 중의 국부에 봉을 집어넣어 아랫배를 찢어 살해했다.⁴⁰⁾

창고 안에는 여러 마을 사람들이 갇혔는데 무자비한 구타와 함께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들이 벌어졌습니다. 남녀를 불려내 구타하면서 성교를 강요했고 여자의 국부를 불로 지지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그 썩는 냄새로 잠을 못 이룰 지경이었습니다. 난 그들이 제정신을 가진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⁴¹⁾

이처럼 제주4·3에서 나타난 광기화 메커니즘은 상부로부터 허가 받은 무한 권력의 일방적 폭력 구조와 견제 권력 없는 무한 방치적 자유폭력의 구도 속에서 이루어진 자기존재의 과시적 욕망과 전시적 효과를 위한 공포 조성의 목적, 그리고 이것이 일상화되면서 폭력의 잔혹함은 일종의 유희와 쾌락으로서의 새디즘적 본능을 충족하는 행태로 발전하고, 여기에는 여성들에 대한 변태적 성폭력과 패륜적 행태들이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광기화 메커니즘은 절대

내고 얼굴에 못을 박는 고문을 되풀이하고, 결국에는 우편국 앞에서 공개처형하여 전시하기 위해 수일 동안 방치했다고 말한다. Ibid., p. 217.

37) 제민일보4·3취재반, 『4·3은 말한다-5』, p. 69. 고성중 씨(94년 작고, 성산읍 성산리)의 증언. 그는 대동청년단장을 지냈던 제주도 전체에서 대표적인 우익인사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런 그도 서청의 감정을 사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만큼 서청의 광기적 행태는 인간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진혹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연구 대상이다.

38) 김봉현, op.cit., p. 223.

39) Ibid., p. 232.

40) Ibid., p. 241.

41) 홍경토씨의 증언. 오금숙, “4·3을 통해 바라본 여성인권 피해사례”, 제주4·3연구소 엮음,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서울: 역사비평사, 1999), p. 244.

적 강자의 절대적 약자에 대한 무한 폭력이 변태적 형태로 극단화되어 나타난 인간 폭력의 야만성의 표출로 정의할 수 있다.

8. 절멸화 (Annihilation)

절멸화 메커니즘은 제노사이드의 본질을 가장 가깝게 설명해주는 폭력 기제이자, 제노사이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폭력 개념을 표현하는 대표적 현상이다. 린다 울프와 마이클 헬시저는 절멸화 메커니즘을 ‘공격(Aggression)’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그들에 따르면, 공격은 제노사이드의 핵심적 과정으로써 이 단계에서 희생자 집단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실존이 매우 위협을 받고 있음을 발견하며, 학살자들은 본격적인 파괴와 공격을 감행하면서 희생자 집단을 철저히 제거하기 시작한다.⁴²⁾ 이른바 절멸화 메커니즘은 제노사이드의 본격적인 과정이자 제노사이드를 완성하는 단계라는 것이다.

절멸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살해 행위들은 법적으로 제노사이드로 규정될 수 있다. 이 말은 곧 제노사이드 행위가 국제법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절멸화 과정에서 비롯됨을 의미한다. 그레고리 스탠튼은 이 단계를 ‘Extermination’(절멸)이라는 용어로 설명하는데, 그에 따르면, 학살자는 희생자를 인간 이하로 생각하고 자신들에게 위협을 주는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절멸’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사회를 ‘정화’한다고 생각한다.⁴³⁾ 이른바 ‘절멸화를 통한 사회 정화’의 메커니즘은 모든 제노사이드 현상에서 나타나는 학살의 이데올로기이자 근본 이유로 설정되고 있다. 스탠튼은 학살의 다양한 형태, 즉 폭력의 극단적인 모습들이 이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즉 필자가 앞서 제시한 광기화 메커니즘에 나타나는 변태적이고 잔혹스러운 폭력 행태들은 모두 절멸화의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광기화의 메커니즘은 절멸화 메커니즘의 진행 과정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제주4·3에서 절멸화 메커니즘은 1948년 10월 17일 송요찬 연대장의 포고문에 적시된 ‘초토화 작전’의 선언과 함께 본격적으로 작동했다. 제주4·3이 제노사이드, 곧 민간인에 대한 대량학살이라는 명칭을 얻은 데에는 송요찬의 포고문과 함께 시작된 6개월간의 제주 중산간 마을에 대한 대대적인 초토화 작전에서 비롯한다. 4·3 무장봉기 사건 이후 무장대장 김달삼과 평화협상을 벌였던 김익렬 중령은 그의 『유고록』에서 초토화 작전은 봉기 이후 무장대 진압을 위해 제주에 내려온 김정호 사령관의 토벌작전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궁여지책으로 수립된 작전계획으로써 제주도를 대폭동 사건으로 확대시킨 근본 원인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⁴⁴⁾ 이 말은 곧

42) Linda M. Wolf & Michael R. Hulsizer, "Psychosocial roots of genocide", p. 113~119.

43) Gregory H. Stanton, "Could the Rwandan genocide have been prevented?", *Journal of Genocide Research*, pp. 213~217.

44) 김익렬, “4·3의 진실”, 『4·3은 말한다-2』, p. 302. 그는 같은 책에서 초토화 작전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그는 이미 초토화 작전이 얼마나 불법적이고 비인간적인 작전인가를 알고 있었다. 다음은 그의 말이다. “초토화 작전에는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나 근대사에서는 2차 대전 때 일본군이 북지(北支)·만주 등지에서 적의 유격군을 토벌할 때 행한 작전으로 그 잔인성에서 특히 악명이 높다. 일본군은 점령지역 내

제주4·3이 단순한 봉기와 이에 대한 사태 진압이라는 일상적인 사회적 갈등 정도에서 마무리 될 수도 있었던 것이 대량학살극으로 확대되어 제노사이드가 된 촉진요소가 바로 초토화 작전이었음을 암시한다.

제주4·3에서 전개된 초토화 작전은 중산간에 위치한 마을의 주민들이 게릴라들에게 도움과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는 가정 아래 채택된 것으로, 중산간 마을 사람들을 모두 해안지대로 소개시킨 뒤 게릴라들이 은거할 수 없도록 마을 전체를 불태워 없애버리는 전법으로 이를 어겨 중산간 마을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폭도배'로 간주, 처단한다는 개념의 작전명령이었다.⁴⁵⁾ 제주4·3의 절멸화 메커니즘으로서의 초토화 작전은 이후 6개월 동안 진행되면서 제주 땅에서는 최소한 1만 5천 명 이상이 학살되었으며, 160개 마을이 참화를 입고 불타버린 가옥만 3만 5천 동이 넘었다.⁴⁶⁾

초토화 작전과 함께 절멸화 메커니즘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은 '삼광작전(三光作戰)'이다. 이른바 '모두 태워버리고, 모두 죽여 버리며, 모두 빼앗아 버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작전은 무장대가 활동하는 중산간 지역과 한라산 일대에 대하여 전개된 절멸화 메커니즘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용어일 것이다.⁴⁷⁾ 이와 함께, '불태우고, 죽이고, 굶겨 없애는' 이른바 '삼진작전(三盡作戰)'은 본격적인 '사람 사냥'의 시발점이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하나 골라서 사살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집단학살하는 가공할 토끼몰이식 '투망살육작전'이 전개되었다.⁴⁸⁾

삼광작전의 구체적인 적용은 미군정의 로버트 단장의 명령에서 현실화되었다. 그는 "토벌에 있어서는 대량학살, 집중방화, 주민추방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특히 게릴라의 근거지가 되고 있는 중산간 부락은 깡그리 불태워라."는 엄명을 내렸고, 이에 따라 토벌대는 주민의 게릴라에 대한 원호활동을 봉쇄하고 보급과 연락망을 완전히 차단하여 게릴라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수많은 방화대를 조직하고 해안 연변의 부락을 제거하고 한라산까지 게릴라가 잠복할만한 장소는 모조리 불태우고 모조리 파괴하는 작전을 개시했으며, 움직이는 것은 모조리 죽이고 촌이

의 적 유격대의 활동과 인적·물적 지원의 근원을 봉쇄하기 위하여 점령지 주민들로 하여금 부락 단위로 유격대의 침입을 자치적으로 방어하거나 토벌군에 보고케 하도록 했다. 만일 유격대가 부락에 침입하는 것을 목인하거나 은닉하거나 비밀리에 지원하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부락의 전 주민을 깡그리 죽이고 가옥과 가재를 소각하여 전 부락을 문자 그대로 초토화하는 작전을 폈다. 주민들은 목숨의 보존을 위하여 유격대 침입을 거부하게 되므로 유격대의 활동이 제한을 받게 되고 유격대에 협력한 부락과 주민은 초토화되므로 유격대는 활동 근거지를 잃게 된다. 반면 토벌군은 병력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이 작전은 근대전에서 국제법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비전투원 학살의 죄목으로 이 작전을 명령한 사령관은 전범(戰犯)으로 규정,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책임자와 김정호 사령관은 적국 아닌 국내에서 동족에게 이 비인도적이고 잔인한 초토작전을 감행한 것이다." pp. 302~303.

45) 제민일보4·3취재반, 『4·3은 말한다-3』, p. 294.

46) Ibid., p. 295.

47) 김봉현, op.cit., p. 183. 김봉현의 증언에 따르면, 만만치 않은 반란전력에 두려움을 느낀 이승만 정권의 군경은 전국(戰局)이 잘 풀리지 않는데 초조감을 느낀 나머지, 게릴라를 주민으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킨다는 구실 하에 철저한 '삼광정책'을 실시하여 제주도 전체를 점차 '무인촌', '불모의 땅'으로 바꾸고 도민을 유리걸식의 비극에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p. 214.

48) Ibid., p. 266.

라는 촌은 모두 불태웠다.⁴⁹⁾

김봉현의 증언에 따르면, ‘초토화 작전’과 ‘삼광작전’ 이외에도 송요찬의 진압방법을 일컬어 ‘일제히 씻어버린다’는 의미의 ‘로울러 작전’이라는 말로 표현했고,⁵⁰⁾ ‘모든 사람을 몰살시킨다.’는 의미의 ‘제로사이드 작전’⁵¹⁾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절멸화 메커니즘의 다양한 표현 양식들을 보여주고 있다. 토벌대장 박진경이 1948년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다수의 시민을 제주농업고등학교에 강제 집합시켜 놓은 자리에서 “한라산 일대에 휘발유를 붓고 비행기로 소이탄을 전도에 투하하여 빨갱이를 전멸시켜 버리겠다.”⁵²⁾고 호언한 것이나, 1949년 3월 20일 국방장관 신성모가 제주도를 찾아와 “즉시 항복하라, 자수하라, 그러면 생명은 보장한다. 그러나 응하지 않으면 30만 도민을 몽땅 죽인다.”⁵³⁾는 폭언이나, 이승만이 1949년 4월 9일 제주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나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역적도배를 절멸하라고 군경수뇌부에 지시하고 있다. 폭동의 진압은 시간문제이다.”⁵⁴⁾라고 연설한 것이나, “전 섬에 가솔린을 붓고 빨갱이는 모두 죽여도 좋다”⁵⁵⁾는 조병옥 경무부장의 말은 당시 중앙권력의 수뇌부가 제주도에 대한 절멸화 메커니즘을 어떻게 이해하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절멸화 메커니즘은 제주4·3에서는 ‘초토화 작전’, ‘삼광 작전’, ‘삼진 작전’, ‘로울러 작전’, ‘제로사이드 작전’, ‘토끼몰이식 투망살육작전’, ‘마구잡이식 토벌’ 등의 이름으로 상징화되었고, ‘30만 도민을 몽땅 죽인다’, ‘중산간 부락을 깡그리 불태우라’, ‘전 섬에 가솔린 부어 빨갱이 모두 죽이라’, ‘빨갱이는 모두 죽여도 좋다’, ‘역적도배들을 절멸하라’ 등의 권력 수뇌부들의 발언들을 통해 구체화되고 현실화되었다.

III. 폭력 사후 단계 : 정신적 폭력과 기억의 정치학

9. 부정화 (Denial)

부정화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기억의 정치학에 의해 작동되는 작동 기제이다. 기억의 정치학이란 기억을 조작하거나 정치적 신화를 창조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집단적 기억의 망각과 왜곡, 부인, 조작의 정치로 나타난다.⁵⁶⁾ 권력집단에 의해 이

49) Ibid., p. 219.

50) Ibid., p. 198.

51) Ibid., p. 240.

52) Ibid., p. 187. 이와 관련하여 김봉현은 1949년 3월 하순의 어느 날 전투사령관 유재홍의 탑승기가 한라산을 날고 있다가 추락한 사건을 소개한다. 이를 목격한 계필라들이 즉시 현장에 급습하여 잔해를 뒤지던 중 놀랄만한 작전 계획서를 발견했다고 한다. 이른바 “30만 도민을 동원하여 100자 사이의 간격으로 일렬횡대로 서서 한라산정까지 철저한 ‘산 사냥전’을 개시하여 백록담까지 총공격을 가해 섬멸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김봉현은 이는 미군과 이승만의 군경이 제주도 무장 세력에 대한 ‘말살정책’의 뚜렷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이 정말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확증할만한 역사적 자료를 필자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다만 군경 토벌대의 절멸화 정책은 다른 사료에서도 충분히 발견되고 있다는 면에서 인용하기로 했다. p. 247.

53) Ibid., p. 246.

54) Ibid., p. 252.

55) Ibid., p. 266.

루어지는 것으로 자신들이 행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기억을 다양한 방식으로 파괴하여 그들을 지속적으로 희생자이자 죄인으로 남도록 통제하고 억압하는 정치 메커니즘이다.

이를 위하여 학살자들은 자신들의 만행을 은폐하기 위해 희생자의 시체를 묻어 폐기하거나 희생자 수를 최소화하며, 과장 혹은 왜곡된 보고를 통해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부정화를 시도한다. 부정화 메커니즘은 희생자의 몸을 제거하는 물리적 학살뿐만 아니라, 학살의 기억을 말살하기 위하여 희생자의 과거의 삶의 궤적과 흔적들을 파괴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서적을 불태워 버린다거나 희생자들의 역사를 증언하는 박물관을 파괴하는 일 등은 부정화 메커니즘의 주요 현상들이다.

그렇다면 제주4·3에서 부정화의 메커니즘은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가? 여기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사태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정화와 사태 후에 나타나는 부정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물리적 학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부정화 메커니즘은 주로 학살 후 시체들을 암매장, 화장, 수장 등의 방법을 통해 은폐하는 일을 비롯하여 총살 후 과장 혹은 왜곡된 보고를 통해 사실을 부정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1948년 10월 말부터 11월 초순 사이에 9연대 장병 1백 명 가량이 군사재판 없이 불법적으로 처형된 사건이 발생하는데, 토벌 당국은 군인들을 처형해 놓고 가족들에게 그 결과를 일체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형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시신을 굴속에 매장(埋葬)하거나 화장(火葬), 심지어 수장(水葬)하는 방법으로 은폐했다.⁵⁷⁾ 특히 수장의 경우는 거의 알몸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증언에 따르면, 군인들을 형살장으로 보낼 때에는 개인 신상의 자국까지 없애려고 팬티까지 모두 벗긴 뒤 누군지 구분할 수 없는 낱아빠진 일본군 검은 군복을 갈아입히는 치밀함을 보여주고 있다.⁵⁸⁾

초토화 작전의 핵심인물인 송요찬과 함병선의 부대는 가장 잔혹한 부대로 알려졌는데, 그들은 연동, 노형, 도남, 오라, 오등, 아라, 용강 지방의 주민과 제주 오현 중 학생 80여 명을 금악의 들판에서 미국 헌병의 입회하에 집단학살하고 나서,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산부대(무장대)가 죽었다고 선전하고, 같은 시기 외도 주둔 토벌대는 내도, 해안, 도평, 고성, 상하관 주변 농민 1천 5백 명 이상의 사람들을 무장세력에 협조했다고 하여 외도 2동 연대계곡으로 연행하여 집단학살한 후 사체를 한 곳에 쌓아놓고 가솔린을 부어 화장시켜 은폐했다.⁵⁹⁾ 1948년 11월 26일 군경 토벌대는 전날 반못굴에서 잡은 사람 중 살려둔 한 명을 다그쳐 인근 굴을 수색하여 목시물굴이라는 돌굴을 찾아내 그 안에 있던 노약자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을 총살한 후 휘발유를 뿌려 시신을 태워 그 흔적을 없애고자 했다.⁶⁰⁾

56) Herbert Hirsh, *Genocide and the Politics of Memory : Studying Death to Preserve Life*, p. 10.

57) 제민일보4·3취재반, 『4·3은 말한다-4』, p. 118.

58) 김기순 할머니의 증언. Ibid., p. 183.

59) 김봉현, op.cit., p. 232.

1948년 10월말부터 11월 13일까지 토벌대에게 희생된 행원리 주민들에 대한 미군보고서는 ‘11월 13일 행원리에서 유격대 115명을 사살했다’⁶¹⁾는 식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국내의 각종 군경자료에도 이때 행원리에서 무장대와 토벌대간에 교전이 있었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이는 곧 ‘양민학살’을 ‘유격대 사살’이라는 전과로 조작한 경우이다. 이른바 학살자들은 양민학살을 자행한 후 이를 ‘폭도사살’ 혹은 ‘무장대 00명 사망’ 등의 과장 혹은 왜곡 보고를 통해 학살 사실을 은폐하는 기제를 철저하게 사용했다. 한편, 서북청년단 출신의 경찰의 학살 후 보고행태는 사실 왜곡이 얼마나 쉽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당시 서귀포경찰서장을 지냈던 김호겸의 증언에 의하면, 그들은 무조건 주민들을 잡아 고문을 하고 주민이 ‘모른다’고 하면 들neck으로 끌고 가 죽인 후 보고서에는 ‘현장답사차 갔는데 도주. 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주. 불가피하게 발사. 명중. 사망’이라고 적으면 그만이었다.⁶²⁾

사태 이후 군과 경찰 등에서 나온 관변자료에는 양민학살은 다루지 않고 그 시기에 무장대와 교전을 벌여 대단한 전과를 거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한 미군자료에 보면 다음과 같은 보고내용이 담겨있다. “제주도 연대장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1948년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유격대 122명을 체포하고 576명을 사살했다. 10월 1일부터 11월 20일 사이에는 1,625명을 사살하고 1,383명을 체포했다. 많은 물건들을 노획했으나 무기는 거의 없었다.”⁶³⁾ 이 보고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결국 토벌대에 의해 사살되고 체포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서 무기가 노획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무장대가 아니라 비무장 민간인이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시기의 부정화 메커니즘은 민간인에 대한 일방적 ‘학살’을 무장대에 대한 상호적 ‘교전성과’로 왜곡하여 문서화함으로써 이를 공식적 역사로 영속화하려는 기억의 정치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의 부정 및 은폐, 축소 시도는 그 이후 50년 동안 계속되었고⁶⁴⁾, 나아가 군·경의 역사 왜곡은 역사 조작으로 발전하여 학살의 가해자를 뒤바꾸는 일⁶⁵⁾까지 서슴지 않고 자행함으로써 자신들의 만행 사실들을 철저히 부정하고 있다. 이는 학살자에게 존재하는 부정화 메커니즘이 얼마나 강력하고 끈질긴 것인가를 잘 보여준다 하겠다.

60) 제민일보 4·3취재반, op.cit., p. 414.

61) 주한미군사령부, 『G-2 일일보고서』, 1948. 11. 16. op.cit., p. 310.

62) 김호겸의 증언. op.cit., p. 311.

63) PMAG(임시군사고문단) 단장 로버츠 준장 공한철, 1948. 12. 1. op.cit., p. 341.

64) 1995년 제주도의회 4·3특위에서 희생자를 조사하고 발표하는 등 진상규명작업이 활발하게 벌어졌는데, 이와 때를 맞춰 제주도경찰청에서도 사망자 조사를 벌인 적이 있다. 고태규 씨의 경우 1948년 11월 13일에 어머니와 누나, 그리고 호적에 이름조차 올리지 않은 세 살 난 남동생이 희생되는 비극을 겪었다. 고씨는 이런 사연을 제주도의회 4·3특위에 신고했다. 그런데 얼마 후 경찰이 고씨를 찾아 세 살 난 남동생은 출생신고가 안됐으므로 희생자 명단에서 빼겠다고 했다고 한다. 경찰이 제주도의회에 신고된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을 찾아다니며 명단확인을 했던 것이다. 희생자 중에 출생신고가 안된 경우와 사망신고일이 틀린 경우가 있으면 빠진다는 것이다. 이는 희생자 숫자를 축소시키거나 양민학살의 이미지를 희석시키고자 하는, 이른바 가해자들이 행하는 부정화 메커니즘의 일종이다.

65) 예컨대, 북촌리 사건의 경우 가해자를 토벌대에서 무장대로 뒤바꿔 기록한 역사조작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학살 이후기 부분에서 소개한 바 있다.

사태 후 학살의 역사를 부정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것은 국가에 의한 이데올로기적 억압이라 할 수 있다. 즉 극우 반공 이데올로기를 통한 부정화가 그것이다. 제주4·3의 학살주체인 이승만 정권 하에서의 제주4·3에 대한 담론은 당연히 철저하게 이데올로기적으로 금기시 되었고, 사건의 진실은 왜곡·날조되어 희생자들은 '좌익운동가' 내지 '빨갱이'로 매도되었다. 나아가 제주4·3은 여전히 '공산폭동'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이념의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를 공식적 역사로 지속시켰다. 박정희 정권에서는 4·19 혁명 후 잠시 일어났던 진상규명에 대한 흐름에 종지부를 찍고 진상규명 동지회 회원들을 검거하고, 진상의 실상을 보도한 신두방 제주신보 전무를 투옥하고, 경찰은 유족들이 세운 위령탑을 부수는 등의 부정화 행태들이 이어졌고, 5·18 광주학살을 자행한 전두환 정권은 더욱 더 철저하게 제주4·3에 대한 논의 자체를 억압할 수밖에 없었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제주4·3에 대한 논의는 합법화되지 못했고, 여전히 다큐멘터리 '레드헌트'가 이적표현물로 규정되고, 이를 상영한 서준식은 구속되고, 다큐멘터리 '잠들지 않는 함성'을 만든 김동만도 기소되는 등 부정화 메커니즘은 이후 50년 이상 대한민국의 현대사 속에 지속적으로 작동되어 왔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통한 부정화의 효과는 오늘날 색깔론의 이름으로 진화하여 여전히 남한 사회의 어두운 정치문화의 한 그늘로 남아있다.

10. 정당화 (Justification)

정당화는 폭력 처리 메커니즘에서 부정화와 동시에 작동하는 또 다른 형태의 기제로써, 사태 과정에서는 살해의 명분 혹은 변명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사태 후에는 역사교과서 내지 언론매체의 보도라는 양식 속에서 발견되고 있다. 정당화 메커니즘이란 학살의 주체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한 살해였다고 역사에 기록하고, 학살의 원인이 희생자 자신의 행동에 있었다고 주장하여 학살이 정부의 의도적인 정책이 아니라 희생자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자발적인 대응이었음을 대내외적으로 강조하며, 학살의 가담자들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충성심과 전문가로서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한 자기 변명적 의미화를 뜻한다.

김봉현에 따르면, 학살자들은 뚜렷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심정차원의 개인적 이유로 벌레 죽이듯이 신경질적으로 죽이고 나서 항상 이유를 만들어 붙였다고 증언하고 있다.⁶⁶⁾ 이른바 "그들은 공산주의자였다" 혹은 "그것은 빨갱이를 전멸하겠다는 작전의 일환이었다." 라는 이데올로기적 정당화가 작동한 것이다. 이처럼 모든 학살의 현장에는 항상 학살자들이 극도의 폭력을 행사하기 전과 후에 그에 대한 이유와 변명이 이데올로기적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즉 '빨갱이이므로', '빨갱이 종자이므로', '산사람과 내통했으므로', '공산주의자이므로', '통비분자이므로', '도피자 가족이므로', '보도연맹원이므로', '과거 좌익운동을 했으므로', '사상이 불순하므로' 등 무수한 문구들이 살해자의 자기정당화 혹은 자기변

66) 김봉현, op.cit., p. 180.

명의 도구로 쉽게 사용되었다.

무엇보다도 사태 후 학살의 정당화 메커니즘은 역사적 왜곡을 통해 체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가권력의 이데올로기적 억압의 분위기 속에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근대사의 비극인 제주4·3의 역사는 군·경이 주도하고 있었다. 이들은 먼저 자신들이 행한 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제주4·3을 '북한 사주에 의한 남로당 계열의 공산폭동'으로 규정하는 역사해석을 일반화하고자 했다. 군·경을 비롯한 국가권력은 이를 공식적 역사로 수립하기 위해 국사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시킴으로써 학살의 정당성을 영속화시키고자 했다. 일반적으로 국사 교과서란 한 국가의 공식적인 역사관 내지 역사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데올로기적 기록물이므로, 국가 교과서에 어떻게 기록되느냐는 그 국가 공동체가 자신들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평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들은 철저히 이데올로기적 색채를 씌워 제주4·3을 폭동사건이요, 그것도 공산무장폭도의 봉기요, 남한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렸던 공산주의자들의 교란작전으로 기억하고자 했고, 이를 대한민국의 공식역사라는 이름으로 모든 국민에게 주입시키고자 했다.

무엇보다도 정당화의 메커니즘은 언론매체를 통해 확대·재생산되는 경향을 갖는다. 국가권력은 언론을 제주4·3의 폭력을 국가의 정당한 행위였음을 합리화하고 여기에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보편화의 도구적 매체로 이용했다. 언론은 철저히 정부의 반공 이데올로기에 충실히 따르면서 이를 억압하는 기제로서 기능했다. 1988년 재일동포 작가 김석범의 소설과 자료집에 대해 문공부가 좌익서적으로 지정하자마자, 언론들은 이를 대서특필하는 방식으로 동조하면서 여론을 조성하여 제주4·3의 담론을 억압했고, 1990년에 일어난 'KBS 사태'는 방송을 통한 제주4·3 담론 억압이라는 전례를 남겼으며, 1998년 '제주4·3 제주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때 많은 언론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 같은 언론에서는 이를 애써 외면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여전히 학살 가해자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결국 정당화 메커니즘은 제주4·3의 경우, 사태 과정에서는 반공 이데올로기에 의한 학살의 명분화를 통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태 이후에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되면서 이를 국과 교과서와 같은 공식 역사기록물을 통해 유지되었고, 신문 및 방송과 같은 언론매체를 통하여 일반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학살의 행위 자체가 매우 타당한 것으로 의식화하는데 결정적인 원리로 작동했다.

토 론 Ⅱ

세상을 향한 교회의 첫걸음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다

토론 II

세상을 향한 교회의 첫걸음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다

현문권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신제주 본당 주임신부

1. 토론에 앞서 교회 안에서 4.3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이지만 오늘 주제발표를 하신 문창우 신부님과는 신학교에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4.3에 대한 많은 대화를 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당시 신학생들에게 4.3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4.3에 대한 강연을 제주교구 신학생회에서 준비했었던 것도 기억합니다. 무려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당시 강연하러 광주 가톨릭대학교까지 찾아와주신 4.3연구소장님이셨던 김창후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제주의 대학생들마저도 4.3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한탄과 함께 광주에서 많은 신학생들 앞에서 4.3에 대해 알릴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다시금 4.3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지지만 제주도민의 기억 안에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 먼저 신학적 주제로서의 4.3에 관한 질문에 앞서서 발제글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4.3에 관한 심포지엄을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먼저 몇 가지를 자문해 봅니다.

첫째, 교회 안에서 교회 밖의 4.3에 대한 논의를 신학적으로 할 수 있는가?

둘째, 4.3과 함께 엮여있는 정치적 상황 또한 4.3의 범주에 속하는데 교회는 정치에 관하여 신학적으로 논할 수 있는가?

셋째, 만일 신학적으로 4.3의 역사와 정치에 관하여 논할 수 있다면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넷째, 논의의 확장으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강정, 밀양, 4대강, 쌍용, 원전 등)와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3. "신학적 주제로서의 4.3"에 관한 질문

먼저 자료를 준비하신 문창우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4.3에 대해 역사적인 사실에 관심이 많아 여러 글들을 읽어보았지만 교회에서 발표되는 글을 접하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에서 신학적 의미를 찾는 작업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고, 특히 제주지역에서 벌어진 4.3에 관해서는 정권에 따라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념적 해석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에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1) 발제 자료 3번 '4.3과 하느님 나라'에서 "역사적 사건에 접근할 때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다양한 연구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의미지평을 찾는 것은 역시 종교인들에게 부여된 과제요 특권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를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2) 두 번째 질문은 일반론적인 질문인데 '신학은 신과 관련된 인간을 다룬 학문으로 신학은 인간학이다.'고 말씀하시는데, 4.3과 관련해서 다시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4. "제주 4.3 당시의 교회의 역할"에 관한 질문

"제주 4.3 당시의 교회의 역할"을 발제해주신 박찬식 교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지역 근현대사에서 교회가 걸어온 족적을 찾기는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4.3 당시 교회의 역할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현재 벌어지는 한국사 교과서 문제를 바라보면서 국가폭력에 대한 정부의 사죄가 있었던 4.3에 대한 역사적 정리마저도 이념의 잣대로 흔들리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리가 정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면 4.3의 역사적 사실 규명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4.3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사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2) 4.3 당시의 교회의 역할에 대해 발제를 하시면서, 4.3에 대해 현재 교회가 어떻게 제주지역사회에서 접근해야 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역사학자로서 해방 전후 당시 제주지역 교회의 모습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마지막으로 4.3 심포지움을 계기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사도적 권고를 생각해 봅니다. 지난 2013년 11월 26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사도적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을 발표하셨습니다. 아직 한국주교회의에서 공식적인 번역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49항에서 교황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밖으로 나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 (교회 밖으로) 나갑시다. 나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제들과 평신도들에게 자주 말해왔던 것처럼 여기서 다시 모든 교회에 반복해서 말합니다. 나는 안온함에 기대어 고립되고 안락함으로 병든 교회보다는, 거리로 뛰쳐나가 멍들고 상처받고 더러워진 교회를 더 원합니다."

65년이 지나도록 한국사회에서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해 상처받는 4.3에 대해 제주지역에서 함께 숨 쉬며 살아가는 제주 가톨릭 교회가 평화와 화해의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4.3의 연장선상 안에서 제주지역의 또 다른 아픔인 강정해군 기지에 대해 제주지역 교회가 교황님의 사도적 권고와 사회교리를 통한 교회의 가르침을 깨닫고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성실하게 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토 론 Ⅲ

‘평화신학’적 주제로서의 4·3

토론 III

'평화신학'적 주제로서의 4·3

김진호 목사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1. 쉬뵈렛/시뵈렛

「판관기」의 저자(들) '조차' 체험의 삭제에 가담했다. 아니 의도적인 삭제로 보인다. 12장 1~7절이 바로 문제의 그 체험 삭제의 텍스트다. 본문은 이스라엘 부족동맹 시절, 헤게모니 부족인 에브라임 족이 변방 부족인 길르앗 족을 공격하던 때에 벌어진 한 사건을 다룬다. 사건의 진행은 예상과는 달리 입다가 이끄는 길르앗 족의 대승으로 끝난다. 그리고 입다의 부대는 요르단 강 포구에 진을 치고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쉬뵈렛"을 발음하게 했다. 이때 "시뵈렛"이라고 하는 자는 에브라임의 패잔병들로 간주되어 닥치는 대로 처형되었다.¹⁾ 이렇게 죽은 자의 수가 4만 2천 명이라고 한다.



「판관기」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부족동맹이 형성되어 있던 지역 주민의 총수가 4만 5천 명을 넘지 않았을 것이라는 현대 고고학자들의 추산을 따른다면 '4만 2천'이라는 희생자의 수는 터무니없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텍스트 속에는 집단학살의 상황이 시사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텍스트의 원 저자들, 아마도 이스라엘국이 멸망한 직후 유다국 군주인

1) 1923년 9월 초, 관동대지진 때에도 이와 비슷하게 일본인들이 조선인으로 의심되는 이들에게 '15엔 50전'(15円50銭)이란 뜻의 '주고엔 고깃센'을 발음하게 해서 발음이 어색한 이들은 닥치는 대로 살상했다고 한다.

요시아 왕정의 사관(들)은 5백여 년쯤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전쟁으로 인한 대량 학살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승자인 입다의 영웅담으로 기억하였다. 그리고 국가는 입다 같은 영웅들의 전통을 승계한 유일국가로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의 공식 기억은 희생자의 소리가 아니라 입다의 소리를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식민지 시대 말기에 있었던 성서의 최종 편찬 과정에서도 그 사정은 대동소이하다. 현대의 성서 연구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무도 이 텍스트에서 집단학살을 떠올리지 않았다.

이쯤 되면 완벽한 체험 삭제라고 할 수 있겠다. 이제 3천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희생자의 후손도 학살의 트라우마를 회상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시간이 지났다. 아니 희생자의 기억을 안고 있는 역사의 주체가 사라졌다고 하는 게 타당하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다. 전혀 예상 못한 곳에서 기억이 부활했다. 루마니아 출신 유대인 작가 파울 첼란(Paul Celan)이 1955년 발간한 시집 『문지방에서 문지방으로』(Von Schwelle zu Schwelle)에 수록된 시 <쉬블렛>(Shibboleth)에서 이 단어를 소환함으로써 집단학살의 기억을 되살리고 있는 것이다. 1936년부터 3년간 벌어진 스페인 내전의 희생자를 기리는 조출한 추모행사에 참여한 시인은,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지난 어느 때에, 내전 이후 계속되는 정부의 집단학살과 반인륜범죄(고문과 살해)를 묵도하면서 이 시를 썼다.



첼란의 의식 세계 속에서는 청산되지 않은 집단학살 사건은 바로 그 '미청산' 때 문에 세계 도처에서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 자신도 유대인으로

서 홀로코스트의 비극을 체험한 자였다. 그는 이러한 비극적 사건들 속에서 단어 하나만으로도 섬뜩한 잔인함이 살기어린 칼날을 번뜩이고 있음을 충분히 겪어냈다. "단어 하나에 죽음 하나", 첼란의 이 시구는 나치 수용소에서 체험한 무수한 죽음들이 바로 그런 평범한 단어 하나를 매개로 수행되었음을 폭로한다. '쉬벨렛'도 그랬다. 한 단어로 그리는 참혹의 미학, 아니 참혹의 신학이 바로 첼란의 시를 채우고 있다.

2. 간접적 희생자



아르헨티나의 사회학자 다니엘 파이어스타인(Daniel Feierstein)은, 형법은 희생자의 개념을 직접적 희생자에 한정하여 다루고 있지만, 그 담론적 여파를 논할 때에는 '간접적 희생자' 개념이 더 유용하다고 말한다. 폭력의 피해를 입은 직접적 희생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한 희생자들의 트라우마가 사회적 유대를 해체, 왜곡하는 상황을 초래하기에 폭력은 '간접적 희생자'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은 특히 집단학살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실제로 4.3의 경우처럼 국가에 의한 집단학살의 표적은 좌익 무장세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 전체다.²⁾ 나아가 4.3은 남한 단독정부를 둘러싼 온갖 이견에 대해 국가가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적 사건이다.³⁾ 그것만이 아니다. 민주화의 시대가 오기 전까지(1987년 이전), 아니 포스트신권위주의⁴⁾ 시대

- 2) 1948년 8월 15일 남한 단독정부로 집권한 이승만 정권은 그해 10월 17일에 해안선 5km 이외의 지점에 대한 통행금지를 명하고 이를 어길 때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사살할 것이라는 포고령을 발효한다. 이로써 제주도 중산간 지역의 모든 거주민에 대한 초도화 작전이 벌어짐으로써 이 지역 주민 전체에 대한 무자비한 살상이 시작되었다. 나아가 이것은 5km 이내의 해안 지역 주민에게도 극도의 공포에 휩싸이게 하였다. 이것은 10월 17일 이후 제주도민 전체를 당국이 공격의 표적으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1948년 5.10총선에서 3석의 의석이 제주에 할당되었는데, 이중 2석은 투표율 미달로 무효가 되었다. 이 총선에서 투표가 무효화된 유일한 곳이었다. 이것은 제주를 당국의 과잉 경계의 장소가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가 4.3 학살로 나타났다.
- 4) 권위주의와 경제성장 지상주의를 결합한 박정희 체제를 '신권위주의체제'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1인의 절대 권력과 그에게 충성하는 군부,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테크노크라트로 구성된 권위주의체제를 신권위주의라고 부른다. 나는 여기에 영동개발(강남권 개발)로 표상되는 토건화 장치가 국민 전체를 욕망의 연대로 묶어냈다는 점에서 대중독재의 관점이 신권위주의체제를 논하는 맥락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데, 최근 박근혜 정부의 등장 이면에는 이런 신권위주의적 요소와 유사한 권위주의적 체제 양식이 모색되고 있음을 본다. 단 차이가 있다면, 과거에는 1인의 절대권력이 있었다면, 박근혜 정부는 1인의 절대권력이 부재하는 권력이라는 점에 있다. 박정희는 하나의 상징적 기표로 작용하고 있고, 실제 이 체제에 동맹자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의해 네트워크적으로 엮여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정부는 탈중심적으로 네트워크화된 신권위주의체제의 성격을 갖는다. 그런 점에서 나는 이 정부의 성격은 포스트신권위주의적 정부라고 본다. 하지만 아직 이 정부의 지배가 잘 구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포스트신권위주의 체제는 징후로서만 존재한다. 그리고 이 징후적 시도는 성

가 도래 하는 징후가 엿보이는 2013년 이후까지도 계속되는 방식, 곧 모든 반대는 종북의 흔적이고, 그런 흔적을 지우기 위해 '공포'가 통치의 기재로 활용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신)냉전주의적 안보론의 기저에는 '국가에 의한 4.3의 기억'이 있다.⁵⁾ 하여 브루스 커밍스(Bruce Commings)가 말한 것처럼, 4.3은 이후 전개될 "한국 정치의 확대경이고 현미경"이다.

그러므로 4.3은 단지 1948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집중된 제주민에 대한 국가의 집단학살만이 아니라 한국 현대사를 아우르는 공포의 정치로 변안되고 재해석되어 파급된 현상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4.3의 담론적 여파는 한국인의 왜곡된 냉전주의적 성향체계(아비투스)에도 미친다. 하여 그것은 한국인과 얽힘으로써 발생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혹은 사회의 갈등 상황으로까지 연장된다. 즉 나치의 홀로코스트가 그런 것처럼, 4.3의 간접적 희생자 문제는 전 세계의 평화주의적 성숙을 지체시키는 요소로 세계 속에 잔류한다고 확대해석할 수 있다.

요컨대 4.3 담론의 여파는 '간접적 희생자'를 주목할 때 그 문제적 측면이 더욱 두드러진다. 오랫동안 4.3에 관한 신학적 문제를 연구해온 문창우 신부가 제주에서의 이 집단학살 사건을 기리는 우리 모두가 제주의 문제를 넘어서 "반생명이 넘치는 이 죽음의 세계"에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⁶⁾ 형법적인 직접적 희생자의 관점을 넘어서 간접적 희생자의 차원에서 사유할 때 4.3의 기억은 전 지구 차원의 평화 실천의 한국적 교두보인 것이다.

파울 첼란은 <쉬뵐렛>을 통해 스페인 내전과 그 이후에까지 계속되는 국가의 집단학살과, 고문과 살해 등의 반인륜범죄, 그 반생명적 폭력성을 고발하기 위해 「판관기」의 쉬뵐렛/시뵐렛 설화, 그것의 집단학살의 기억을 담론의 재판정으로 소환한다. 이 두 사건의 간접적 희생자로서 그는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는 두 사건을 연루시킴으로써 「판관기」 12장에서 유실된 체험이 어떻게 오늘의 역사 속에 재현되고 있는지를 고발한다. 즉 「판관기」에서 집단학살의 체험을 유실시키고 국가 형성의 기억으로 편승시킨 결과는 3천년이 지나도록 이런 폭력에 대해서 기독교인을 포함한 인류가 둔감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그리하여 나치의 홀로코스트, 스페인의 홀로코스트(프랑크 정부의 집단학살과 반인륜범죄 등), 한국의 홀로코스트(4.3 등)의 공범자로 우리가 연루되어 있게 하였다.

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왜냐면 이 정부의 중심을 이루는 박근혜 정권의 핵심부는 결코 네트워크적인 탈 중심적 권력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통치를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시대착오적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는 절대권력을 지향한다. 즉 박근혜 정부는 포스트신권위주의 체제의 징후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이 체제를 안착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내파요인이다.

5) 파이어스타인에 따르면 국가의 관점에서 집단학살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공포'의 확산에 있다.

6) 가톨릭 제주교구가 주관한 '제주 4.3 심포지움'(2013.12.8.)에서 발표된 문창우 신부의 글 「신학적 주제로서의 4·3」에서(자료집 26쪽).

3. 평화신학

현대 평화학의 토대를 세운 요한 갈통(Johan Galtung)에 따르면 '평화'는 단순히 전쟁 없는 상태(negative peace)가 아니라 개인적, 구조적 폭력이 없는 상태(positive peace)를 가리킨다. 하여 현대 평화학은 폭력으로 인한 직·간접적 희생자들의 성향체계(아비투스)의 문제,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적으로 확대된' 폭력의 악순환 문제에 개입한다. 이것은 동시에 평화신학이 추구하는 논점이기도 하다.



위에서 말했듯이 4.3은 제주에서 벌어진 집단학살 한 사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시간적으로 현재까지도 그 담론적 여파를 미친다. 그런 점에서 4.3은 한국의 신학자들이 다뤄

야할 평화신학의 중심 테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앞의 문창우 신부의 글의 제목 '신학적 주제로서의 4.3'을 '평화신학적 주제로서의 4.3'으로 수정할 때 그 실천적 논지가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고 본다.

'평화신학으로서의 4.3'의 핵심 논점은 '고통(과 치유)'이다. 집단학살로 인한 고통과 치유를 평화신학의 관점에서 다룬 대표적인 서구신학적 표제가 '아우슈비츠 이후의 신학'이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의제는 (승리하는 영광의 신이 아니라) '고통스러워하는 신'이다. 문창우 신부는 이러한 논제를 4.3에 잘 적용했다. "그분이 보지 않는 죽음은 하나도 없었고 그분은 피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그분의 눈 속에 그분의 귀속에 맺혀 있다." 4.3 희생자들의 고통을 그분이 목도했고 고통스러워했고, 그들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다. 하여 그는 단언한다. "그들은 그분의 십자가였다."⁷⁾

하지만 그의 이러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 "그들은 그분의 십자가였다."는 표현을 그는 '하느님'의 실천이라는 점에서만 다룬다. 실은 이러한 서사는 '아우슈비츠 이후의 신학'의 가장 치명적인 한계다. 왜냐면 이런 류의 신학적 작업들은 신도 함께 고통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인간의 고통을, 고통의 양상 자체를 주목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이와는 달리, 고통의 구체적 양상을 다루는 데 있어 민중신학적 접근은 매우 유용하다.

집단학살의 가장 심각한 고통 양식은 '트라우마적 증후'다. 트라우마는 개인이 감당하기에 벅찬 충격적인 체험의 기억이 의식 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막는 내면의 거부반응을 수반한다. 즉 트라우마의 가장 대표적인 증후는 '기억 장애'다. 하지만

7) 자료집 21~22쪽.

동시에 트라우마는 그 고통을 신체와 정신의 장애 현상으로 '외면화'(externalization)하는 현상을 수반한다. 요컨대 트라우마는 기억 장애로 인해 고통이 언어로 표현되는 것을 가로막지만, 동시에 신체나 정신 질환의 양상으로 드러난다. 신음, 히스테리, 중얼거림, 발작 등이 그것이다. 이런 증상은 그 자체로는 언어가 아니지만 그것들은 그이들의 고통을 우회하여 말하고 있다. 즉 이 외면화는 일종의 '비언어적 언어'다. 민중신학은 이러한 비언어적 언어화 현상을 '한'(恨)이라고 불렀다.

민중신학자 서남동은 이러한 '한의 소리'를 증언하는 것이 (민중)신학자의 과제라고 말했다. 말했듯이 한의 소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다. 비언어적으로 돌출하는 질환적 증후일 뿐이다. 한데 민중신학자는 그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대중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번역하는 자다. 그 번역 행위를 수행하는



이를 서남동은 '한의 사제'라고 명명한다. 즉 이러한 번역 행위 자체가 일종의 치유 과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 치유는 질환자 개인에 한정되는 치유가 아니다. 그 질환자로 인해 야기된 갈등과 고통의 치유에 개입하려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질환자의 치유를 도모한다. 하여 정신분석가는 그 질환적 증후에서 '파편화된 개인사'를 읽어내지만, (민중)신학자는 '파편화된 사회사'를 해독한다. 하여 정신분석가의 치유가 개인으로 환원되는 치유라고 한다면, (민중)신학자는 '사회적 치유'를 지향한다. 바로 이 사회적 치유가 현대 평화신학의 실천적 핵심이다.

그런 점에서 내가 재규정한 문창우 신부의 '평화신학적 주제로서의 4.3'이라는 논제는 신학자⁸⁾로 하여금 4.3 희생자(직접적 희생자뿐 아니라 간접적 희생자를 포괄하는)들의 파편화된 소리, 트라우마적 증후들을 수집하고 해독하는 실천을 수반한다. 여기서 '신학자'라는 표현은, 민중신학적 정의에 따르면, '신학적 실천을 수행하는 자', 그러니까 이 표현은 '신학적 사유와 실천을 결합하고자 수행하는 평신도 사목자와 전문직 사목자'를 포괄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마태복음」의 표현에 따르면 그들은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다. 이러한 신의 고통의 해석자일 뿐 아니라 사회적 치유자로서의 평화신학적 실천이 함께 수행될 때, 문창우 신부가 결론부에서 말한 "4.3같은 비극을 배태한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들의 해소"⁹⁾를 신학적 의

8) '신학적 실천을 수행하는 자', 그러니까 이 표현은 '신학적 사유와 실천을 결합하고자 수행하는 평신도 사목자와 전문직 사목자'라고 고쳐서도 무방하다.

9) 자료집 25쪽.

제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 충족된다. 즉 개인의 고통이 사회적, 구조적 고통과 연루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을 치유하는 일은 모순을 해소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하여 집단학살에 관한 문제에 있어 평화신학적 고통과 치유의 서사는 이렇게 요약된다. 집단학살이 야기한 고통은, 그 고통의 트라우마적인 비언어적 표현들은 바로 신의 신음이며 신의 발작이다. 또한 그러한 질환을 겪는 이들의 치유 과정은 상처 입은 신의 치유 과정이고, 나아가 사회적, 구조적 모순, 그 복잡하게 뒤얽힌 사회적 상처들의 해소 과정이다.

4. 간접적 희생자로서의 민족?

문창우 신부는 결론부의 또 다른 구절에서 “제주 4.3의 희생자는 한국인 모두이고 그 책임자도 한국인 모두이며 그 진실을 65년 동안 묻어둔 비겁함과 태만의 책임도 살아있는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다. 이제 제주 4.3 해결에 제3자의 입장이란 없다.”고 말한다. 동시에 그는 “우리 민족의 범위를 넘어서서 세계의 새로운 평화질서를 향한 반성의 잣대”¹⁰⁾로서 4.3을 이야기한다.

여기에는 4.3의 고통과 치유는 민족적 체험으로 환원되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이 녹아 있다. 앞서 말했듯이 간접적 희생자는 전 지구적 반평화, 그 죽음의 체계와 연루된 모든 이들이다. 파울 첼란이 기원전 11세기의 쉬벨렛/시벨렛 설화와 스페인



내전이 야기시킨 집단학살과 반인륜범죄를 연결시킨 것처럼, 4.3 또한 쉬벨렛/시벨렛 설화와 얹히며, 온갖 홀로코스트 사건들과 얹힌 고통의 사건이다. 쉬벨렛/시벨렛 설화가 요시아 왕정에서 승자의 목소리로 변조되어 나타난 것이 스페인 내전의 비극적 사건들의 담론적 배후가 될 수 있듯이, 그것은 4.3의 배후이며, 4.3은 또 다른 고통의 사건들의 배후다. 또 거꾸로 4.3의 치유가 그 앞뒤의 고통의 사건들에 대한 담론적 치유를 향한 사건이다.

한데 종종 ‘민족’으로 간접적 희생자의 체험을 국한시키는 경우가 있다. 유대인의 홀로코스트 해석이 그 한 예다. 역사학자 임지현이 말하는 ‘희생자 의식 민족주의’(victimhood nationalism)가 그 논리다. 자기 민족의 희생만을 성화(聖化)시키면

10) 자료집 26쪽.

다른 희생에 대해 무감각해지며, 종종 다른 이들에 대한 가해의 논리로 작동한다. 현대 이스라엘이 자행하는 팔레스티나인 주민에 대한 전쟁과 반인륜적 범죄들이 그렇다.

한반도에는 변형된 희생자 의식 민족주의가 작동해 왔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우리 민족이 희생되었다는 의식이 과도하게 작동하면서, 민족에서 공산주의자를 제거하고, 유사 공산주의자를 배제하는 가학의 논리가 작동한다. 그 점에서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제국주의가 우리 민족을 희생시켰다는 과도한 의식이 전면화되면서 민족에서 제거된 제국주의의 부역자들이 ‘반동’의 이름으로 숙청되었다. 그리고 끊임 없이 유사 부역자들이 생산되고 처벌된다.

이와 같이 간접적 희생자 담론이 민족배타주의와 결합하면 그것은 치유와 해방의 담론이 아니라 고통과 파괴의 담론이 된다. 하여 4.3이라는 이름의 평화신학 담론은 4.3을 민족의 기억으로 재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전 지구적인 고통과 치유의 담론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태초의 신이 역사 안으로 들어와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고통을 겪는 이들의 모습으로 환생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신이 영이 되어 모든 몸의 경계를 뚫고 전 지구적 고통의 몸으로 환생하는 것처럼, 4.3은 시공간적 경계를 넘어 초월자와 동일화되기도 하고 내재적인 역사사회적 사건들과 동일화되어야 한다.

토 론 IV

토 론 문

토론IV

토 론 문

허 호 준

한겨레신문 부장

‘전사불망 후사지사’(前事不忘, 後事之師). 중국의 난징대학살기념관에 방문객들이 한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큼직하게 쓰여있는 글이다. ‘과거를 잊지 말고, 후세의 거울로 삼자’라는 뜻이다. 이 글은 이곳만이 일제의 침략만행이 있는 곳(하얼빈 교외 일본군 731부대 유적지, 베이징의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에는 붙어있다.

최근 있었던 한 학술대회에서 남경대학살기념관에서 온 연구원은 과거의 비극을 집단적으로 기억하고 추념하는데 대해 “역사를 거울삼아 경계하여 역사의 비극이 다시 되풀이하지 않게 하고, 역사 자체의 굴레를 벗어나 평화로 승화시키는데 있다”고 한 바 있다.

오늘의 이 자리는 이러한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후세의 교훈으로 삼는데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미나의 주제 또한 제주사 최대의 비극인 4.3을 기억하고 이에 대한 가톨릭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다.

최근 수년 동안 제주 가톨릭은 4.3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왔음은 4.3에 관심있는 도민들이라면 잘 알고 있다. 천주교 제주교구는 2013년을 ‘제주4.3역사의 해’로 주교 서한을 통해 선포하고 다양한 4.3행사를 진행해왔다. 3월 제주교구 청소년사목위원회가 주관한 ‘어머니, 그 이름은 깊고 강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십자가의 길’행사를 연 데 이어 10월에는 제주교구 소속 신부, 수녀, 신자 등 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4.3영령을 위한 묵주의 밤’행사를 열어 4.3 해원을 위한 특별미사와 묵주기도 행진을 진행했다.

이처럼 천주교가 제주도에서 4.3의 비극을 해원하기 위한 노력에 어느 단체, 기관보다 앞장서는 것은 강우일 주교님의 노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강 주교님은 기도와 강론을 통해 “지난 이 일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아픈 과거의 역사를 진정한 참회와 성찰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책임있게 살아가고 긴 안목으로 미래를 보고 평화를 위하여 함께 걸어가고자 함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65년전 제주섬에서 벌어졌던 죽음의 광기로 사라져간 4.3희생자를 추모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역사의 진실을 더듬어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가 기억하기로 제주도 내 종교계에서 이처럼 4.3에 대해 고민하고 영령을 위로하고, 세미나를 여는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과거의 비극을 기억하

고 추념하는 이유는 억울하게 죽은 자들을 위로하고, 역사적 기억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 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평생을 트라우마 속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세미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다. 4.3 당시 교회의 역할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학문적 접근과 신학적 차원에서 4.3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논의는 드물었다. 4.3의 발발원인과 전개과정, 그 속에서 이뤄진 학살과 사건의 지속성 등을 보면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가 밝히는 바와 같이 “사건의 배경은 극히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이 착종되어 있어서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지역적 차원의 연구, 국내적 차원의 연구, 국제적 차원의 연구 모두 필요하다.

20세기 동아시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 20세기 전·중반에 일어난 난징대학살(1937), 오키나와전쟁(1945), 대만 2·28사건(1947), 제주4·3(1948)의 희생자를 합치면 60만명 가까이 되는 숫자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반공이데올로기의 공식화를 선언한 트루먼 독트린의 계기가 된 그리스내전(1947~1949)도 이 시기에 일어났고, 그 여파는 제주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됐다. 제주도를 ‘동양의 그리스’라고 여겼고, 미군 정보보고서에는 ‘민간인 대량학살’(mass slaughter of civilians)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4.3을 국제사적 의미 속에서, 제노사이드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오늘의 이러한 시도를 통해 4.3에 갇힌 우리들의 트라우마를 조금씩 깨뜨리고, 평화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토론자는 주로 박찬식 선생님의 ‘4.3 당시 교회의 역할’과 관련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토론하고, 덧붙여 문창우 신부님의 ‘신학적 주제로서의 4.3’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1. 4.3 당시 신부들의 상황 인식

사건의 비극성과 복잡성 때문인지, 당시 가톨릭 신부들의 4.3에서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간과돼 왔다. 그러나 박찬식 선생님의 발표문에 있는 바와 같이, 해방 공간 제주도 내에는 강점기 때부터 제주도에선 선교활동을 해 온 오스틴 스위니, 패트릭 도우슨, 토마스 라이언 등 3명의 신부가 있었다. 이들 신부들은 4.3 당시 제주도를 찾는 미군정청정 관리들과 제주도 주둔 미군 고문관들, 외신 특파원들은 짧은 시간 동안 통역이 필요없이 영어로 제주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던 유일한 정보 창고였다. 그만큼 이들의 상황인식과 활동은 미군정관리나 외신특파원들의 제주도 상황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4.3 당시 신부들의 활동이 처음 나타난 것은 박 선생님의 발표문에서 언급한 <뉴욕 헤럴드 트리뷴>지다. 이 신문을 보면 1948년 4월 말 신문사 특파원 알렌 레

이몬드와 사진기자 칼 마이던스가 제주를 찾아 제주도 거주 신부들을 인터뷰했다. 이 시기는 당시 주한미군사령부가 '남한 점령 시기의 핵심적 임무'라는 1948년 5.10 선거를 열흘 남짓 앞둔 시점이었다. 이들 특파원이 제주도에 파견될 때는 미군정 장관 딘 소장과 미보병 제6사단장 올라도 워드 소장이 제주도를 동시 방문한 때다. 또한 제주도 농업학교에 있는 미군정중대 소속 군인들의 민간인 가족들이 제주도에 철수할 때였다. 그만큼 제주도의 사태발전이 급박하게 전개되던 시점이었다.

신부들은 이들 특파원(스위니, 도우슨)을 만나 제주도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들의 설명은 1) 소요의 소련 방식과 유사성 2) 경찰의 야만성과 이로 인한 제주도민의 좌경화 3) 제주도 내 공산주의자들의 극소수 4) 제주도 경찰청장을 포함한 경찰관리들과 일제 경찰의 비교 5) 유치장 수감중인 도민들에 대한 폭행 중지 요구 등을 언급했다. 신부들의 기본적인 인식은 당시 일제 경찰보다 더 심한 미군정 경찰의 타락과 야만성이 제주도민들을 좌경화로 몰아넣었고, 제주도 내 공산주의자들은 극소수라는 것이었다.

2. 4.3 당시 신부들의 역할

신부들이 제주도 사회의 정보를 취득한 경로는 신자들을 통해서였을 것이다. 결국 신자들의 제주도 상황에 대한 발언을 신부들은 전해 들었고, 신부들은 이를 미군정청 관리와 신부들, 제주도 주둔 미군 고문관, 특파원들에게 알린 것이다.

신부들은 제주도민의 보호자였으며, 기아에 허덕이는 도민들에게 도움을 준 구휼자였다. 또한 미군의 주요한 정보원이었고, 한국전쟁 때는 군종신부로서의 역할을 했다. 그만큼 신부들의 역할은 다양했다. 박찬식 선생의 발표문에 나온 1948년 7월 31일자 미보병 제6사단 20연대 제주도 파견대장 콜린 중위가 20연대장에게 보낸 주간일지 보고서에는 7월 25일(일요일) 오전 9시 자신을 포함해 미군 3명이 천주교 미사에 참석하고, 스위니, 도우슨 신부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다고 언급돼 있다. 미군들은 이들 신부를 통해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의 제주도 통치와 현재의 상황에 대해 들었고, 신부들은 그들에게 미군이 철수하면 그 날로 내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1948년 5월 광주교회 소속 헨리 신부가 제주도를 찾은 때는 5·10선거가 끝나고 20연대장 브라운 대령이 파견된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헨리 신부가 아일랜드 골롬반회 마리난 총장에게 보낸 서한을 보면 헨리 신부는 여러 신부들과 함께 미군의 지프를 빌려 제주도 내 곳곳을 돌아다녔고, 초토화된 마을과 주민들의 두려움을 직접 목격했다. 이 때도 도우슨 신부가 헨리 신부에게 제주도의 상황이 나빠지고 있으며, 모든 상황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최정숙 전 제주도 교육감과 그의 부친 최원순 판사, 오빠 최남식 제주농업학교 교장 모두 4.3의 피해자다. 최정숙 당시 신성학원 교장이 9연대에 끌려가 갇은 모욕을 겪고 처형될 위기에 놓였을 때 제주본당의 신부들이 최 교장을 구사일생으로 살

려냈다.

초토화 시기인 11~12월 제주도 주둔 9연대 고문관으로 있던 피쉬그룬드는 신부들과 비교적 폭넓게 교류했던 것 같다. 그는 토론자와 교환한 이메일을 통해 “나의 전임자와 신부들이 설명한 제주도내에 있는 가난한 주민들의 위험한 상황을 무시하지 않았다. 남한 정부는 제주도민들과 함께 외부세력이 이끄는 반란을 진압하려 노력했다. 이들 제주도민들은 대부분 중도에 사로잡혀 현대 정치철학(공산주의대민주주의)를 모른다.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군에게 강력하게 민주주의 원칙과 법규를 따르도록 자문했다”고 말했다.

토론자는 피쉬그룬드를 오랜전에 직접 만난 적이 있다. 그는 토론자와의 면담에서 “도우슨, 스위니, 라이언 등 가톨릭 신부들을만가 전까지는 구내식당(9연대)에서 한국인들과 같이 식사했다. 그들은 당시 9연대 부대 바로 인근에 있는 가톨릭 교회에 살았다. 내가 한 일이라고는 길을 내려가서 거기에 가곤 한 것이었다. (가는 길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거의 매일 밤 그곳에 갔고, 그곳에서 저녁을 먹었다. 그들은 서양식으로 식사를 했다. 나는 한달에 한번 무료 보급품을 받았는데 햄과 감자, 밀가루, 설탕 등이었다. 나는 그것들을 가톨릭 신부들에게 주고, 그들은 저녁식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피쉬그룬드는 소소한 일상에 대해 말했을 뿐 제주도 상황에 대해 그들과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지만, 제주도 내 신부들이 제주도의 상황을 중앙에 호소했던 것을 보면 제주도 상황을 알렸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미국의 전국가톨릭복지협의회의 원조를 받아 피난민 구제에 나선 제주도의 신부들은 제주도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승만과 관계부처에 진정하고, 서울 교구에 제주도민들이 처한 상황을 알리고 지원을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 조지 캐롤에게 보낸 서한에서 스위니 신부는 “제주도민들이 짐승같이 살고 있고, 하루 감자 1개로 목숨을 연명하고 있다”고 제주도의 참상을 알리고 지원을 호소했다. 이에 캐롤 신부는 이를 대한민국 정부와 주한미대사 무초, 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장군에게 알려 지원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캐롤 신부는 1949년 5.10 재선거를 앞두고 4월 초중순 2주일 동안 제주도에 머물며 구호활동을 전개했다. 이 시기는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이 처음으로 4월 9일 제주도 방문을 앞두고 군경의 소탕작전이 마지막 강도를 더해 가던 시점이었다.

신부들의 이러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1949년 3월 10일 내무장관 신성모와 함께 제주도에 파견됐던 국무총리 이범석은 “제주도의 식량문제가 그렇게 긴박하지 않은 것을 느꼈다”며 굶주림에 허덕이는 제주도 현지 실정과는 전혀 다른 발언을 하였다.¹¹⁾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중앙의 고위관리들과 제주도민들간의 물리적 거리감만큼이나 상황인식에 대한 거리감의 차이였다. 제주도민들에 대한 고난과 약탈은 군경의 과잉진압으로 증가돼왔다.¹²⁾

11) 『동광신문』, 1949. 3. 15.

12) WEEKA No. 64, 19 March 1949.

신부들은 또한 정보 제공자 역할도 했다. '9연대 전투일지' 1948년 8월18일치에는 "웨슬로스키 중위가 서울로 귀환했다는 보고와 함께 라이언 신부가 폭도 40여명이 상호마을 주민 5명의 집을 습격해 부상을 입혔다고 보고. 주민들은 북한선거를 위한 선거인 투표용지 서명을 강요받았다"고 나와있다.

또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50년 8월 13일에는 '정보원'(informant)인 제주도 내 신부가 제주도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날뛰기 시작했다고 주한미대사관에게 보고했다. 이에 대사관쪽은 제주도 상황을 직접 시찰하기 위해 해군무관 존 세이퍼트(John P. Seifert), 3등 서기관 도날드 맥도날드(Donald S. Macdonald), 부영사 필립 로우(Philip C. Rowe) 등으로 팀을 구성해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국장, 해병대 지휘관, 경찰 간부들을 만나 제주도 상황을 파악해 대사관에 보고서를 제출했다.¹³⁾ 미대사관은 향후 제주도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려 한 다면서 한국 당국도 그렇게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¹⁴⁾ 이들은 경찰과 관련해 1명의 미고문관이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고문관은 게릴라 전투경험이 있는 장교로 하며, 이외에 2명의 사병이 배치돼 경찰을 훈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문관은 소수의 무장 게릴라와 오름에 있는 지지자들을 소탕하고 향후 게릴라 활동의 재발방지를 위한 일환으로 내륙에 정찰 초소를 세워 공격적인 토벌작전을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토벌작전과 정찰활동을 위해 전투경찰대대가 창설돼야 하고 보병 및 게릴라 전술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병대를 보다 시급한 본토로 철수시키는게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이와 같은 건의가 있는지 며칠 뒤 제주도비상경비사령부는 8월 24일 한라산 무장대를 소탕하기 위한 전투신선대를 만들어 작전에 나섰다.¹⁵⁾ 경찰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 8월 중순까지 보도연맹원 700여명을 검거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또 잠재적인 파괴분자들로 보도연맹원 2만7천여명과 4.3 당시 공산주의자로 죽은 친척 5만여명이 존재한다고 주한미대사관 관리들에게 밝혔다.

3. 한국전쟁 당시 제주도 천주교

제주도 주둔 주한미공보원이 1951년 1월 30일 제주도 상황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도우슨 신부는 한국전쟁이 격화되던 시점에 주한미공보원의 한국인 직원용 숙소로 학교 건물 2채를 임대료 없이 제공했다. 신부는 학교가 다시 개교하면 가톨릭 교회에 넘겨줄 조건을 붙여 이용토록 한 것이다.

13) Memorandum for the record, Subj: Conditions on Cheju Island, John P. Seifert, Naval Attache, Donald S. Macdonald, Second Secretary of Embassy, Philip C. Rowe, Vice Consul, Aug 17, 1950; 이 보고서는 한국 당국에 가치가 클 것으로 생각해 국무총리 서리와 내무부장관에게 보냈고, 워커(Walker) 장군에게도 보냈다. Everett F. Drumright to John M. Allison, Department of State, Aug 29, 1950

14) Everett F. Drumright to John M. Allison, Department of State, Aug 29, 1950

15) 「제주신보」 1950년 8월 26일

한국 전쟁 시기 제주도 내 종교단체의 신자수 및 교회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 표는 당시 다른 지방에서 들어온 피난민 신자수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종교별	제주읍 신도수			전도 신도수(제주읍 제외)			전도 교회 또는 사원수
	남	여	계	남	여	계	
대한예수교 장로회	205	510	715	1244	2541	3785	37
천주교	276	362	638	648	641	1289	4
불교	5000	4000	11000	17000	5000	22000	57

(1951년 1월 23일 현재)

1952년 9월 27일 라이언 신부가 주한미군사령관 벤 플리트 장군에게 보낸 서한을 보면, 라이언 신부는 당시 유엔군의 군종신부였다. 라이언 신부는 이 서한에서 당시 제주도에 있던 중공군 포로수용소 사령관의 교체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이유로 1) 사령관이 매우 유능하며 2) 공산주의자들과 주민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며 3) 아직도 한라산에 은거하고 있는 공산 게릴라들이 수시로 마을에 내려와서 주민들을 살해하며 식량을 강탈해 간다고 밝혔다.

박 선생님의 발표처럼 4.3 당시 천주교회와 신자들이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이는 교회가 당시 제주읍내에 있었기 때문이며, 신부들이 미군 고문관들과 교류를 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몇가지 궁금증이 있다. 발표문에서 보면 헨리 신부가 마리난 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오스틴 신부가 제주도를 떠나기를 주저했다는데 그 이유는? 4.3 연구자들에게도 그동안 4.3 당시 천주교회의 구휼활동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극도의 어려움에 처했던 제주사회에서 천주교회의 구휼활동은 교세의 확장에도 도움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제 강점기에 건립 한국전쟁 시기 신자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4.3 당시 천주교회의 구휼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4. 다음은 문창우 신부님의 '신학적 주제로서의 4.3'에 대해 짧막하게 언급하고 싶다.

흔히 4.3 연구자들 사이에 하는 말이 있다. 4.3위령제나 관련 행사들을 보면서 '박제화'됐다는 표현을 쓰곤 한다. 4.3이 발생한지 40년만인 1998년 처음으로 재야에서 준비한 제1회 4.3위령제가 열릴 때의 감동과 지금의 위령제의 느낌은 확연히 다르다. 제주 역사상 최대의 비극적 사건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대에 일어났는데도 쉽게 잊혀지고 있다. 오직 4월 3일 하루만 잠깐 생각하는 통과의례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문 신부님의 말씀처럼 “ 4.3이 역사의 기념물로 돌에 새겨진 기념일로만 기억될 때 우리의 미래는 차단된다.” 남경대학살기념관에 있는 ‘전사불망 후사지사’처럼 과거를 잊지않고 훗날의 교훈으로 삼지 못한다면 폭력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며, 기억회피는 폭력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발표문을 보면 강우일 주교님은 4.3의 역사적 진실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강 주교님은 “4.3이 우리나라의 역사의 여정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찾아내고,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미래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찾아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3만여명의 무고한 희생이 허공에 사라지고 땅속에 파묻혀 버리고 만다. 그래서 안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4.3행사가 박제화되고 있듯이, 제주도민들, 심지어 4.3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된 유가족들조차 불행스럽게도 그러한 의미를 모른 채 잊혀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적 냉전 이데올로기의 비극의 땅에 군사기지가 들어서도 분노하지 않는게 현실이다. 제주사회의 부정의를 보고 분노하지 않는다.

문 신부님이 신학적 접근으로서,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길은 억울하고 불행하고, 고통받는 원인을 찾아내고 온전한 삶으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언급은 4.3의 진상규명과 일맥상통한다.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기억하고 기념하며, 고통을 드러내 치유하고 상생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

많은 이들이 ‘용서와 화해’, ‘화해와 상생’을 이야기한다. “진정한 용서란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밝혀지고 그 잘못을 저지른 이가 진정으로 참회해 용서를 청할 때 이뤄지는 것이다. 정의가 앞서 나가고 사랑은 뒤따르는 것”이라는 문 신부님의 지적에 절대 동의한다.

그렇다면 고통과 불행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진상규명운동이 벌어진지 25년,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된지 만 10년이 됐지만 군·경 출신 어느 누구도 당시의 사건에 대해 사과한 이는 없다. 오히려 제주 4.3특별법을 거부하고 진상조사보고서를 헐뜯으며 희생자 결정을 뒤집으려는 시도가 줄기차게 이어졌다. 가해자의 사과가 없는 화해와 용서, 화해와 상생이 가능한지 신부님께 묻고 싶다. 4.3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지, 교회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 소견을 듣고 싶다.